

IBK MAGAZINE

06

with IBK | with WM | with 은퇴

고고, 챌린지

2023.
June
vol.454



06 : June

고고, 챌린지

도전은 거침없이

도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론 우릴 시험에 들게 하죠.

그런데도 우린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왜일까요?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고, 도전의 극복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라는 명언을 빌리지 않아도

도전 그 자체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걸 증명해 낸 당신처럼요!

새로운 도전이

망설이지 않을 때

한 음크의 **능**기를 주어주는 일

Contents

2023.
June
vol.454

고고, 챌린지

10

에세이
고고, 챌린지

12

슬기로운 생각
삶을 성장시킬
새로운 도전

18

IBK가 만난다
그의 도전은 오늘도 현재진행형
국민멘토 김미경

24

IBK NOW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IBK인의 인생 최고의 도전은?

32

IBK업글인
향긋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사당역지점 송지은 대리

38

IBK맛집노트 ㉔
인천편

44

발길 닿는 길(국내편)
선비의 향기가 흐르는 계곡
문경 선유동계곡과 레포츠히어

50

발길 닿는 길(해외편)
분화구 사이를 걷고, 파도와 마주하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 마우이

56

IBK산 ㉔
소백산

64

IBK버킷리스트
도전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바디프로필 100일의 도전

70

IBK핸드메이드
내 마음속 소중한 무언가를 불빛으로 밝히다
김포산단중앙지점

76

카툰으로 보는 역사
꿈임없이 도전한 거인
조선의 발명왕 장영실

78

요즘, 시선
불황 속 절약 소비
오늘 하루도 알차게 갓생 살기

82

IBK히어로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역량 강화로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듭니다, 외환마케팅팀

92

히든챔피언
차별화된 기술과 와이즈 마인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성장을 이루다, (주)와이즈테크

98

창공, 날다
세상을 바꾸는 꿈을 향한 비상 IBK창공 기업
(주)레다게임즈, (주)헬퍼로보틱스, (주)씨라이프사이언스랩, (주)코드넷

102

HOT ISSUE 1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광고촬영 스케치

106

HOT ISSUE 2
올여름 뮤직 페스티벌
IBK인의 뮤즈는 누구일까?

188

사소한 꿀팁
유통기한 지난 음식
알뜰살뜰 활용법

190

우리말 한 걸음
방명록 속 짧은 문구에도
방심은 금물

192

IBK뉴스
이달의 뉴스

194

이달의 이벤트
이달의 N행사 / 이달의 인증샷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2023년 6월 1일 발행인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조민정, 김태경 편집위원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홍보부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with WM

112

ISSUE BRIEFING 1

배터리 혁명
K-배터리의 미래

118

ISSUE BRIEFING 2

마·중반도체 패권 다툼
위기인가, 기회인가

124

GLOBAL TOPIC

달콤살벌한 설탕값
'슈거플레이션'이 온다..!

128

TAX GUIDE

ETF 투자자의 세후수익 극대화를 위한
절세 노하우

132

CHANGING SYSTEM

부동산의 미래를 조망하는
'등·선행 지표'

136

CLASSIC CLOUD

조르주 쇠라
'아스니에르의 물놀이'

Contents

with 은퇴

142

느림의 미학

반복되는 루틴의
진짜 의미는 나를 위한 도전

148

마켓 이슈

열심히, 꾸준히, 즐겁게 때로는 치열하게
'나'를 비추는 다양한 앱서비스

154

건강코칭 닥터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권순재 원장

160

글로벌 트렌드

은퇴 세대를 위한,
해외 주거 유형 토크하기

166

재무설계 플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만능은 아니지만

170

은퇴 다이어리

"뭘 먹고 살지?"
은퇴 보릿고개 넘는 3가지 비법

176

슬기로운 취미생활

반짝반짝 눈부신 한 땀 보석집자수 DIY

182

컬처 스토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상이몽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도전인 시대!

도전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도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취하는 관성의 힘은 결국 현실과 꿈에
대한 강한 목마름에서 시작한다.
현재의 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힘, 미래의 나를
위한 값진 노력은 현실의 논리적 핑곗거리를
이성으로 받아치는 도전 앞에서 당당하다.
생각은 깊게 하는 것이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도전의
눈높이는 여전히 유효한 학습의 효과다.

Aging Challenge Study Refresh G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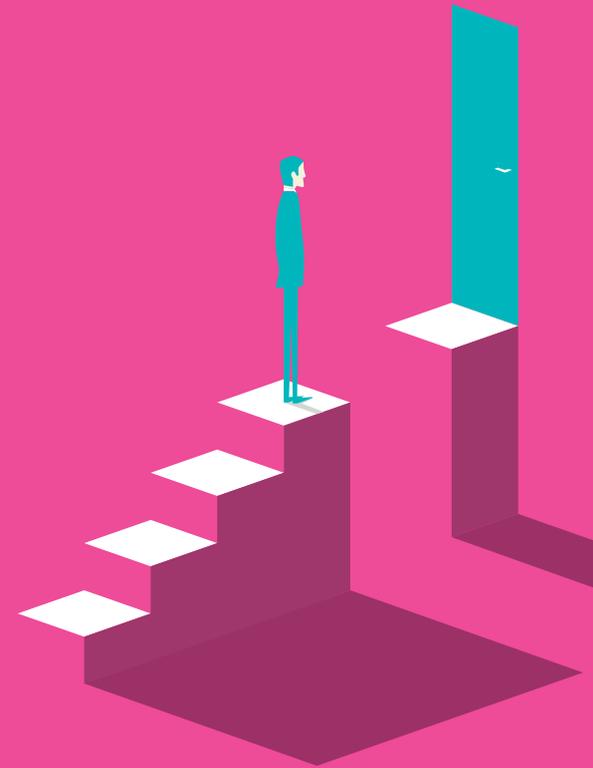
삶을 성장시킬 ————— 새로운 도전

고난과 시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도전이 찾아왔다는 건, 내 삶이 성장할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뜻. 그러니 온몸으로 반겨주자.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도 해주자.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니까.

글 김민식

기회는 망했을 때 찾아온다

스무 살에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느꼈다. 대학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했는데, 원래 이름은 광산학과였다. 석탄채굴학과 석유시추공학을 배웠는데, 1990년에 이미 탄광업은 사양산업이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광산학을 공부해서 뭐 하나 싶었다. 그래서 대학 전공 공부 대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당시 내가 읽은 책 중에는 엘빈 토플러의 3부작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이나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렌드》 같은 책이 있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온다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봤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유용한 도구는 무엇일까? 나는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글로벌 마켓에 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 수도 있다. 정보화의 시대에 최신 정보는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를 잘한다면 통역이나 번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최신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혼자 영어 공부에 도전했다.



김민식 PD-작가

재미난 직업을 찾다가 1996년 MBC 공채에 지원해 예능 피디로 입사했다. 태생이 남을 웃기기 좋아하는 편이라인 탓에 매일같이 신나게 연출했더니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해마다 200여 권의 책을 읽고 매일 아침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그때 쓴 글들을 모아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써봤니?》, 《공짜로 즐기는 세상》, 《외로움 수업》 등을 펴냈다.

군 복무하던 시절, 매일 아침 30분씩 문장 열 개를 소리 내어 반복해서 읽었다. 그런 다음 작은 쪽지에 문장을 적어 낮에 짬 날 때마다 외웠다. 그렇게 종일 외운 문장은 밤에 잠들기 전 복습을 했다. 다음 날 새로운 10개 문장을 외우면, 자기 전에 전날 외운 10개 문장부터 다시 복습했다. 이렇게 매일 10개의 문장씩 누적 암송을 하니 6개월이 되자 회화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 있게 됐다. 영어 회화를 할 때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맞추어 문장을 조립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없어 입이 잘 열리지 않는다.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는 게 말문을 여는 지름길이다.



회화책을 한 권 통째 외운 결과 영어의 달인이 될 수 있었고, 복학한 후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회에 나가 2등 상을 탈 수도 있었다. 이후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했다.

한편 1995년 나는 제레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을 읽었다.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주고, 21세기 정보혁명의 결과 인간의 정신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시대가 온다는 내용이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갈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류가 역사상 최초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로마 시대 귀족들처럼 예술과 문화를 즐기고 철학을 논하며 살 수 있는 시대.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나 로봇이 로마 시대 노예들처럼 생산을 담당하기에 인간은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될까,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가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독점한 채 대다수 인류는 실업 상태에 빠지는 디스토피아가 될까?

답은 답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답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가 유토피아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이제 힘들고 귀찮은 일은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시대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살겠노라' 마음먹을 것이다. 디스토피아가 온다고 절망하는 사람은 일이 안 풀릴 때 세상의 변화를 탓하며 낙담하게 될 터고.

1995년에 읽은 《노동의 종말》에서 앞으로 3~40년 내로 컴퓨터의 언어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 자동 통역기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이 나오리라 전망했다. 당시 나는 이제 막 통역대학원에 입학해서 열심히 통번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번 생은 또 망한 건가?' "정보화 기기가 발달하면 언젠가 소설을 번역하는 건, 컴퓨터가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사람 대신 소설을 쓰는 건 힘들 거다. 그러므로 21세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일자리를 원한다면 창작자가 되어라."

20세기가 활자 문명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영상 문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미디어 산업의 창작자가 되는 편을 권한다." 그 책을 읽고 나는 1996년 MBC 피디 공채에 도전했다. 세계화의 시대에 영어가 필요할 거로 생각해 통역사가 되었고, 정보화의 시대에 언론사가 정보의 흐름을 독점하니 방송사에 입사했다. 나름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잘 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위기는 의외의 지점에서 닥쳐왔다. 1996년 입사했을 때, MBC의 경쟁자는 KBS나 SBS였다. 그런데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자 경쟁사는 어느새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 유수의 미디어 기업들이 줄을 서 있었다. 게다가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TV를 시청했는데, 정보화의 여파로 각자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왔다. MBC가 누리오던 광고 시장의 독과점도 깨지고, 매년 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다.



물론 독하게 마음먹고 버티면 정년까지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고민을 해봤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21세기의 커다란 변화가 세계화와 정보화라면,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건 바로 고령화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줄 아무도 몰랐다. 알았다면 1970년대에 산아 제한 운동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세상일이다. 나는 세계화와 정보화보다 고령화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지만, 고령화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대비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다. 만약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면, 나이 50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이 70, 80에도 일하려면 나이 50, 60에도 공부해야 한다. 나이 50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는 독서고, 최고의 학교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나는 선물의 나이에 명퇴를 신청하고 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1995년 나는 제레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을 읽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갈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인가

그런데 퇴사하니 참으로 외로웠다. 매일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고, 매일 만나던 사람이 사라지고, 매월 나오던 급여가 사라지니 나이 50에 인생이 또 망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 감독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늘 수십 명의 제작진과 배우들을 진두지휘하며 살던 내가 퇴직 후, 혼자 조용히 칩거하며 살자니 너무 외로웠다. 그런데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다. 고령화 시대란 결국 모두가 외로워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나온 은퇴자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부부가 같이 해로하면 좋겠지만 초고령 시대에 둘 중 하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남은 인생을 홀로 살아야 한다. 비혼을 선택하고 평생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시대에 외로움을 고통이라 느낀다면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요,

국가적으로는 손실이다.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 앞에 찾아온 새로운 도전이다.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건, 외로움이 잘못 산 인생에 대한 벌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 퇴직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나를 찾지 않는 것은 내가 아이들을 그만큼 잘 키웠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잘 자라난 덕에 부모의 손을 타지 않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잘하고 육아를 잘 해낸 결과, 우리는 노후에 외로워진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자.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다.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젠

Point

나를 좀 돌봐줘, 하고. 세계화는 처음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었다. IMF는 우리에게 종신고용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고 요구했다. 인구가 적고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가 WTO 국제 무역기구가 안겨준 글로벌 마켓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수출 덕분에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2000년대 불어닥친 정보화 바람에 발맞추어 산업 재편을 한 덕분에 IT 강국이자 문화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했고, 그 결과 고령화가 찾아왔다. 고령화 사회는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온 도전이다. 인생에서 전환점은

언제 올까? 위기가 닥쳐올 때 온다.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사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는 건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은퇴 후를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하루하루 즐겁게 살 것이고, 실업자로 사는 게 고통이라 여기는 사람은 기나긴 노후를 두려워하며 지내게 된다. 은퇴가 내 삶에 찾아온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 여기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출발선이라 여겼으면 좋겠다. 100세 시대,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한다.



그의 도전은
오늘도 현재진행형

Mentor

국민멘토 김미경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국민멘토, 166만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 유튜버,
온라인 대학 학장 등 그의 필모그래피를 수놓은 화려한 이력들이다.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하루 20분 성공습관, 공부로 꿈을 이루는 온라인 강의 등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모든 사람이 멋진 '슈퍼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의 도전이 오늘도 현재진행형인 이유다.

글 박성일 사진 김세영

Q. 마감에 쫓기고 스케줄에 늘리는 하루의 릴레이 바통이 숨차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요. 5년 전부터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촬영을 주중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매일 업로드하고요. 그보다 더 바쁜 게 제가 3년 전에 만든 교육 플랫폼 'MKYU'입니다. 대학 콘셉트의 온오프라인 성장터인데요. 여기서 주로 3060세대가 공부합니다. 특히 요즘 새로 시작한 '미라클 모닝'을 매주 월요일 새벽 5시에 하고 있어요. 일종의 온라인 조찬모임인데 3천 명 정도가 새벽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CEO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새벽 5시에 시작해요.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하고, 이후 운동을 갔다 오죠. 새벽에 시작된 일과는 저녁 9시 무렵 끝마칩니다. 그래서 저녁 약속을 잘 안 잡아요(웃음). 제가 이런 루틴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루의 시작은 바로 전날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을 저희는 '미모리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미모리안들에게 무조건 밤 10~11시 사이에 자게 합니다. 미라클 모닝이 자기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의 기적'인 셈이죠.

Q.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셨습니다. 작곡과 강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다들 그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밖에는 제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음대 졸업 후 광고회사에서 광고 작곡하는 일을 좀 하다가 피아노 한 대를 집에 놓고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차렸는데 돈이 없어서 난생처음 대출이라는 걸 받았어요. 28살, 어린 나이에 대출은 참 무서웠습니다.



Q. 강의 주제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가 아닌 '남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청중이 달라지면 강의도 100% 달라지죠. 그들이 제 얘기를 듣고 위로받으며 공감하면 새로운 변화를 일어납니다. 콘텐츠는 수단이죠.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청중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베테랑 강사라도 모든 직업군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 전에 최대한 필드에서 많은 분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생한 고민과 문제를 공감하며 현장의 언어로 소통하고 습득하는 거죠. 청중과 안 친해지면 강의는 망칩니다. 저는 청중과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강의와 주제는 발품과 비례한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같은 말을 50번은 해야 완벽히 강의에 쓸 수 있어요. 글을 습작하듯 강의도 말의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Q.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언제였을까요?

그때 저의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부모한테도 말하기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라! 누워서 인생 풀리는 꼴을 못 봤다."고요. '당신'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난제를 푸신 거죠. 부모님의 내리사랑 덕분에 지금도 '새벽형 인간'의 삶을 살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그 조언으로 무조건 일어나서 학원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학부모에게 보내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학원에서 뭘 했는지, 얼마나 예뻐는지 등 학부모가 궁금할 만한 내용을 쓰기 시작했죠. 진심이 통했을까요!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입소문을 타면서 1년 반이 지나니 원생 수가 200명으로 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이 자연스럽게 학원가에 퍼지면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곡에서 강의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코로나의 절박함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줬습니다. 실제로 '3년 전 김미경'과 '지금의 김미경'은 엄청 다르니까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초심, 그렇습니다. 다시 새벽에 일어나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전문가를 만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마침내 내린 결론,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니다. 이 분야와 제가 멀어져 있던 걸 깨달은 거죠. 결론은 간단했어요.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가까워지는 거였죠. 이때부터 코딩도 공부하고, 스타트업 CEO들도 만나면서 '오프라인 김미경'이 '온라인 김미경'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겁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Q. 대학 콘셉트의 성장터, MKYU가 인상적입니다.

2019년 겨울, 온라인 카페에서 일종의 팬클럽으로 시작한 게 태동이었습니다. 같이 책 읽는 독서 모임이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온오프라인 성장형 교육 플랫폼 ‘MKYU(MK & YOU UNIVERSITY)’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걸 걸 가르쳐 봤거든요. 실제로 오프라인 기반인 사람이 온라인으로 ‘이전’하려면 배워야 하는 과목만 100개가 넘더라고요. 일단 플랫폼을 알아야 하고, 플랫폼에서 나를 세팅하는 방법, 또 내가 크리에이터로 살기 위해선 어떤 콘텐츠가 어울리는지 자기 핵심 콘텐츠 찾아야 해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나만의 온라인 빌딩을 짓는 ‘온라인 빌딩주’도 되어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온라인 빌딩주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다가 또 뭘 집어 넣고 팔 건지, 팔 때는 또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사실 개별 과목을 듣는 건 다른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MKYU는 ‘어른의 습관’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좋은 습관을 누적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습관 안에 뭘 집어넣어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어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습관’이라는 콘텐츠입니다. 저는 MKYU를 통해 해내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

게 해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단순히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Learn), 벌고(Earn), 즐기는(Enjoy) ‘LEE HUMAN’을 아젠다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글로벌한 커뮤니티 활동의 즐거움, 선한 영향력의 인생 로드맵 등 내 꿈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Q. 흔들리는 30대를 위한 책 《언니의 독설》 이후 12년 만에 《김미경의 마흔 수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에는 40대에 주목하셨어요.

사람들이 마흔이면 일단 다 이뤄야 한다고 착각해요. 근데 막상 마흔이 되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집도 반밖에 못 샀고, 애도 반밖에 안 컸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러지’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늦었다고요. 공부도, 사업도 뭐든지 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 시대, 인생 시계로 보면 마흔은 고작 오전 11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흔은 반만 이루면 되는 나이예요. 다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집도 반만 사고, 애도 반만 키우고, 돈은 반만 있으면 되고요. 마흔은 ‘갓생 1세대’이자 30대를 지나고 50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인생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시기라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김미경이 IBK 매거진 독자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인생의 목적은 사랑, 행복, 성취로 압축할 수 있어요. 특히 성취(fulfillment)랑 성공(success)은 다릅니다. 뭔가 충만하게,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진다는 개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선순환.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IBK 임직원 여러분!
본이 잘 되실 겁니다.

김미경
2023. 6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IBK인의 인생 최고의 도전은?

도전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잊지 못할 인생 최고의 도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IBK인의 도전에 대해 물었다.

정리 편집실

IBK인의 설문조사

1위



운동/자기계발

IBK인이 가장 많이 한 도전은 바로 운동과 자기계발이었다. 고통을 참아내며 산 정상에 오르거나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고, 긴 입시 끝에 대학에 합격했던 일을 말하기도 했다. 현재도 대학이나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IBK인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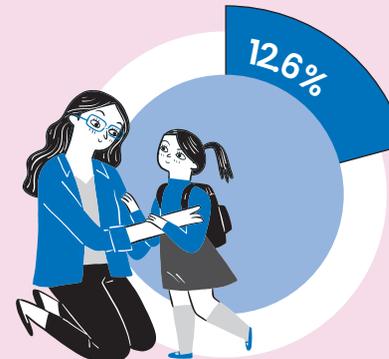
2위



여행

내가 살고 있던 도시를 벗어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도전이 되기도 한다. IBK인 역시 미국, 호주, 유럽, 중국, 모로코, 쿠바까지, 각자 지역은 다르지만 자신이 떠났던 여행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도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3위



출산/육아

한 생명을 잉태하고, 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송고한 일이 있을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준 것처럼, 사랑을 대물림해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일 수도 있다. 출산과 육아를 인생 최고의 도전이라고 생각한 IBK인들도 많았다.

4위



입사/퇴사/휴직

입사와 퇴사, 그리고 휴직까지. 직장생활의 변화는 미래의 커리어는 물론 당장의 생계까지 직결될 수 있는 큰 변화다. 이전 직장은 퇴사하거나 사정에 따라 잠시 휴직하거나, 늦은 나이에 IBK에 입행한 일들은 IBK인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IBK인의 최고의 도전

마흔에 늦둥이 셋째 낳은 것!
아산탕정지점 이환나



2015년 두 아이의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퇴사하였습니다. 주위에서도 용감하다고 했고 저로서도 큰 결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당행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육아와 직장을 잘 병행하고 있지만 가끔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남지점 정소영



임시 도전(삼수)이 끝났던 만큼 내 인생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간 것이 지금에 와서 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드마케팅부 이해경



20년도 하반기에 기업은행 입행 도전한 것 너무 나이가 많아 입행이 가능할지 몰랐는데 최고령 합격, 창구텔러 연수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일까지. 과거 은행을 퇴직한 지 25년 만에 다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인천동부지역본부 양정인

저는 당행 직원인 남편의 해외지점 발령으로 1년 6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쑤저우대학 해외교육원에 입학하여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加油汉语~
분당아탑역지점 박수경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은 나의 젊음과 바꾸어야 할,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창지점 이유경



미국 50개주 배낭여행 도전! 사진은 뉴욕 리틀 이탈리아로 불리는 뉴욕 맨해튼 멀버리 거리의 유명한 피자집에서 피자 먹기대회에 얼떨결에 참가해서 준우승했던 사진입니다.

평택고덕지점 하영범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 완료! 내려올 때는 다리가 후덜덜~

포항지점 이선영



초딩 두 아들 데리고 유럽여행을 다녀온 것!

면목동지점 송은경

운전면허 따자마자 큰 사고를 2번 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운전했어요. 지금은 전국 어디든 가고 싶은 곳 맘대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대저동지점 박하영



23살 어린 나이에 모로코 사막으로 여행간 것! 버스 놓치고 모로코 성인들한테 사기당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인생에 밋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

동마산지점 임란희



반백을 훌쩍 넘어서고, 머리도 하얗게 바꿨지만 열정과 패기로 톨돌 똥친 우리는 IBK 통기타 밴드 'WE ARE' 결성 1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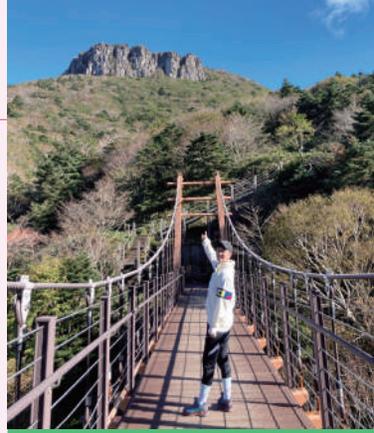
여신심사부 강경동



우리 아들 삼 형제와의
만남! 겁 많고 무섭고
아픈 걸 싫어하는
제가 아들 삼 형제를
낳았더니! 다들
의외라며 놀라워했지요.
이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랑해 우리 응쓰리♡



인천원당지점 석경애



등산을 좋아하는 내가 한라산
관음사코스 완등?!

서교동지점 장상민



열심히 땀들이
재녀들 양육
중입니다. 도전은
현재진행형, 고생은
2배, 기쁨은 2배
이상입니다!

양재동지점 한완수



대학교 졸업 후, 3개월 동안 돈을 모아 100일간의 유럽
배낭여행을 혼자 갔습니다!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길게 여행을 못한 것이란 말을 듣고,
과감히 미국 인턴을 포기하며 캐리어 하나 끌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때의 추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IT정보부 권정행

마른 넘어 인명구조요원가 생츰수영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gggg

울산WM센터 심수연



신입행원 연수에서 동기반장을 한 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송내역지점 길찬



2년 전 쓰기 시작한 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위해
끊임 없이 운동을 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봉북지점 이선옥



경력단절 주부가 IBK기업은행에 입행한
것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하던 때,
공같은 도전의 기회가
왔고, 제가 그걸
해냈어요. 흔한
아름아에게 기회를
주신 IBK기업은행.
열심히 할게요!

포항지점 황인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육로로 캐나다 재스퍼,
밴프를 거쳐 미국 글래이어파크, 옐로우스톤,
그랜드티톤을 통과하여 로스엔젤레스까지 약
2주간 캠핑하면서 여행한 것.

혁신금융부 류창국



결혼 당시
딩크족이었으나, 내
인생 가장 큰 도전으로
지금은 직장맘이
되었습니다!

강남대리지점 주하영



학부시절 겨울방학,
원대한 꿈을 품고 목포
삼호조선소 용역직 입사
후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동광주지점 정대겸



자연거로 국토종주하기!
인천 아라뱃길에서 부산까지

안동지점 박지훈



40대 중반 셋째 늦둥이 출산 도전! 가족들의 희망뿐만 아니라
둘째의 동생 소망으로 셋째 출산 성공하기!

경안지점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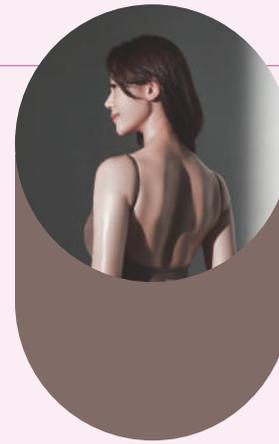


축구선수를 꿈꾸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반대로 선수 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겼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40살의 나이에 20대 어린 선수들과 7부리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선수관 생각으로 웨이트하고

퇴근 후엔 훈련에 참석하며 실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사업팀 이강우



20살 첫 알바비로 떠난 한 달간의 중국배낭여행! 내가 처음 번 돈으로 상해에서 북경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접했던 경험은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삼중앙지점 김민정



바디프로필 사진 찍고 현재까지 유지 중! 체중 20kg을 빼면서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퇴근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했습니다! 건강하게 식단 하면서 찍은 바디프로필이라 무척 뿌듯했고 큰 도전이었어요!
고척동지점 김윤빈

50이 가까운 나이에 기업은행 임행한 것이 저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창원중앙지점 송종숙

장능면히 탈출~ 10년 동안 간직했던 면허증 다시 꺼내 운전 시작! ^^
일산WM센터 윤선희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등 자원봉사 위해 헤어(커드, 파마)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도전입니다.
삼성동지점 김하연



신용분석사 자격증 취득! 회계 문외한(전공은 신문방송학)이었던 제가 회계학과 재무관리까지 배우고, 자격증 취득하여 업무에도 도움이 된 소중한 도전이었습니다!
초음동지점 강동휘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제 인생 가장 큰 도전이자 큰 변화를 안겨주었지요. 이보다 더한 도전이 있을까요? 지금도 늘 저는 도전 중~
일산성석지점 정지영



친구와 쿠바 한 달 살기~ 여행경비를 모으기 위해 한 학기 휴학해서 알바도 하고 대외활동도 하고 바쁜 6개월을 보낸 후 여름 방학 동안 쿠바에서 행복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내부통제총괄부 서형일



인생 1막은 육군장교로 장기간 복무하며 청춘을 바쳤고, 2막은 사회로 나와서 IBK기업은행에 입행하여 은행원으로 보내고 있는 현재입니다. 3막이자 가장 큰 도전은 임금피크가 끝나는 내년 2월이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멋있는 시니어 후회 없는 내일에 큰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개인고객부 권영탁



건강을 위해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과천지점 이양희

기업은행 입사에 도전한 것!
답십리지점 노은진

IBK기업은행
노은진
담당리 / 계장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33 1층 (답십리동)
T: 02-2000-1111 M: 010-2000-1111
F: 02-2000-1111 E: 02-2000-1111

생애 첫 마라톤 도전합니다! 비록 5km이지만 한 달 동안 훈련한 결과 페이스가 정말 스스로 만족할 만큼 빨라져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룰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이 완주 시에 느껴지는데 간 생애에서 철나의 순간이지만 그 짜릿함은 정말 계속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강남기업금융센터 박민선



중요 환갑
이제부터 꽃청춘~
23 June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도전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독산중앙지점 이승희

향긋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사당역지점 송지은 대리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에 거침이 없다. 금세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감돌았다. 한 모금 마시니 입안 가득 깊은 풍미가 느껴진다.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사당역지점 송지은 대리가 내려준 커피에 마음을 빼앗겼다.

글 한울 사진 김성재 영상 윤승현



송지은 대리는 지난해 8월 SCA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의 초·중급 과정을 취득했다. SCA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은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 단체인 SCA(Specialty Coffee Association)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바리스타로서 필요한 전문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국제 표준 자격증이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세 번, 2시간씩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업무를 마치면 집 근처 학원으로 가기 바빴지요. 주 3회에 걸쳐 진행이 되다 보니 학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거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목표를 정해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이 제겐 즐거움이었습니다. 초·중급 과정을 통해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 카푸치노와 라떼 만드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도전,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는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다. 한때 인스턴트커피가 대세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원두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마시려는 이들도 늘어났다. 그래서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송지은 대리도 그중 한 명이다.

“행원 8년 차가 되니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분들을 보면서 좀 부러웠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종종 올렸는데, 동료들이 그걸 보고 고수로 추천해줬어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있는 게 썩스럽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리고 라떼를 만든다!

송지은 대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커피 맛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에스프레소다. 모든 커피 메뉴의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는 원두의 종류, 추출 시간, 압력, 양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변신한다.

그녀는 포트필터의 물기를 닦아주고 분쇄기에 갈린 원두 가루를 포트필터에 담았다. 포트필터를 탬핑한 후 원두 가루를 정리하고 수평을 맞추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멋지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커피 내리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무엇보다 씻고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마냥 멋있지만은 않아요.(웃음)”

송지은 대리는 대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자격증까지 취득했을까? 그녀의 대답은 의외고 반전이다.

“평소에는 커피보다 카모마일 같은 차를 즐겨 마셔요. 아무래도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다 보니 건강을 위해 즐겨 마시진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마실 때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방문했을 때나 여행을 갔을 때예요. 그래서 저에게 커피란 ‘좋은 기억’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커피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풍성한 우유 거품이 매력인 카페라떼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다시 바빠졌다.

“카페(Caffee)는 에스프레소 원액을 뜻하고, 라떼(latte)는 우유를 뜻해요. 카페라떼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 우유를 뜨겁게 데우는 일인데요. 우유 스팀 작업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우유 거품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바리스타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라떼아트였어요. 좋은 거품을 만들고 아트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트가 들어간 커피를 마실 때는 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카페라떼를 만들어 건넸다. 우유 거품 위에 앙증맞은 하트가 올려져 있었다. 소복하게 쌓인 우유 거품을 눈으로 감상하고 코로 고소한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시니 진한 풍미가 느껴졌다. “와~ 진짜 맛있어요!” 취재진의 반응에 그녀가 밝게 웃었다.

커피가 선사하는 여유

카페마다 커피가 선사하는 향과 맛과 깊이는 남다르다. 원두의 종류나 로스팅, 추출방식에 따라 커피는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이다. 송지은 대리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카페를 선택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가능하면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를 선호하게 되었고, 메뉴에 따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이들에게 품평을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는 진한 아로마와 밝은 산미가 특징인 케

냐 원두커피예요. 복합적인 풍미와 꽃향기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사실 커피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처음에는 기본만 배우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섬세하며 광범위해서 익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송지은 대리는 시간이 나면 커피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최고의 커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아직 집에 커피 머신을 들이지 못했어요. 커피 머신을 구입해 저만의 작은 홈 카페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커피를 손수 내리는 과정과 시간을 ‘나’를 위한 선물로 느끼고 싶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종종 잊게 되는데,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정성을 들인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마시는 그윽한 커피 향의 즐거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커피는 ‘여유’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지 않을까. 커피와 함께 자신만의 여유를 찾아가는 송지은 대리가 부러워진다.



IBK업글인이 알려주는 꿀팁

①

커피를 배워보고 싶다면?

커피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주먹구구식으로 배우기보다 학원에 다니면서 정식으로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 커피에 대한 지식과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한다면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②

로스팅 날짜를 꼭! 확인하기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가 맛도 좋은 법. 좋은 원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생두를 볶아 원두로 만드는 과정인 ‘로스팅’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커피 향기 성분은 15일이 지나면 50% 손실되므로, 로스팅 날짜를 확인하고 신선한 원두를 구매하기를 권한다. 원두는 차갑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③

내 입맛에 맞는 커피 찾기

사실 커피의 정해진 맛은 없다. 수백 가지의 맛과 향을 가진 커피는 한잔을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커피를 맛보며 자신에게 맞는 커피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

인천편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은 을왕리해수욕장과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 볼거리가 가득한 도시다. 볼거리가 많은 만큼 맛집도 많은 인천. 우리가 직접 선정한 인천의 맛집들을 소개한다.

클 편집실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memi)

진한 육수의 만두전골 경복궁 개성손만두 학익점

김치만두만 만드는 고집 있는 만두전골 전문점으로 학익동의 소문난 맛집.

- 📍 만두전골 10,000원
- 📍 매소홀로 435
- ☎ 032-873-5041



을왕리의 쌈밥 맛집 고목정 쌈밥

제육쌈밥과 삼겹살쌈밥이 주력인 쌈밥 맛집으로, 30년 전통 맛집이다.

- 📍 제육쌈밥한정식 17,000원
- 📍 용유서로172번길 10
- ☎ 032-746-778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memi)

놀이방 있는 고기집 구이가 청라점

고기 맛은 기본, 넓은 매장에 놀이방까지 갖춰 가족 모임에 적합한 고기집.

- 📍 국내산 생삼겹살(150g) 15,800원
- 📍 크리스탈로 78
- ☎ 032-563-9276



사천식 휘귀의 참 맛! 따릉휘귀 송도점

중국 사천식의 정통 휘귀맛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매장이 넓어 회식에도 적합하다.

- 📍 2인디너추천세트 66,000원
- 📍 센트럴로 160
- ☎ 032-833-6662



2023 June

70년 평양냉면 맛집 경인면옥

한우 1등급 소고기 설깃부위로 낸 맑은 국물에 메밀면이 어우러진 평양냉면.

- 📍 평양물냉면 11,000원
- 📍 신포로46번길 38
- ☎ 032-762-5770



송도의 숙성 돼지고기 고집132 송도점

제주도 숙성고기를 파는 맛집으로, 도끼갈비, 망치갈비 등이 유명하다.

- 📍 제주숙성도끼갈비(2인) 34,000원
- 📍 컨베시아대로 50
- ☎ 032-832-0801

숙성고기의 깊은 맛 나무꾼 이야기

자체 숙성기술로 맛을 더한 생고기를 두 번 구운 참숯 비장탄에 구워준다.

- 📍 나무꾼생갈비 19,000원
- 📍 서곡로301번길 7
- ☎ 032-567-133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라미리미인)

인천 3대 떡볶이 남동공단 떡볶이

옛날식 떡볶이, 김밥, 쫄면의 궁합이 끝내주는 곳으로 웨이팅은 기본이다.

- 📍 떡볶이 2,500원
- 📍 남동서로 226
- ☎ 032-821-5566

육회에 막국수까지? 미락육회막국수

감칠맛 나는 신선한 육회에 쫄깃한 막국수의 환상의 조합.

- 📍 육회비빔막국수 11,000원
- 📍 논고개로123번길 20
- ☎ 032-432-7049





인증받은 100년 가게

부암갈비

백년가게 인증과 소상공인경영대상으로 검증된 돼지갈비 맛집.

- 📍 돼지생갈비(200g) 19,000원
- 📍 용천로 149
- ☎ 032-425-5538

경기도 고기도 일품 송도한우송우

창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 보며 먹는 한우 맛집.

- 📍 구이 3인분 & 육회 150,000원
- 📍 능허대로 165번길 11
- ☎ 032-832-6692



국물 있는 닭갈비 아랜역물닭갈비 본점

매콤한 육수에 사리가 가득 들어가는 물닭갈비 맛집으로 단골이 유독 많다.

- 📍 물닭갈비(소) 28,000원
- 📍 가정로 216
- ☎ 032-577-0070

제대로 된 한우등심 우판등심 인천점

한우등심 맛집으로 유명한 곳. 다 먹고 각두기 볶음밥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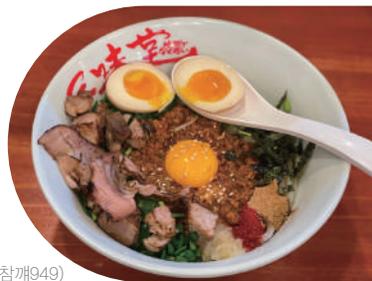
- 📍 한우생등심(150g) 37,500원
- 📍 청량로 61
- ☎ 032-816-7788



라면의 달인을 만나다 삼미당

생활의 달인에 소개됐던 라면 맛집으로, 국물맛이 일품이다.

- 📍 클래식쇼유라엔 10,000원
- 📍 부평문화로72번길 10-5
- ☎ 032-330-333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참깨949)



프리미엄 숙성 돈카츠 심카츠

엄선된 A급 돈육을 드라이에이징하여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돈카츠

- 📍 등심카츠 정식 12,000원
- 📍 염곡로464번길 11
- ☎ 0507-1392-7225

강화도 병어찜 온돌집

<토요일은 밥이 좋아>에 소개된 병어찜 맛집으로 예약은 필수다.

- 📍 병어찜(소) 50,000원
- 📍 운수길38번길 3-1
- ☎ 032-937-3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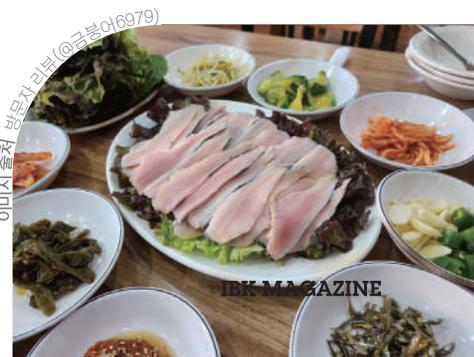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망7936)

밴댕이 맛을 안다면 원조밴댕이

맛을 아는 아저씨들이 찾는 맛집. 모듬회와 얼큰한 생물메기탕이 일품이다.

- 📍 모듬회(전어, 병어, 밴댕이) 30,000원
- 📍 연안부도로 41-1
- ☎ 032-883-028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금룡어6979)

얼리지 않은 생 아구찜 청라물텀벙

청라에서 맛 좀 안다는 분들이 찾는 맛집. 싱싱한 아구에 매콤한 양념이 일품!

- 📍 생 아구찜 소 43,000원
- 📍 청라루비로134번길 6-22
- ☎ 032-563-9617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dlsxxxx)

천겹살 먹어봤니? 육더구

꽃목심과 천겹살이 메인이다. 겹겹이 박힌 마블링이 감칠맛을 전한다.

- 📍 천겹살 18,000원
- 📍 서곶로301번길 16
- ☎ 032-568-9293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강핑풍)

너무 유명한 노포 이화참쌀순대

즐거워 참쌀순대가 가득 들어간 순대국 맛집. 10년 이상 단골이 많다.

- 📍 국밥(보통) 9,000원
- 📍 인종로26번길 25
- ☎ 032-882-303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sora050)

시원한 국물이 땀긴다면 윤가네칼국수

시원한 국물에 직접 반죽한 쫄깃한 면발이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

- 📍 바지락칼국수 9,000원
- 📍 청룡로30번길 2
- ☎ 032-834-252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gaxxxx)

달인의 파스타 전문점 임파스토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달인이 운영하는 작은 파스타집으로, 노끼가 특기다.

- 📍 구운 노끼 22,000원
- 📍 아트센터대로 203
- ☎ 010-3436-1223



특수부위의 지존 장군집

돼지 특수부위가 맛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라. 술을 부르는 맛.

- 📍 모듬 22,000원
- 📍 검단로768번길 16
- ☎ 032-564-790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메롱이)



부평깡시장 맛집 중국물만두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나온 중국 동북요리 맛집으로 물만두가 유명하다.

- 📍 셀러리고기물만두 7,000원
- 📍 주부토로32번길 27
- ☎ 032-503-3723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보여리여리)

후라이드 족발? 족장

말이 필요 없는 족발 맛집.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후라이드 족발로 유명하다.

- 📍 후라이드족발 앳다리 38,000원
- 📍 문화로89번길 36
- ☎ 032-441-7875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기록기)

청라를 평정한 아구찜 청라왕아구

청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구찜집이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새우장도 별미.

- 📍 아구찜(소) 35,000원
- 📍 청라라임로16번길 7
- ☎ 032-512-1345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희망7197)



제일시장 곱창전골

충남곱창

돼지곱창으로 전골, 볶음, 백볶음을 한다.
시원한 곱창전골이 제일 유명하다.

- 📍 돼지곱창전골(소) 22,000원
- 📍 제일로27번길 3-14
- ☎ 032-863-6111



인천에서 이곳 모르면 간첩

청실홍실 인천주안본점

20년 넘는 메밀국수 전문점으로
메밀과 만두 때문에 타지에서 찾아온다.

- 📍 냉모밀 7000원
- 📍 미추홀대로 697
- ☎ 032-876-5868

매운등갈비에 시원한 막국수 팔봉막국수등갈비찜

양푼에 가득 담은 등갈비에
시원한 메밀막국수의 조화가
예사롭지 않다.

- 📍 양푼등갈비 14,000원
- 📍 석정로376번길 18
- ☎ 032-874-8847



잊을 수 없는 국물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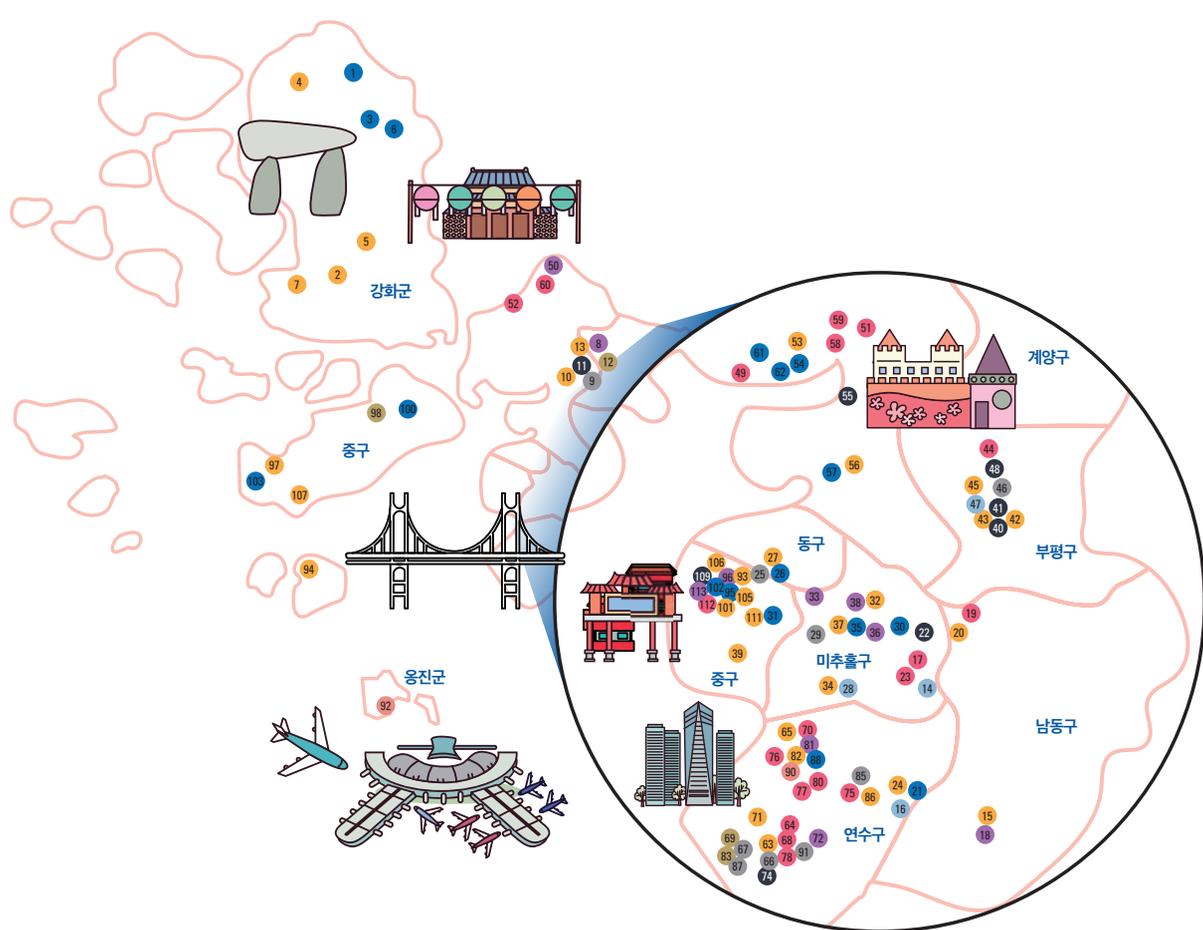
훈이네조개전골칼국수

신선한 조개가 가득 들어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조개전골.

- 📍 조개전골(소) 41,000원
- 📍 경명대로 1124
- ☎ 032-549-8252



이미지 출처 방문자리뷰(@WLDUS)



● 한식 ● 분식 ● 육류 ● 해산물 ● 카페 및 베이커리 ● 면류 ● 아시아 ● 일식 ● 중식 ● 양식

IBK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천 맛집 리스트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강화군				
1	돌기와집	해산물	상도송월길116번길 39-10	032-934-5482
2	마니산산채	한식	해안로 1182	0507-1346-4293
3	뽕랭이 가뽕집 뽕꽃집	해산물	중앙로 17-9 풍월시장 2004호	032-932-6836
4	뽕친가뽕산뽕친산뽕	한식	강화대로 1160	032-933-7895
5	은돌집	한식	은수길38번길 3-1	032-937-3003
6	진백사당	해산물	해안도로1366번길 9	032-932-0338
7	토가	한식	해안남로 1912	032-937-4482
계양구				
8	계양산 칠냉면	면류	장제로883번길 16	032-543-4568
9	금문도	중식	효서로 268	032-544-6665
10	상원당갈비	한식	아나지로 177 1층	032-548-5814
11	유래초밥	일식	계산로 130	032-551-1995
12	잇츠 계산집	양식	오조산로57번길 7	032-543-3086
13	훈이네조개전골칼국수	해산물	경명대로 1124	032-549-8252
남동구				
14	까치내떡볶이	분식	구월동 1409-27	-
15	남도술상 인천논현	한식	논현남로 27	032-421-8925
16	남동죽산 떡볶이	분식	남동서로 226	032-821-5866
17	돈불식당 분점	육류	문화서로28번길 25-2	032-436-1999
18	미락워하우스	면류	논고개로123번길 20	032-432-7049
19	부암갈비	육류	용천로 149	032-425-5538
20	뽕랭이당갈비	한식	석산로 179	032-422-7767
21	뽕나지	해산물	남동서로 226	032-817-7874
22	유기든하우스	일식	구월로 125	032-433-7128
23	죽장	육류	문화로89번길 36	032-441-7875
24	해장국상점	한식	남동서로 226	032-815-7138
동구				
25	문화번점	중식	금곡서로 29	032-773-4824
26	현대물탕방	해산물	셋골로 140	-
27	형제당물탕	한식	셋골로 169	032-766-0171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미추홀구				
28	경복궁 개성산두부 학인점	분식	메소출로 435	032-873-5041
29	공민점	중식	인주대로211번길 49-26	032-874-5670
30	대박	해산물	구월로19번길 5-14	032-421-2384
31	마산집	해산물	경안로7번길 3-7	032-883-8849
32	명동순대국밥방	한식	영향로 61	032-862-0586
33	백영면옥	면류	석정로 226	032-981-9489
34	삼대백순두부	한식	소성로 160	032-861-0008
35	용인점	해산물	경안대로305번길 5	032-866-9045
36	청실홍실 인천주안본점	면류	미추홀대로 697	032-876-5868
37	충남곱창	한식	제일로27번길 3-14	032-863-6111
38	팔봉막국수등갈비찜	면류	석정로376번길 18	032-874-8847
39	형상얼큰오징어찌개	한식	아람대로107번길 13	032-888-4557
부평구				
40	모모네이츠킵	일식	경원대로 1408	070-8285-0731
41	삼미당	일식	부평문화로72번길 10-5	032-330-3331
42	열매날개 부평점	한식	시창로30번길 26-1	0507-1367-9277
43	오구당당 분점	한식	경원대로1377번길 47	032-505-3388
44	오미숯불갈비	육류	주부도로145번길 18	032-525-7634
45	일곱공사부 부평시장역점	한식	부흥로 264	032-516-3849
46	중국물만두	중식	주부도로32번길 27	032-503-3723
47	진주만두	분식	부평대로36번길 46	-
48	참새초밥 부평본점	일식	신티리로 36	032-545-2580
서구				
49	구이가 찜라점	육류	크리스탈로 78	032-563-9276
50	권오길 순국수	면류	경안로 789	032-564-7541
51	나루꾼 이야기	육류	서곶로301번길 7	032-567-1332
52	단풍나무	육류	경안로3799번길 31-6	032-563-5323
53	밀가담	한식	청라리임로122번길 3-10	032-563-7710
54	뽕간가뽕구내 찜라점	해산물	청라에메도로 99	032-623-4118
55	심카츠	일식	영곡로464번길 11	0507-1392-7225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56	아련역물탕갈비 분점	한식	가정로 216	032-577-0070
57	완도짬뽕	해산물	거북로 67-2	032-581-1775
58	원갈비	육류	삼곡로번길 4	032-567-5685
59	육더쿠	육류	서곶로301번길 16	032-568-9293
60	창군집	육류	경안로768번길 16	032-564-7901
61	창마물탕방	해산물	청라유비로134번길 6-22	032-563-9617
62	창마왕아구	해산물	청라유비로16번길 7	032-512-1345
연수구				
63	건강방상삼마니 송도점	한식	해운이로 161	032-831-0831
64	고집132 송도점	육류	칸베시아대로 50	032-832-0801
65	군봉목은지킴이점	한식	비류대로150번길 13	032-832-3568
66	띠롱띠롱 송도점	중식	센트럴로 160	032-833-6662
67	린명동	중식	인천타워대로 257	032-834-3463
68	마담드삼점	육류	칸베시아대로 50	032-832-3592
69	마티엘로	양식	아트센터대로 203	010-4633-3556
70	무식고기 송도역점	육류	한나루로 199 1층	032-715-6366
71	문대강순도누룽지통닭	한식	아트센터대로 87	032-813-0092
72	백합칼국수 송도1호점	면류	아람대로 811	0507-1324-5870
73	버거사이트	양식	하모니로 158	032-213-2580
74	사토리	일식	하모니로 158	032-264-0064
75	소사민 한우갈비삼	육류	샘물로 18	032-818-9112
76	송도한우송우	육류	능화대로 165번길 11	032-832-6892
77	송돌골	육류	영고개로103번길 15	032-814-5292
78	시드니 양갈비 송도점	육류	칸베시아대로 81	032-833-7101
79	애활몽	육류	송도과학로161번길 13-18	032-813-9339
80	우현동심 인천점	육류	청향로 61	032-816-7788
81	윤가네칼국수	면류	청향로301번길 2	032-834-2520
82	이복집	한식	청향로50번길 10	032-833-9145
83	임파스토	양식	아트센터대로 203	010-3436-1223
84	창송송도장어	해산물	테크노파크로111번길 10	032-831-1112
85	진사루	중식	청향대로113번길 11	032-818-8886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86	진사왕빠다귀감차점	한식	청향대로113번길 37	032-822-3847
87	진하루	중식	인천타워대로 257	070-4680-3552
88	창랑골아죽	해산물	청향로30번길 6	032-225-8881
89	통롱	양식	인천타워대로132번길 30	032-831-2003
90	포레스트아웃팅스	카페	청향로 145	032-831-3750
91	호우양꼬치 송도점	중식	칸베시아대로 69	032-858-3999
용진군				
92	폴로레도커피	카페	신재로 354	032-880-0433
중구				
93	개항로 통닭	한식	창의전로 164	032-772-9292
94	거해당통순두부	한식	대우의로 281 1층	032-747-2276
95	경남떡집	해산물	우현로45번길 24-1	032-766-2388
96	경인면옥	면류	신호로46번길 38	032-762-5770
97	국모점 생밤	한식	용유서로17번길 10	032-746-7781
98	그릴드버거	양식	문서로7번길 10	032-746-5050
99	근대식당	해산물	연안부두로 16	032-884-1324
100	기어걸물찜	해산물	운중로21번길 21	032-752-7076
101	대천집	한식	우현로39번길 7	032-772-9188
102	백영도어화	해산물	신호로27번길 39-1	032-565-2222
103	선너눔	해산물	용유서로 272	032-751-2121
104	산송남점	중식	치이나타워문로44번길 31-3	032-762-9467
105	신포당강정 분점	한식	우현로49번길 3	032-762-5800
106	신포소반	한식	신호로46번길 27	032-773-9223
107	영양골밥은행나무집	한식	미사란로 9	032-746-3021
108	오성식당	해산물	연안부두로 16	032-884-1355
109	문선 분점	일식	신호로35번길 22	070-8861-8011
110	원조뽕명미	해산물	연안부두로 41-1	032-883-0280
111	이화당쌀순대	한식	인중로26번길 25	032-882-3039
112	중화루	중식	홍예문로 12	032-762-0231
113	해안칼국수	면류	신호로15번길 59-1	032-762-0231

선비의 향기가 흐르는 계곡

문경 선유동계곡과 레포트여행

聞慶

경북 문경은 우리 국토의 등줄기인 백두대간 아래 자리 잡은 고을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품은 자연이 절경이다. 여기에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에게 제격이다. 문경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선유동계곡 걷기와 단산 모노레일과 패러글라이딩 체험, 그리고 오미나라 와이너리 투어를 즐겨보자.

글. 사진 신우석



01

01 선유동계곡은 선비의 풍류와 수려한 자연이 어우러지는 길이다.



02

최치원이 신선처럼 거닐었던 선유동계곡

대야산(931m) 자락의 문경선유동은 고운 최치원이 신선처럼 거닐었던 곳이다. 고운은 봉암사에 드나들면서 가까운 문경선유동을 찾아 아홉 절경을 찾아 '선유구곡'을 새겼다고 한다. 출발점은 운강 이강년 기념관이다. 운강은 대한제국 말기 의병장으로 동학 농민운동과 을미사변 때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충주·가평·인제·강릉·양양 등지에서 큰 전과를 올린 명장이다.

기념관 앞쪽으로 '선유동천'을 알리는 큰 비석이 서 있다. 이곳을 출발해 40분쯤 걸으면 선유구곡의 1곡인 안개에 싸인 바위, 옥하대(玉霞臺)가 나온다. 옥하대는 신선놀음의 시작점으로 절묘한 이름이다. 이어 호젓한 오솔길을 따르면 희고 큰 반석 위에 올라선다. 수십 명이 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다. 여기가 2곡 영사석(靈槎石)이다. '신령한 뗏목 바위'라는 뜻

으로 반석을 뗏목에 비유한 것이 재미있다. 영사석을 지나면 시멘트 도로를 만나는데, 그곳 길옆에 기이하게 생긴 바위가 눈길을 붙잡는다. 큰 손을 들어 다섯 손가락을 콧 꼭 찍어 놓은 듯하다. 이것이 '장군손바위'로 선유구곡에서 수련하던 선인의 자취라고 한다. 다시 계곡을 따르면 거대한 펜션 건물이 나타나 눈이 휘둥그레진다. 펜션 앞의 계곡이 3곡 활청담(活靑潭)이다. 긴 암반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마치 휘파람을 불며 흘러내리는 듯하다.

펜션 앞의 다리를 건너 다시 계곡을 따르면 넓은 잔디밭이 있는 닫힌 집으로 들어선다. 잔디밭 앞에서 계곡으로 내려간다. 계곡이 전부 반석인 4곡 세심대(洗心臺)가 여기다. 발 담그며 잠시 쉬었다가 가기 그만이다. 바위에 전서체

로 쓰인 '洗心臺' 글씨는 춤을 추듯 아름답다. 다시 길을 나서 우람한 소나무 앞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면 5곡 관란담(觀爛潭), 6곡 탁청대(濯靑臺), 제7곡 영귀암(詠歸岩)이 차례로 나온다. 이어 오솔길이 끝나면서 다시 만나는 계곡은 온통 암반이다. 여기가 선유구곡의 하이 라이트인 8곡 난생뢰(鸞笙瀨)다. 여울 흐르는 물소리가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생황(笙簧)이 연주하는 것 같다는 뜻이다.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이 아닐 수 없다.

8곡 위로 보이는 바위가 9곡 옥석대(玉鳥臺). '옥 같은 돌'이란 뜻이 아니라 '옥으로 만든 신발'을 말하며, 이는 득도자가 남긴 유물이라고 한다. 옥석대 위쪽에 도암 이재(1680~1746)를 기리는 학천정(鶴泉亭)이 자리한다. 학천정

뒤 바위에 새겨진 산고수장(山高水長) 글씨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천정에서 20분쯤 더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 별바위굴이 나오면서 걷기가 마무리된다.

02 운강 이강년 기념관 앞의 선유동천 나들길 안내판.
03 선유구곡 9곡 옥석대는 선유동천의 최고 절경으로 꼽힌다.



03



단산관광모노레일과 패러글라이딩

높은 산꼭대기에 편안히 올라 백두대간 풍광을 즐기고 싶다면 단산 관광모노레일이 적당하다. 단산(956m)의 약 1.8km 구간을 상행 35분, 하행 25분간 오르고 내리는 8인승의 느리고 깜찍한 모노레일이다. 평균경사 22도에 최고 경사는 45도에 이르다 보니 느려도 짜릿한 구간구간을 만나고, 사방으로 트인 통창 밖으로 조령산과 주흘산 등 백두대간의 명산이 쉽 없이 펼쳐지니 느려도 호탕하다.

상부 승강장에서 반히 마주보는 언덕이 활공장이다. 단산 패러글라이더 체험은 워낙 인기가 좋아 가을까지 예약마감 상태다. 비록 체험은 못 하지만 대리만족을 즐길 수 있다. 마침 엄마와 딸이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복장을 갖추고 강사와 함께 바람을 기다리는 모습이 자못 비장하다. 어느 순간 바람 한 가득 안

고 부풀어 훌쩍 땅을 박차고 오른다. 그 순간이 이렇게 매혹적일 줄이야. 마음은 패러글라이더 따라 창공을 유영한다.

술꾼의 낙원, 오미나라 와이너리 투어

술향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오미나라를 빼놓을 수 없다. 2008년 설립된 ‘오미나라’는 친환경 생산 농가와 연계해 오미자와 사과를 주원료로 한 토종 와인과 증류주를 만든다. 연간 사용되는 오미자와 사과의 양이 400톤 이상이라 하니,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바람직한 기업상이라 할 수 있겠다.

오미나라를 만든 사람이 ‘한국 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종기 대표다. 대한민국 1세대 양조 대표로서 다수의 국산 명품 위스키를 개발하며 증류주 전문가로서의 일가를 이룬 이종기

마스터는 은퇴 후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다. ‘우리 농산물로 세계적인 명주를 만들겠다’는 그의 집념은 오미자의 주산지인 경북 문경에서 결실을 맺었다. 술은 관능적 매력을 가져야 하며, 오미자의 색과 향기, 맛은 그에 적합했다. 와인 발효실과 병 숙성고, 증류시설 등을 견학하다 보면 막바지로 갈수록 술이 고파지기 마련이다. 대망의 시음장으로 들어서면 쾌재가 절로 난다. 세계 유일의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연’으로 연을 맺고, 2022 한미정상 회담 만찬주인 오미로제 ‘결’의 부드러운 결을 따라 25도 증류주 ‘문경바람’을 타고 이름도 예쁜 52도 ‘고운 달’에 착륙하면 어느새 볼 빨간 술꾼이 돼 있을 수도 있다.

- 04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단산을 오를 수 있는 문경단산관광모노레일
- 05 오미나라의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은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인기가 좋다.
- 06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06

선유동계곡과 레포츠여행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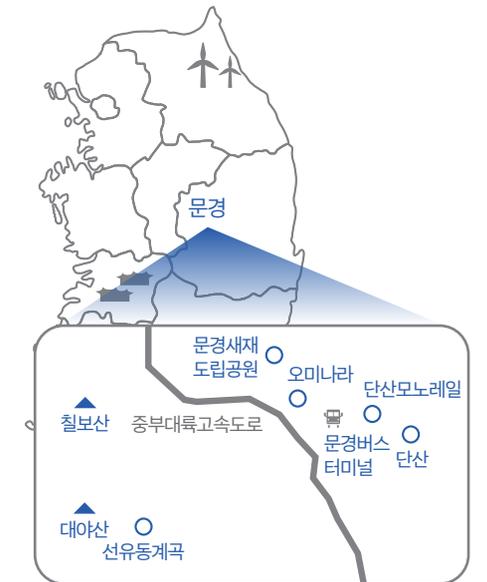
선유동계곡은 선유동계곡 나들길 이정표를 따른다. 운강 이강년 기념관~학천정~벌바위 버스정류장, 5km 2시간쯤 걸린다. 문경단산관광모노레일 및 패러글라이딩 054-572-7273. 오미나라 054-572-0601

맛집

모심정(054-572-1846)은 가성비 좋은 한정식을 내놓는다. 하초동(054-571-7977)은 문경 대표 별미인 약돌돼지 고추장구이가 별미다. 새재식당(054-571-3766)은 다슬기 해장국이 시원하다.

숙소

문경온천 근처에 호텔과 모텔 등 다양한 숙소가 있다. 시설 좋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054-559-2200)은 단체 여행객에게 좋다.



분화구 사이를 걷고,
파도와 마주하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 마우이

하와이의 진면목은 섬들 깊숙이 들어설수록 경이롭다.
빅아일랜드에서는 화산 분화구 사이를 걷는 이색 체험이 가능하며,
마우이는 세계적인 서핑스팟과 고래 마을을 간직하고 있다.

글. 사진 서영진

Hawaii Maui

킬레아우아 화산 국립공원 트레킹

130여 개의 하와이 군도 중 가장 큰 섬이 빅아일랜드다. ‘하와이’라는 지명도 본래 빅아일랜드에서 비롯됐다. 빅아일랜드에는 사막과 열대우림, 눈 덮인 봉우리 등 다양한 기후와 식생이 공존한다. 그중 섬이 품은 가장 신비스러운 영역이 화산 국립공원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솟는 화산 돌레를 질주하고, 분화구 사이를 걷는 일은 빅아일랜드를 찾는 여행자들이 가장 열망하는 체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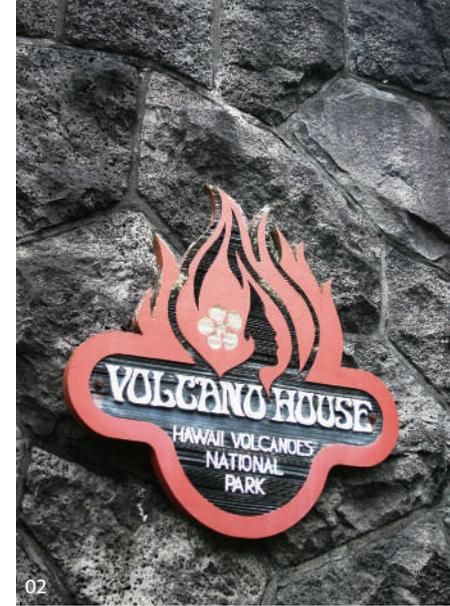
빅아일랜드는 마우나로아산(4,169m)을 중심으로 화산 국립공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지름 4.5km 킬레아우아 화산(1,222m) 일대는 마그마가 실제로 뿜어 오른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며 화산 트레킹으로 사랑받는다.

01 마우이 할레아칼라 분화구에서 일출을 맞는 여행자들



여행자들은 매캐한 연기가 솟아오르는 분화구 인근까지 직접 걸을 수 있고, 유황연기를 온몸에 찰리며 사우나를 체험하기도 한다. 연기 속을 헤치고 달리는 차량들의 드라이브 행렬도 목격된다. 용암 위에 조성된 ‘크레이터 림 드라이브’ 루트는 18km 이어진다. 분화구 일대의 ‘볼케이노 캐빈’에서 하룻밤 묵는 별난 체험도 가능하다.

킬레아우아의 할레마우아우 분화구는 불의 여신 펠레가 살고 있다는 전설을 지닌. 하와이 원주민들의 성지다. 용암석을 주워오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기시 된다.



02 빅아일랜드 화산국립공원 이정표

분화구를 오르내리는 이키 트레일

본격적인 화산 걷기는 킬라우에아의 이키 분화구에서 펼쳐진다. 이키 트레일은 화산 국립공원의 대표 하이킹 코스다. 5.3km의 순환루트를 포함해 약 8km 코스가 5시간가량 이어진다. 이키 분화구는 1959년 대폭발했으며 시간당 약 200만 톤의 용암이 579m까지 치솟았다. 흘러내린 마그마가 분화구에서 굳는 데는 30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걷기 여행자들은 대부분 킬라우에아 방문자 센터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크레이터 림 루트를 거쳐 이키 트레일에 합류하면 울창한 오히나무 숲을 지나 이키 분화구 바닥까지 내려설 수 있다. 용암호에는 돌로 만든 이정표인 ‘아후’가 길 따라 늘어서 있다. 꿈틀거렸던 대지의 태동과 마주하는 순간은 신비롭다. 짝짝 갈라진 메마른 땅에는 수십년 세월이 흘러 생명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피어난다. 이키 트레일을 걷는 동안 ‘나후쿠’ 용암동굴과 용암이 솟았던 분출구를 구경할 수 있다.

화산 국립공원의 트레일 코스는 총 240km에 달한다. 이키 트레일 외에도 800여 년 전 암각화를 만나는 ‘푸우 로아’ 암각화군 트레일, 카우 사막과 화산 퇴적물과 조우하는 풋프린츠 트레일 등에 도전할 수 있다. 할레마우아우 트레일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걸어 유명해 지기도 했다.

마우나로아와 함께 빅아일랜드의 양대 산맥인 북부 마우나케아산은 별자리 관측과 하와이 최고의 산악 하이킹 루트로 사랑받는다. 천문대가 있는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는 꼬박 하루가 소요된다.

마우이 할레아칼라 & 서핑스팟 저스 해변

빅아일랜드 북쪽 마우이 섬은 기이한 화산지대와 서핑해변이 매력적이다. 해발 3,058m에 위치한 세계 최대급 휴화산 할레아칼라는 이색 지형을 만나는 일출 체험이 인기 높다. 어둠과 구름을 걷어내고 분화구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이방인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모여든다.

이곳 원주민말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할레아칼라는 달 표면을 닮았다. 둘레 34km의 거대한 분화구 안에는 9개의 크고 작은 분화구가 성긴 그늘을 드리우며 담겨 있다. 달을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우주영화들도 이곳에서 촬영됐다. 일출과 함께 할레

03 킬레아우아 화산의 ‘크레이터 림 드라이브’ 루트





아칼라 화산재를 밟으며 걷는 케오네헤에헤에 트레일에 도전할 수 있으며, 오헤오 협곡의 폭포수를 가로지르는 하이킹도 이채롭다.

할레아칼라에서 인기 높은 레포츠는 분화구에서 일출을 본뒤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다운힐 프로그램이다. 구름을 뚫고 마우이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내리꽂는 행위는 스릴과 땀으로 뒤범벅된다.

마우이의 북쪽해안인 후키파 비치로 향하면 온통 서퍼들의 세상이다. 후키파 비치의 저스 해변에는 세계 각국의 수준급 서퍼들이 모여들어 경연을 뽐낸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잡지에도 여러차례 소개된 서퍼들의 천국이다. 저스 해변은 본섬인 오아후섬 노스쇼어의 선셋비치와 함께 세계적인 서핑스폿으로 손꼽힌다. 서핑구역은 원주민과 이방인, 숙련자와 초보자의 영역이 구분돼 있다. 집채만한 파도와 마주하는 경이로운 시간은 짜릿한 쾌감을 선사한다.

04 마우이 북쪽 저스 해변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들
05 해변을 빼곡히 채우는 서프보드



하와이 왕국의 수도, 고래 포구 라하이아

마우이는 고래의 사연을 간직한 섬이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했던 흑등고래의 주요 활동무대가 하와이 마우이섬 일대다. 흑등고래는 알래스카에 머물다 새끼를 낳기 위해 해마다 마우이섬 인근으로 이동한다. 마우이섬은 예로부터 고래와 연관이 깊다. 섬 서쪽의 라하이아는 하와이 왕국의 옛 수도로 19세기 포경선들이 몰려들던 곳이다. 하와이 왕조를 통합한 카메하메라 왕의 궁전 잔해뿐 아니라 1901년부터 고래잡이 선원들이 묵었던 호텔이 남아 있다. 담장과 푹말에는 귀여운 고래그림도 곳곳에 그려져 있다. 라하이아는 허먼 멜빌의 고래소설 '모비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라하이아 인근의 카아나팔리 해안은 마우이 최대의 휴양지다. 하와이 왕족이 휴가를 즐기던 아름다운 비치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세계적 리조트들이 들어선 해변에서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르면 고래를 구경하며 스노클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뷰포인트 '블랙 락'의 절벽 다이빙은 마우이의 마지막왕 카헤카리 왕을 기리는 햇불 세리머니와 함께 진기한 체험을 선사한다.

06 마우이 최대 휴양지 카아나팔리 해안



07 하와이 전통춤을 형상화한 조형물

빅아일랜드 화산 국립공원 트레일



빅아일랜드 화산국립공원 트레일은 킬라우에아 방문자센터에서 화산활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지도와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시작한다. 방문자센터 외에도 출발포인트들이 있으며 이키 트레일 순환로만 걷는 데는 3시간가량 소요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트레일 코스가 이어지며 이키 분화구의 고도차는 122m이고 경사로와 바위 지대를 포함한다. 난이도는 중급. 곳곳에 용암 조각과 거친 땅이 있어 등산화를 준비해야 한다. 화산과 기상 상태에 따라 구간별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며, 트레킹 구간은 건조지대로 충분한 물과 모자가 필요하다.



계곡의 모데미처럼 능선의 철쭉처럼 아름다운. 소백산

소백산에 올랐다. 이즈음의 소백산은 철쭉의 계절이다. 소백의 부드러운 능선과 연분홍의 철쭉을 보러 IBK인이 모였다. 이런저런 인연들이 쌓여 만들어진 모임이다. 긴 계곡길을 오르며 나눈 이야기와 웃음, 꿀 같았던 간식과 김밥! 신록과 녹음이 어우러진 늦봄의 소백산은 아름다웠다.

글 서승범 사진 영삼 이대원 영상편집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1



02



03

철쭉하면 소백산이지

지난달 보았던 진달래가 질 무렵이니 이제 철쭉이다. 철쭉은 워낙에 색이 화려하고 생존력이 좋아 도심 곳곳, 아파트 화단까지 빼곡하게 피어난다. 알지만, 탁 트인 산등성이의 철쭉만 하겠는가. 산수유부터 시작된 봄꽃 계주의 마지막 주자는 철쭉이고, 철쭉하면 소백산 아니겠는가. 5월 하순의 어느 일요일, 소백산 서북자락의 어의곡 계곡 입구에 충청권 일대 지점에서 10명의 IBK인이 모였다.

“오랜 친분이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모인 것은, 특히나 산을 찾은 건 처음이죠.(웃음)”

오창지점의 박수규 팀장과 청주산남지점의 노재석 팀장은 이 모임의 축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학교 선후배로 시작됐다. 여기에 학교 후배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후배나 동료의 배우자로 자연스럽게 범위가 확대되었다. 모두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어서 모두 혹은 자주 모이진 못하고, 삼삼오오 만났다고.

오창지점에서는 권재원 차장, 김정겸 차장, 이진호 대리가 함께 왔는데 모두 학교 후배다. 청주산남지점에서는 노 팀장 외에 정태임 차장, 박송희 대리, 손태원 대리가 참여했다. 정 차장은 박수규 팀장의 아내이고 박 대리는 음성지점 온 백승엽 과장의 아내다. 당진에서 가장 먼 발걸음을 한 고힘찬 대리 역시 학교 후배. 청주산남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다 지난해 당진으로 옮겼다. 이렇게 10명이 모두 모인 건 처음인데, 그게 소백산이라니. 모두가 평소 산행을 즐기는 건 아니지만 이참에 다 같이 얼굴도 보고 산행도 하자니 흔쾌히 모였다고.

“자, 이번 산행은 ‘즐겁고 안전하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있는 어의곡에서 능선으로 올라 정상 비로봉 갔다가 올라간 코스 그대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몸 풀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몸풀기 스트레칭을 위해 조교 출신 손태원 대리(청주산남지점)가 호출되었다. 능숙한 안내와 구령으로 웃음과 함께 워밍업을 마치고 산행 시작.

한복판에 우뚝하게

소백산은 이름과 달리 거대한 산이다. 이웃한 ‘태백산’은 이름부터 크고 해발고도 역시 태백산이 1,546m로 소백산(1,439m)보다 높다. 하지만 산지가 많아 고원지대인 태백산과 달리 소백산은 평야에 우뚝하게 솟은 산이라 체감상 더 크다. 산행 역시 태백산보단 소백산이 고되다.

- 01 산행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 02 안전한 산행을 다짐하며 ‘파이팅’.
- 03 다양한 인연으로 엮인 IBK인들.
- 04 산을 오르는 게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여유.
- 05 한발 한발 오르면 어느새 정상이다.





06

소백산에 오르는 길은 큰 산답게 여럿인데 어의곡 코스와 죽령 코스, 희방사 코스 등이 인기다. 희방사는 오랜 문화유적을 볼 수 있어서, 죽령은 대피소를 이용해 종주를 할 수 있어서. 어의곡 코스는 상대적으로 코스가 완만하고 비로봉에 바로 오를 수 있어 소백산을 입문하기에 좋다. 능선까진 약 5km에 걸쳐 오르막이 이어진다.

철쭉은 죽령에 가까운 연화봉이 더 많다. 하지만 산 능선에도 점점 철쭉은 있을 테고, 정상은 보아야 겠기에 어의곡 원점회귀 코스를 정했다. 골이 깊고 나무가 많아 걷는 내내 해가 거의 들지 않는다. 날이 좀 흐르기도 했지만 해가 떴더라도 울창한 숲의 그늘을 뚫진 못했을 것이다.

“흐리고 빗방울도 살짝 떨어져 잠시 ‘기대’도 했는데 오니까 그래도 좋네요.”

엄살과 흥분 중간 어디쯤의 농담들이 오가는 사이 돌 박힌 흙길이 목재 데크길로 바뀌었다가 활엽수와 침엽수가 아름다운 흙길로 변하기도 하면서 고도를 높여가며 능선에 가까워졌다. 저지대 계곡길은 선선하지만 가만히 있어야 바람이 느껴졌지만 능선에 올라서자 그늘이 사라진 대신 바람이 모자를 날릴 듯 거셌다. 겨울 소백의 된바람이야 악명이 높지만, 그 바람의 명성은 계절이 아니라 지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소백 능선의 바람은 언제나 센 편이다.

철쭉은 구름처럼 모데미는 별처럼

능선에는 곳곳에 철쭉이 피었다. 아무래도 연화봉 근처의 군락지보다는 개체 수가 적지만 조각구름처럼 산사면 곳곳의 연분홍 철쭉은 아름다웠다.

철쭉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적 있는가. 철쭉의 꽃잎에는 적갈색의 반점이 있다. 꽃잎 중간부터 안쪽 깊숙한 곳까지, 마치 화살표처럼 이어지는데 꿀벌과 곤충을 유인하는 이정표다. 반점의 안내를 따라 꿀벌이 날아들어 꽃 깊숙한 곳 암술의 꿀샘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수술의 꽃가루가 꿀벌에 많이 묻게 된다. 잘 보면 반점이 있는 앞이 있고 없는 앞이 있는데, 수술은 죄다 반점이 있는 꽃잎 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번식을 위한 철쭉의 최선이다. 참고로 진달래는 반점이 없으니 반점으로도 둘을 구분할 수 있겠다.

한번에 눈길을 잡아끄는 철쭉 말고도 소백산에서 기억할 게 있다면, 모데미풀이다.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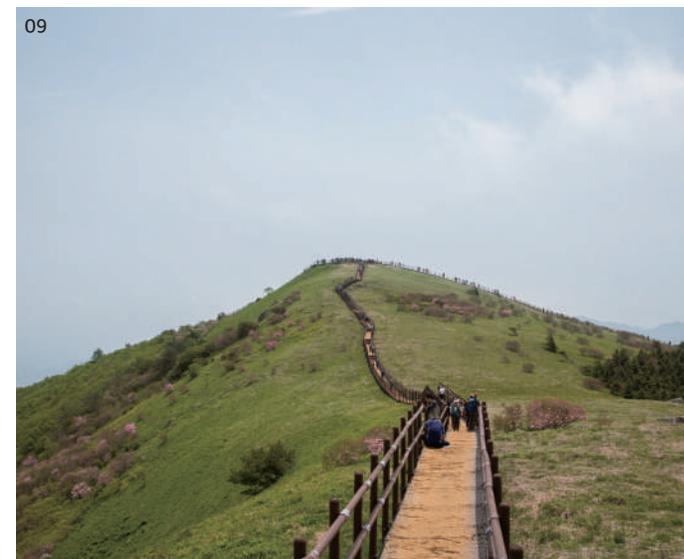


07



08

06 힘이 들 땀 잠시 이야기꽃을 피워도 좋다.
 07 아름다운 꽃이 핀 소백산.
 08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09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소백산 능선.



09

능선에는 곳곳에 철쭉이 피었다. 아무래도 연화봉 근처의 군락지보다는 개체 수가 적지만 조각구름처럼 산사면 곳곳의 연분홍 철쭉은 아름다웠다.



10

11

에서만 자라는 토종 야생화로 소백산의 깃대종이다. 국립공원마다 공원의 생태와 지리를 대표하는 야생 동식물을 깃대종으로 삼는데, 소백산은 여우와 모데미풀이다.

800m 이상의 고지대 중에서도 빛이 잘 들지 않고 습한 곳에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식지가 소백산이다. 모데미란 이름은 처음 발견된 지리산 자락의 마을에서 가져왔는데, 정작 그곳에선 이제 볼 수가 없다고. 선선한 계곡가 이끼 낀 바위에서 별처럼 하얗게 빛나는 꽃이 있다면 가만히 살펴보시라. 참고로, 하얀 꽃잎처럼 보이는 건 꽃받침이다. 우리는 어의곡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흑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곡 상류를 샅샅이 살피지만 만나진 못했다. 모데미꽃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핀다 하니 대략

진달래와 철쭉 사이 정도로 기억하면 편하겠 다. 철쭉이 연화봉 주변에 많듯, 모데미풀은 천동계곡 상류에 많다. 내년엔 철쭉을 보러 소백산에 오를 계획이라면 참고하시길.

철쭉도 모데미도 아름다운 소백산

“은행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바쁩니다. 평소에 다른 지점의 지인을 만나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는 더욱 힘들고요. 뭔가 계기가 있어서 모일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이런 자연에서 만나니까 참 좋네요. 제 생애 첫 번째 1,400m를 찍었습니다.(웃음)”
 “다음에도 계기를 또 만들면 되죠. 다음 산행은

한라산, 콜?”
 “내려가시죠.”
 산행 중에 다음 산행을 계획하는 건 무모하다. 산행의 고됨이 추억이 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지막 휴식에서 나온 다음 산행지는 끝을 맺지 못하고 흐려졌다.
 사실 오늘 모인 IBK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연의 끈으로 연결된 만남이기 때문이다. 따스한 봄을 만나 피어나는 꽃처럼 이번 산행을 위해 활짝 피어난 모임이지만 또 다른 인연을 통해 계속해서 만남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라산이든 총주의 계명산이든 어느 산자락에서 이번 봄의 소백산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울 거다.

소백산 INFO



- 주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소백산등산길 643
- 코스** 어의곡탐방지원센터~어의곡삼거리~비로봉(10.2km)
- 입산 시간** 하절기(4월~10월) 오전 4시부터 14시
동절기(11월~3월) 오전 5시부터 13시
- 문의**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054-630-0700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 10 한 폭의 그림 같은 IBK인들의 모습.
- 11 한껏 피어난 꽃을 배경으로 찰칵.
- 12 부부가 함께해 더욱 즐거운 산행이었다.



12

도전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바디프로필 100일의 도전



“3대 몇 치세요?”

헬스 열풍과 함께 바디프로필 촬영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의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도전에 성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촬영세권 사진방바디스튜디오

Body Profile



백승재 팀장 100일의 도전

기간	1월	5월
체중	50.8kg	48.2kg
체지방률	21.1%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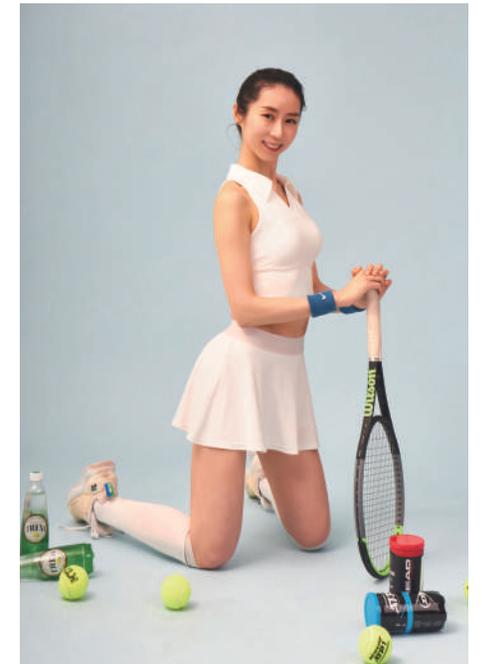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사실 세상에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도 일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몸 만들기예요. 유일하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몸은 꾸준히 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거든요.” 모델 한혜진의 말은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은 물론 운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의 말처럼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일이 참 많다. 하지만 내 몸 하나만큼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름을 앞둔 어느 날, 100일간의 몸 만들기를 마친 2명의 IBK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 모인 이들은 바로 독산중앙지점 백승재 팀장과 김해삼계지점의 김태원 대리. 이들은 참가 신청을 통해 100일 전부터 바디프로필 촬영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촬영에 앞서 사진 작가와 함께 촬영 콘셉트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 이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하다. 백승재 팀장은 준비해온 의상과 소품, 그리고 레퍼런스로 준비한 사진을 비교해 가며 어떤 의상을 입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했고, 김태원 대리는 촬영에 앞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언젠가는 바디프로필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with IBK>에서 기회를 주셔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죠. 아무래도 막연한 계획보다는 명확한 D-day가 주어지니 목표도 뚜렷해져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 계기를 묻는 질문에 두 사람의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지난 100일간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아련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촬영 준비가 끝났고 본격적인 바디프로필 촬영이 시작됐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

독산중앙지점 백승재 팀장은 오늘 촬영을 위해 준비를 단단히 해왔다. 평소 즐기던 테니스 용품과 촬영용 소품, 다양한 의상과 그동안 참았던 달콤한 케이크까지. 주변에 바디프로필을 위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별다른 응원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준비했다.

“건강 관리를 위해 5년 전부터 헬스를 했어요. 골프나 테니스도 꾸준히 하고 있죠. 바디프로필을 신청한 후로는 매일매일 운동 일지를 작성했어요. 그날의 식단과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기록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슬럼프가 왔습니다. 참고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바디프로필을 보다 보니, 제 타고난 몸이 예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욕이 줄었던 것이죠.”

백승재 팀장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보다 나은 모습을 갖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 그녀는 트레이너 상담을 통해 식단을 다시 한번 개선하고, 아쉬운 허리 라인을 살릴 수 있는 운동도 병행했다.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보니 100일간의 도전이 보상받는 것 같아 부듯합니다. 평소 즐기고 있는 테니스 의상을 활용한 콘셉트도 마음에 들어요.”

촬영을 마치고 밝게 웃는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도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디프로필이라는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그녀는 올해 10월 공인중개사 2차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세무사 자격증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도전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김해삼계지점 김태원 대리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3년 전 격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다.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평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기로 다짐했는데, 지인들이 없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헬스가 가장 적합했다고 말한다.

“마침 운동을 시작한지 3년 차가 되어 바디프로필 촬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with IBK>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의 도전이 쉽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원 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100일 동안 약속을 잡지 않고 식단을 관리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2시간 30분에서 3시간가량의 운동을 했다. 피치 못할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아침 일찍 운동을 가거나 약속이 끝나고 저녁이라도 무조건 운동을 했다.

“바디프로필은 가슴과 복근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복근 운동 루틴을 모든 스케줄에 다 넣었고, 체지방 감소를



위해 유산소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 덕분일까. 바디오일을 바른 그의 몸에는 ‘식스팩’ 복근이 선명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전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때 자전거를 타고 미국 뉴욕에서 LA까지 8,000km에 이르는 구간을 종주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20대의 버킷리스트가 미국 횡단이었다면 30대 버킷리스트의 시작을 끊은 것이 바로 바디프로필이다.

“앞으로는 외환전문역 자격증, CDCS 국제신용장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또 30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리 쪽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마치 무언가에 도전할 때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듯, 바디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음 도전을 생각하는 백승재 팀장과 김태원 대리. 앞으로 그들이 이뤄나갈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한다.



김태원 대리 100일의 도전

기간	1월	5월
체중	77.9Kg	72.6kg
체지방률	13.7%	7.4%
골격근량	38.6kg	38.6kg

내 마음속 소중한 무언가를

불빛으로 밝히다!

김포산단중앙지점의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김포산단중앙지점 직원들이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무드등 만들기에 도전했다. 무드등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는 조명으로, 빛의 밝기가 강하지 않아 조명보다는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인다. 아크릴판에 글자와 그림을 새기는 동안 직원들은 자신이 완성할 무드등에 대한 기대로 잔뜩 설레는 표정이 되었다.

글 한울 사진 이대원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Acrylic Mood Light



아크릴 무드등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데 있어 조명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조명이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곳곳에 작고 예쁜 무드등을 두면 집안 분위기가 제법 근사해진다. 직접 만든 무드등이라면 어떨까.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더해질 것이다.

책상에 각종 도안이 준비되었다. “이것도 예쁠 것 같고, 저것도 예쁠 것 같은데요!”, “어떤 그림으로 할 거예요?”, “나는 이걸로 해야겠다!” 직원들은 어떤 도안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잠시 후 작업할 도안을 하나씩 골랐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인데도 얼굴 가득 저마다의 설렘이 묻어났다. 동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김진아 대리가 유독 흐뭇한 표정이다.

“다른 지점에서 IBK핸드메이드에 참여하는 걸 보고 많이 부러웠어요.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싶었는

데, 정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됐네요! (웃음)” 본 작업 전 5분 정도 연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작업을 위해 실내등을 끄고 LED 빛을 밝혔다. 강사가 작업 방법을 설명했다.

“철심펜과 전동펜을 사용해 아크릴판에 글자와 무늬를 새겨볼 건데요. 선은 철심펜을 사용해 그어주 시면 됩니다. 판이 두껍기 때문에 힘을 주고 그어야 합니다. 선이 두껍게 그려져야 예쁜 결과물이 탄생 합니다. 먼저 선 두께를 연습하고, 직선과 곡선을 그 으면서 펜의 사용감을 손에 익혀보세요. 면은 전동 펜을 사용해 깔끔하게 채우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 해볼까요!”

철심펜으로 라인 작업을 시작했다. ‘윙~윙~’ 소리가 실내를 채웠다. 직원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표정이 다부져졌다.



표현하려면 굵기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강사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작업은 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판이 두꺼워서 한번에 선을 굵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굵어주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윙~윙~’ 소리가 다시 실내를 채웠다. 임형일 대리는 잠시 쉬려는 듯 어깨를 풀었다. 아크릴판에는 ‘걱정하는 게 걱정이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이 도안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요. 평소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걱정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는 걱정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이 도안을 택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가족과 관련된 도안을 선택해 작업에 열중했다. 아크릴판 속 가족은 단란하고 행복한

아크릴판에 나만의 감성을 새기다

연습 시간이 끝나고 본 작업을 할 차례다. 손승희 대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리죠?”라며 긴장된 마음을 표현했다. 그녀의 말에 직원들이 “나도 그렇다”고 말하며 함께 웃었다. 직원들은 각지를 꺾다가 펴기도 하고, 팔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크릴판에 스카치테이프를 도안을 고정하고 조명 받침대에 아크릴 판을 끼워 준비 작업을 마쳤다. 김민아 대리가 김진아 대리를 향해 “이 도안 예쁘지?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라며 애교 섞인 자랑을 하자 김진아 대리가 “수고했어, 오늘도”가 아니고 ‘한 잔해, 오늘도’인데?!”라며 농담을 던졌다. 직원들이 “맞네, 맞네!”라며 맞장구를 쳤고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본 작업부터는 집중의 시간이다. 작업 방법은 큰 선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 순으로 해야 하고, 선을 굵게





모습이었다. 강명은 과장은 “가족들의 얼굴을 새기고 있으니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라며 미소 지었다. 직원들은 가족의 이름을 새기거나 하트와 별 등의 예쁜 무늬를 새기며 자신만의 감성을 더해갔다.

불빛으로 밝힌 감성 충만한 무드등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아크릴판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작업은 마무리됐다. 판을 굽어내면서 생긴 분진을 닦아내고 책상 정리까지 마쳤다. 이제 점등식만 남았다. 직원들은 “무척 기대되는데요!”, “작업 내내 집중했는데,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무드등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네요!”라며 저마다의 소감과 설레는 기분을 전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숫자를 세고 전기선의 버튼을 눌렀다. 무드등에 일제히 불빛이 들어왔다. “와~!” 직원들의 감탄이 이어졌다. 주나리 대리는 “기대했

던 것 이상으로 예뻐요! 아이가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라며 작은 박수를 쳤다. 추억은 사진으로 저장해야 오래 남는 법! 무드등을 소품 삼아 직원들이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다. 마치 각자가 정성 들여 완성한 무드등의 불빛이 동시에 반짝하고 켜진 것처럼.



IBK핸드메이드 참여 후기

무드등답게 분위기와 감성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얼굴을 새기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퇴근하고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 난이도가 쉬워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외에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다 함께 웃고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멋진 무드등까지 만들었네요. 작업을 하면서 동료들과의 돈독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만든 무드등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작은 크기의 무드등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실내의 전등불을 끄고 LED 빛을 비추며 작업하는 모습이 꽤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만든 후 불을 켜보니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 성취감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해줘서 신기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강명은 과장



정철 과장



김민아 대리



김진아 대리

동료들과 함께 이크릴 무드등을 만들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드는 내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두고 보고려고 합니다.

실면서 제 손으로 푹푹푹 무언가를 만들어 완성해볼 일이 없었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만드는 법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따라했어요. 글자와 무늬를 새기는 동안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결과물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뻐서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불빛이 강하지 않아서 잠잘 때 옆에 켜두고 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엄마가 만들었다고 하면 아이가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열른 켜두고 싶어요!



손승희 대리



임형일 대리



주나리 대리



끊임없이 도전한 거인 조선의 발명왕 장영실



조선 세종 때의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장영실(1390년경~?)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인물이다. 신분의 굴레를 뛰어넘은 조선 최고의 발명왕, 장영실. 재주 많은 종의 아들이서 종3품에 이른 그의 삶은 그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다.

글 박성일 일러스트 유남영

유교만이 세계의 질서로 여겨지던 시대, 조선. 천출로 태어나 평생을 노비로 살 뻔한 장영실은 궁에 들어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낸 천재 과학자였다. 실제로 장영실은 무언가를 만들다가 실패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는 동료가 망가진 기계를 수리하다가 실패했는지 한탄했다. 이때 장영실은 “내가 한번 해 볼게” 하며 기계를 손봤다. 장영실도 처음에는 동료처럼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계를 완벽히 수리했다.

“이걸 어떻게 해냈지? 자네 이 기계를 완벽히 수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실패해도 끊임없이 도전했을 뿐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요.”

이처럼 장영실에게 포기란 없었다. 세종은 왕에 오르기 전부터 이런 장영실의 능력을 눈여겨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이 장영실을 불러 말했다.

“짐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은 명확히 알 수 있는 천문 관측기를 만들고 싶다. 네가 조선의 하늘에 딱 맞는 천문 관측기를 만든다면, 농사를 짓는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나라에 큰 보탬이 될 터인데...”

장영실은 그길로 명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의 하늘과 딱 맞아떨어지는 천문 관측기인 ‘혼천의’를 만들었다. 세종의 총애를 얻은 장영실은 이후 종3품 대호군까지 오르면서 많은 천문기구를 제작했다. 천문 관측기를 더욱 간략하게 만든 ‘간의’, 청계천의 물 높이를 잴 수 있는 ‘수표’, 강수량을 알 수 있는 ‘측우기’ 등이 모두 장영실의 작품이다. 장영실의 도전정신 덕분에 조선의 과학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불황 속 절약 소비 오늘 하루도 알차게 갓생 살기



가스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비와 수도요금 그리고 서민 물가의 바로미터인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는 고물가의 시대. 그래서일까. 코로나의 장기화로 현재를 즐기자는 ‘올로’는 가고,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는 ‘갓생’의 열풍이 불고 있다.

글 편집실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 모으는 촉매 써다고 무시했던 PB 상품의 재발견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PB상품이란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각 기업의 정체성과 특징점을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가격을 넘어 품질과 트렌드로 발 빠르게 무장하며 차별화에 성공도 거뒀다. 소비자가 PB상품에 꽂힌 이유다.

업계에서도 PB상품의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상품의 돌풍이 거세다. **상품의 차별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 PB상품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대로 빛을 보고 있다.** 대부분 품목에서 유명브랜드 제품보다 가격이 30~50% 저렴한 것이 특징. 최근에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라면이나 음료 품목까지 PB상품이 유명브랜드 상품의 매출을 앞서고 있다. 특히 저가 라면이 인기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라면 한그릇’은 지난 1월 매출이 전년 대비 89.7% 증가하는 등 한 달 동안에 만 12만 9,000개가 팔려나갔다. 홈플러스 짜장라면 ‘이춘삼’도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3월 15일 기준 누적 판매량은 75만 개에 달했다. 이마트의 프리미엄 간편가정식 PB 브랜드 ‘피코크’는 고객 중심의 상품 개발로 ‘고급 가성비’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 쉐리는 자체브랜드 ‘KF365(컬리프레시)’, ‘KS365(컬리세이프)’ 등을 운영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싼 맛’에 사던 PB상품이 가격과 품질을 다 잡으며 고물가 시대를 맞아 ‘대세’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뭉치면 싸다
지역 커뮤니티 공동구매 활발

코로나 팬데믹이 쓰아 올린 장바구니의 목마름은 중고거래는 물론 공동구매의 신분도 상승시켰다. 경기 불황을 먹고 자랐던 이들 시장이 변모하고 있는 것. 공동구매는 특정 물건을 함께 구매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래 형태다. 최근에는 개인이 하나로 묶인 제품을 이웃 주민과 함께 구매해 나누는 지역 커뮤니티형 공동구매가 유행 중이다.

휴지나 세제, 화장지, 생필품 등 주로 대용량으로 사는 상품을 공동 구매한 후 지역 주민끼리 나누는 식이다. '1+' '2+' 형태로 묶어서 파는 상품을 소분하기도 한다. 생필품 이외에도 달걀, 채소, 김치 같은 식료품 등 주로 대용량으로 구입하면 단위가격이 저렴해지는 제품이 그 대상이다. 혹은 일정 개수나 금액 이상 구입하면 무료 배송인 제품도 공동구매 단골 품목이다. 요즘은 배달비 부담으로 인해 배달 음식마저도 공동구매로 진행되는 문화까지 생겼다.

꼭 **중고거래를 위해서뿐 아니라 지역 내 공동구매를 위한 장으로서 지역 커뮤니티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례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당근마켓에서는 '같이 사요' 게시판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공동구매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쿠팡이츠도 앱 내에 '친구 모아 함께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이웃들과 오픈(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때그때 함께 배달시킬 인원을 구하는 '배달파티'도 성행하고 있다. '뭉치면 싸고, 흩어지면 비싸다'라는 인식은 이제 상식이 됐다.



어서와, 이런 곳은 처음이지
소주 콜키지 프리 식당 등장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외식 물가 속 술값도 함께 치솟고 있다. 특히 식당에서 6,000~8,000원, 높은 가격은 9,000원에 팔리고 있는 소주는 이제 '서민 술'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젊은 층의 발길이 소주 콜키지 프리가 가능한 식당으로 쏠리고 있는 이유다.

'콜키지(corkage)'는 '코르크 차지(cork&charge)'의 줄임말이다.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매장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컵과 얼음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식당에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은 가게마다 다르고, 또 이를 아예 받지 않는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식당도 있다. 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이나 위스키에 한해서 제공하던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 회, 삼겹살 등 한식을 파는 식당에서도 콜키지 프리 서비스가 확산하는가 하면 주종도 소주, 맥주까지 확대되고 있다.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손님이 끊길 것을 우려해 병수에 제한을 두고 콜키지 비용을 받지 않는 것. 소주 할인을 이벤트로 내거는 식당도 많다. 주류 매출이 좀 줄어들더라도 콜키지 프리 정책이 마케팅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양코플레이트', '테이블링', '어디까지', '식신', '캐치테이블' 등 맛집 검색-예약 플랫폼들은 '콜키지 가능'이나 '콜키지 프리' 식당을 따로 모아 소개할 정도다. **외식업계의 불황형 마케팅인 콜키지 프리가 불황 속 돌파구를 찾는 하나의 해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역량 강화로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듭니다

외환마케팅팀



외환마케팅팀은 외국환 실적증대를 위해 독자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개인 등 어떤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외환마케팅팀은 IBK기업은행의 전천후 팀으로 거듭났다.

글 김이래 사진 박시홍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천후 팀**

외환사업부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환마케팅팀은 IBK만의 수출입지원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전행의 외국인 실적증대를 위해 외환 신규고객 유치 기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량고객이 IBK 기업은행을 주거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업 현장의 외환 실적증대를 돕는 디지털 기반 마케팅 인프라를 마련하고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영업점과 지역본부 별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외환마케팅팀은 업무에 따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업마케팅 부문에서는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제휴사업 기획과 P@yGOS(페이고스), IBK TradeClub(트레이드클럽) 등 비가격 서비스를 운영하여 영업점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개인

마케팅 부문에서는 개인고객 환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고객 이벤트를 통해 개인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특화 점포인 '안산외국인금융센터'는 다양한 언어지원으로 외국인고객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신고 부문은 해외직접투자자와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해외 진출을 돕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신설하고, 외환 신규기업 유치, 외환 서비스의 디지털화, 비가격 서비스 제공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2년도 8,045개의 외환 신규기업 유치 및 전행 외국인 총량 실적 1,586억 불 달성에 기여했다.



Satisfy





Service

개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해외 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IBK트레이드클럽,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대금의 정산을 도와주는 페이고스 등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폭넓은 비가격 서비스를 선보여 수출입 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젊은 감각이 필요한 부서 특성으로 인해 M세대와 Z세대가 어우러진 직원들로 구성된 외환마케팅팀은 고정관념이 없는 폭넓은 시각과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논하는 유연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부서 내 모든 세대가 화합하여 다채로운 색을 품고자 직원들과의 맛집 탐방,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친목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 본부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업점과 동행하여 영업점-본부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대고객 영업 지원 등의 밀착형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외환마케팅팀의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들은 어느새 경험과 노하우가 되었고 강점과 차별점으로 자리 잡아 외환마케팅팀만의 특색 넘치는 서비스로 이어졌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든다

외환마케팅팀은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겪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은행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현행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스포핑기업 '틱톡'과 함께 글로벌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고, 세계 최대의 온라인 마켓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한 걸음 더

외환마케팅팀은 이미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졌지만, 더 새롭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마케팅업무 담당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신규 서비스를 직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한다.



Challenge

“해외직접투자 담당자들은 일주일마다 팀원들끼리 모여서 한 주간 처리했던 업무 중 특이했던 건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고 규정 지식, 유의 사항 등 전파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선 부장은 효과적인 타겟 마케팅을 위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데이터 추출 및 가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참여와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배우고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마케팅 실무교육’ 수강을 통해 다양한 채

널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을 배우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불어, 독일어, 베트남어 등 외환마케팅팀에는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포진해 있다.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개인에게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신고 업무수행으로 기업은행의 외환 실적을 견인하는 믿음직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외환하면 IBK!’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가까이에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동행할 것이다.



Mini Interview



외환마케팅
지민선 부장

기본에 충실하여 탄탄한 내실을 쌓아가요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모두가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환마케팅 팀원들이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기본을 착실히 쌓아나가면서 IBK만의 특별한 외환마케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삼위일체를 이뤄내요

삼위일체(화합, 소통, 배려)는 저희 부서의 슬로건이자 제가 바라는 저희 부서의 지향점입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안에서 직원들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는 서로 간의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로소 건강하고 원활한 소통이 있는 건강한 회사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원 모두가 삼위일체를 함께 지켜나가며 즐거운 일터 만들겠습니다.

외환마케팅팀은

차별화된 에
도전한다!

지민선 부장



신박한부기

이재열 팀장



거래처매칭

윤정순 팀장



외환페스타

박수정 차장



같이의가치

정승호 차장



외환플러깅

권재용 차장



해피투게더

이재용 차장



결정적연단

오현숙 차장



외환다이소

방선환 과장



외환주먹마

이병욱 과장



같이해결해

김동희 대리



크리에이터

조설하 대리



외환시크볼

김호선 대리



실력과센스

유보라 대리



명명절요정

이영준 대리



원할때환전

김대인 대리



돈돈마케팅

고경민 대리



비대면사랑

손지선 대리



외환마스터

김혜인 대리



신뢰와소통

박자연 대리



환화식문화

김현정 대리



외환서비스

국유진 대리



부서분위기

송경은 대리



시장경쟁력

김화 대리



새로운영역

김민지 대리



유튜브전략



차별화된 기술과 와이즈 마인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성장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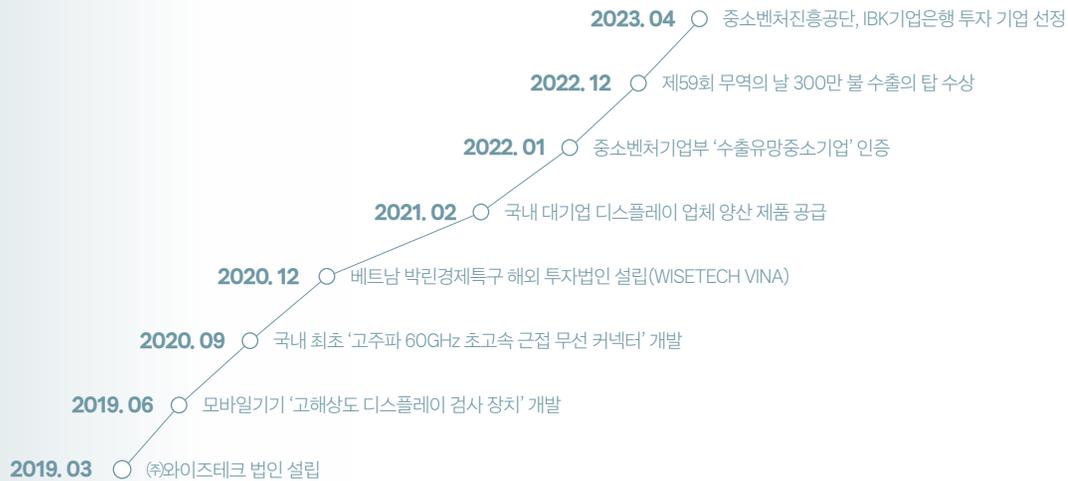
(주)와이즈테크
우장원 대표



인덕원지점 거래 기업

언택트 시대에 맞춰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성능 검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와이즈테크는 글로벌 전자 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인정받는 고해상도 성능 검사 장치를 만들어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글 김이래 사진 김경수



차별화된 기술로 이룬 초고속 성장

와이즈테크는 모바일용 LCD/OLED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9년 3월 법인 설립하여 이제 4년이 갓 넘은 벤처기업이지만 기술혁신, 열정적인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다. 언택트 산업 성장에 중요한 IT 제품들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성능 검사 장치를 개발한 와이즈테크는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전자 제품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에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무인 자동화 양산라인에서 디스플레이를 동작시켜 최종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전용 검사 장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개발에 착수한 뒤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고주파 60GHz 초고속 근접 무선 커넥터를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2021년부터 국내 대기업에 양산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모바일기에 사용되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기능화되고 있는 전자 제품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로 기술’과 두께가 얇은 플렉시블디스플레이를 여러 검사공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초정밀 기구설계 기술’이 결합된 OLED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우장원 대표는 반도체 MEMS 기반의 Impedance Matching 기술과 EMC 차폐 기술 적용 등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화된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만한 기업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우장원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4년부터는 전자기기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제품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매년 10% 이상 투자하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며 원가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외주 공정 내재화 등을 이뤄내며 ‘도전

와이즈테크의 특징

- Step.1** 신기술 개발 능력 보유
디스플레이 해상도별 대용량의 영상신호를 DSC로 압축하지 않은 1:1로 고속송수신 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보유
- Step.2**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 구축
높은 내구성과 수치(數值)상으로 표현되는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 우수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
- Step.3** 내부 조직 간의 원활한 협업
내부 조직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발과 생산 영역이 원활한 협업을 이룸



성장 3개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나가고 있다. 와이즈테크의 현재는 이런 우장원 대표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인해 탄생했다.

위기를 이겨낸 와이즈 마인드

기술 구축과 능동적인 마인드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는 와이즈테크는 2019년 창업 이후 내부에서 성장통을 겪기도 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직원이 신규 입사하면서 부서별로 융화된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술 위주의 많은 벤처기업이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내부 시스템 부재로 인한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곤 한다. 와이즈테크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우장원 대표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저희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부서별로

융화되지 못해 이탈자가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원활한 소통 부재로 내부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회사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 소통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직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즈테크가 2021년 개발한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는 초기에 첫 완성품을 조립, 생산하는 일을 진행하면서 초기 실패 비용이 발생했고 손실률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우장원 대표는 기술에 대한 믿음으로 양산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익의 감소 폭은 점차 줄어들었고 매출액 등 성장에 큰 기점이 되며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는 와이즈테크를 대표하는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라는 저희 와이즈테크의 와이즈 마인드는 문제점을 찾아 끈질기게 해결해 결국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가 결국 저희를 대표하는 기술이 된 것처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와이즈테크는 이런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전년도 매출액 60억 원을 기록하고 해외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성장해나가고 있다.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 IBK 기업은행의 공동 투자를 확정 지으며 다음 단계로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기회를 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

우장원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시장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OLED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성장을 이어나

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의 비중은 50.8%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TV 및 스마트폰 중심의 OLED 경쟁을 태블릿, 노트북, PC 등에 본격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OLED 산업 시장이 확대될수록 검사 장치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와이즈테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모바일기기용 제품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양산화하여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와이즈테크는 ‘초고속 근접 무선통신 커넥터’ 기술을 활용한 전자 제품 간에 근거리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디스플레이 및 가전 분야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품의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IPO 등 체계적인 진행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와이즈테크의 노력은 모든 벤처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Mini Interview ①

**든든한 지원을
멈추지 않는
IBK Family**



와이즈테크 우장원 대표

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상도’라는 책을 읽고 큰 배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도덕을 지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주주와 직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ESG 경영을 실천하여 저희 와이즈테크 모든 식구가 행복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입니다.

Q. 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지난 2021년 IBK 창공 5기 선정 기업으로 뽑혔던 일 외에도 2019년 창업 을 시작했던 때부터 IBK기업은행은 저희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자로서 우산 이 되어 주었습니다. 벤처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지원 덕분에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에 IBK기업은행 내부 혁신투자 팀과 투자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미래 에 저희 기업의 성장과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 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IBK Family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Mini Interview ②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와이즈테크와
함께합니다.**



인덕원지점 심성희 지점장

Q. <with IBK> 독자들을 위해 인덕원지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IBK 인덕원지점은 1982년 개점하여 올해로 42년이 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영업점입니다. 인덕원은 옛날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들이 휴식을 취하며 힘을 얻게 하고, 덕을 베푸는 원(속소)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명의 유래와 같이 인덕원지점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힘이 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지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덕원지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와이즈테크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A. 40대 중장년 창업의 성공 신화를 써가는 와이즈테크는 혁신적인 OLE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를 개발하여 아이폰의 선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끊임 없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초고속 근접 무선통신 커넥터 모듈 사업에 진출하여 한층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과 함께 성장 준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 높은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IBK가 와이즈테크와 함께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꿈을 향한 비상



IBK창공 기업

IBK창공 마포

콘텐츠
업사이클링의 시작



(주)레다게임즈

레다게임즈는 오프라인 방탈출 카페와 보드게임 등에 경험이 풍부한 개발진이 모인 회사로, 온라인 방탈출 게임과 범인을 찾는 게임인 크라이믹스 게임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ledagames.com

IBK창공 구로

로봇 스마트 워킹
시스템 에비스



(주)헬퍼로보틱스

헬퍼로보틱스는 국내 매장에 최적화된 서빙로봇을 선보이며 눈길을 끈다. 특히 자체 기술력에 기반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강력한 경쟁력으로 손꼽힌다.



hrobot.ai

IBK창공 부산

스마트 수산물
유통 연구소



(주)씨라이프사이언스랩

씨라이프사이언스랩은 수산물 유통 정책, 유통경영 효율화 등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며 소비자의 수산물 만족도는 물론 해양 수산 경제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sealab.co.kr

IBK창공 대전

모두를 위한
콘텐츠 기술로 날다



(주)코드넛

코드넛은 기술(Tech)을 통해 콘텐츠(Contents)의 미래를 꿈꾸는 스타트업이다. 특히 클라우드, AI 기술을 기반으로 공유와 연결의 가치를 포함하는 콘텐츠 모델을 만들고 있다.



codnut.com

IBK창공 **마포**

게임으로 즐기는
스토리 기반 콘텐츠



㈜레다게임즈는 스토리 콘텐츠의 올바른 게임화를 추구하는 콘텐츠 업사이클링 기업이다. 원작에 충실한 탄탄한 스토리의 일관성,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와 챗터별 진행의 접근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인터랙티브 게임요소의 게임성 등 스토리 기반의 온라인 인터랙티브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레다게임즈는 지난 5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게임 선출시를 진행했다. 이번 **‘타인은 지옥이다’** 온라인 방탈출 게임은 **방탈출 마니아들과 원작 웹툰 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게임으로 직접 ‘운중주’가 되어 원작 웹툰 속 고시원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향후 텀블벅 펀딩을 통해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IBK창공 **구로**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스마트 워킹시스템 기반의 서비스로봇 개발 전문기업 ㈜헬퍼로보틱스는 비대면 매장 맞춤형 서빙로봇 ‘에스비’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에스비는 스마트팩토리에 활용되는 무인운반차(AGV) 기술을 활용해 다중 제어시스템과 자기 유선주도 주행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을 보조한다. 특히 **‘작거나 사람이 붐비는 매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형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매장과 대형 매장뿐 아니라 PC방, 캐주얼 펍 등 기존 자율주행 로봇의 적용이 어렵던 다양한 형태의 매장에 적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시장성이 더욱 기대된다. 또한 매장 스마트 워킹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스마트팜 무인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미래형 매장 구축 프로젝트를 확장한다는 청사진이다.



IBK창공 **부산**

수산물 식자재
유통 플랫폼



㈜씨라이프사이언스랩은 수산물에 대한 전문성과 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산물 식자재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특히 **‘각종 수산물에 대한 전문성과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수산물 소비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 이를 플랫폼으로 구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불만이 가득했던 수산물 식자재 시장을 해결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로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전문성, QR코드 적용, 최적화된 유통비용, 수산물 식자재 물류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산물 식자재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수산물 식자재 종합 플랫폼 ‘SEA-PICK’ 솔루션으로 해양수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전략이다.



IBK창공 **대전**

DX 통한 교육환경 혁신
QUIZRIX



클라우드 문제집출판플랫폼 퀴즈릭스(QUIZRIX)는 누구나 문제를 저작하고 공유, 배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제작된 온라인 문제집은 URL 형태로 배포되어 모바일과 PC에서 풀어볼 수 있으며 학습성과도 분석해 리포트한다. 또한 **‘누구나 데이터만 입력하면 높은 효율의 학습이 가능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포하고 평가해 더 나은 형태의 콘텐츠로 진화시킬 수도 있다.’** 코드넛은 플랫폼을 통해 선생님에게는 편리한 강의 도구를, 학생에게는 동기유발에서 높은 성취감을 끌어내는 동시에 연결되고 공유되는 다음 세대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의 콘텐츠 모델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광고촬영 스케치

IBK기업은행이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출시하며 디지털 영상광고와 인쇄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촬영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SBS TV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맹활약한 배우 장혁진과 배유람이 모델로 등장해 극 중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개그콤비를 촬영 현장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글 편집실

이번 광고촬영은 IBK기업은행이 2040 중기임직원을 타깃으로 출시한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 그 혜택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콘셉트로 진행됐다. SBS TV <모범택시2>에서 개그콤비였던 배우 장혁진과 배유람이 함께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매체광고는 이체·ATM출금 수수료 면제,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 제공 등 급여통장의 금융혜택을 강조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선도은행’이라는 IBK기업은행의 정체성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는 은행’의 포지셔닝 전략으로 브랜드 차별화에 초점을 뒀다.



슬그MONEY 0원



또또... 타은행 ATM기로 돈 뽑네~



그렇다면!!! IBK기업은행으로 슬그머니?!



수수료 0원, 타행 ATM이체, 출금 수수료 면제

S#1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수수료 <0원>

웨딩홀 로비, 이제 막 ATM 기기에서 돈을 뽑고 나오는 한 여자가 축의금 부탁 전화를 받고 난감해한다. 수수료를 걱정하는 여자 뒤로 배우 장혁진과 배유람이 위장 캐릭터로 변장한 채 등장한다. 주인공의 걱정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두 사람. 이내 '부드럽고 슬그먼스런'의 BGM이 흘러나오며 "슬그MONEY 0원"이라는 케이크 자막과 함께 'IBK기업은행 월급통장은 수수료 무제한 면제'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S#2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금리 <3%>

한 사무실, 전기공사 복장으로 위장한 배우 장혁진과 배유람. 그 너머로 보이는 여직원이 간간하게 금리를 따지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 이를 본 두 사람은 여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이때 '부드럽고 슬그먼스런'의 BGM이 흐르고 "슬그MONEY 연 3%"라는 핏말 자막과 함께 "IBK기업은행 월급통장은 연 3% 파킹금리에 매월 이자지급까지"라는 내레이션이 흐른다.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눈이 빠지도록 따지면서 월급통장 금리는 왜 안본대?



3%면 커피가 몇 잔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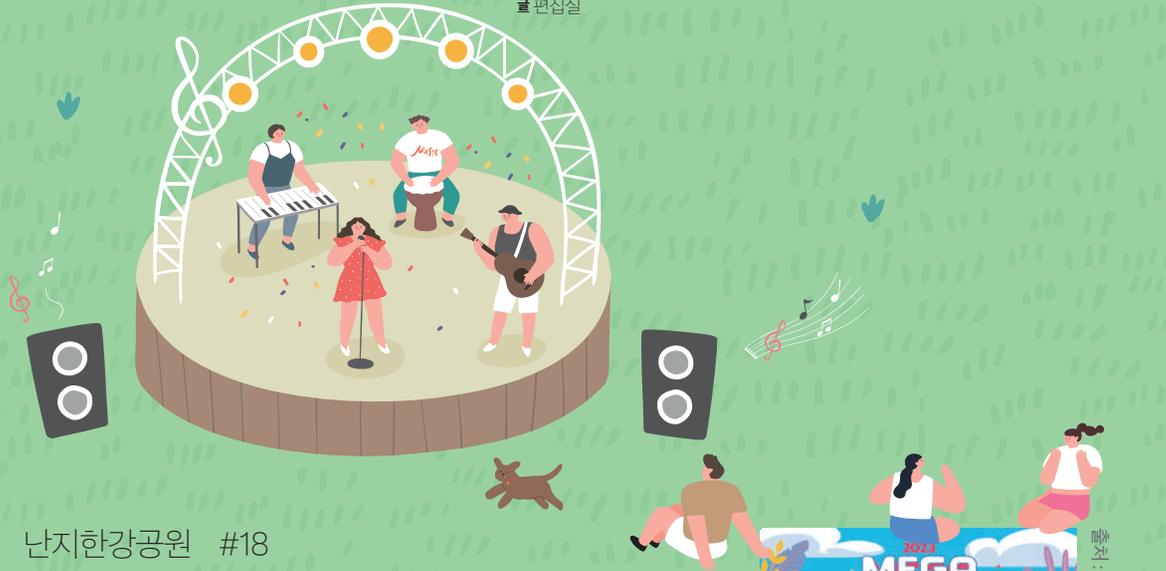
잠자는 월급통장을 깨우면 슬그머니 돈이 쌓인다.

슬그머니 돈이 쌓인다

핫하게 돌아온 뮤직페스티벌 올여름 함께 즐겨요

코로나19를 지나 유명 페스티벌들이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정상 개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떴창은 물론 맛있는 음식, 음료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더욱 핫하다. 여러 페스티벌 중 올여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핫한 페스티벌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난지한강공원 #18 메가필드 뮤직 페스티벌 2023

온전히 즐기는 도심 속 음악 축제

도심 속 음악 축제 '메가필드 뮤직 페스티벌 2023'이 6월 17~18일 난지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음악 축제'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1·2차 라인업에는 god 멤버 손호영, 김태우 그룹 유닛 호우(HooW), 국민밴드 NELL(넬), 불발간사춘기, 하동균, 이무진, 하현상, 아일, 솔루션스, 이솔로몬, 이병찬, 제이유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공개된 3차 라인업에는 적재, 감필, 로이킴, 존박, 홍익석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드림팀을 완성했다. 총 18팀의 아티스트를 공개한 메가필드 측은 최고의 라인업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축제의 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3. 6.17~18
난지한강공원

출처: kmaster_ent



전국 #9 2023 워터밤

물폭탄을 맞으며 즐기는 EDM-힙합-K-POP

올해도 여름 최고의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 축제가 열린다. 워터밤은 물총 싸움과 뮤직 페스티벌을 결합한 축제. 관객이 각자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팀 컬러를 선택하고,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하며 물총 싸움을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관람형 페스티벌의 개념을 탈피해 관객이 직접 축제 프로그램에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페스티벌이다. 이번 워터밤 축제는 오는 6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9개 도시에서 '2023 워터밤'이 진행된다. 서울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 광주는 7월 8일, 대전은 7월 15일, 대구는 7월 22일에 진행된다. 부산은 7월 29일, 인천은 8월 5일, 수원은 8월 12일, 속초는 8월 19일, 제주는 8월 26일이다.



2023. 6.30~8.26



제주 #15 2023 에코뮤직페스티벌

찐제주스런 곳에서 찐음악으로 에코하기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뮤직페스티벌 '2023 제주에코 뮤직페스티벌'이 6월 17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펼쳐진다. 윤도현밴드, 코요태, 저스디스, 래원, 김승민, 김나영, 솔루션스, 터치드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과 함께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공연은 15시부터 진행되며 별도의 구역 구분 없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



2023.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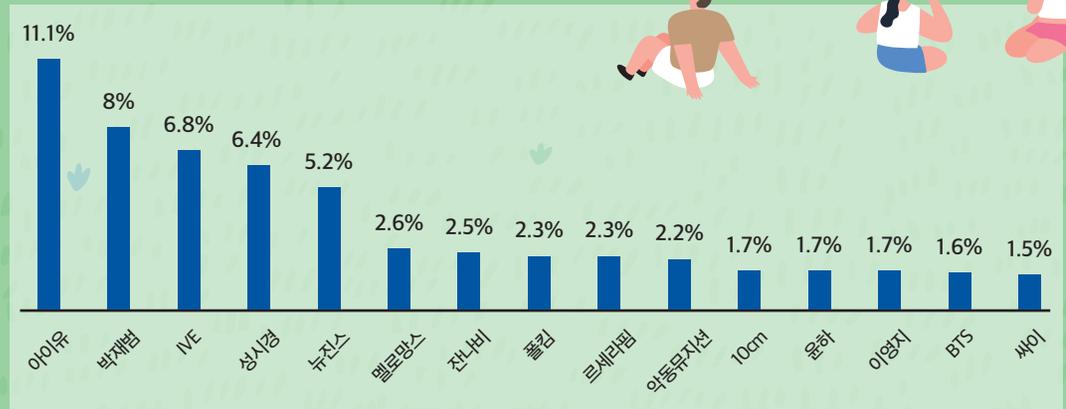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보다 많은 페스티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페스티벌 라이프



IBK인이 올여름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나고 싶은 가수는 누구



설문조사에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가 많은 표를 차지했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0표 이하를 받은 가수들도 200명이 넘었다. 이는 IBK인들의 음악에 대한 다채로운 취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단칸방에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던 학창시절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유는 2008년 만 15세의 나이에 데뷔했다. 데뷔 초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으나 2009년 발랄한 이미지의 <Boo>와 <있잖아>로 인지도를 얻었다. 데뷔 3년 차부터 <잔소리>, <좋은 날>, <너랑 나> 등의 노래가 차트를 올킬하면서 대세 아이돌이 되었고, 20대가 되어 자작곡 <금요일에 만나요>로 싱어송라이터이자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됐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박재범은 2008년 보이그룹 2PM의 리더로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에 그룹을 탈퇴, 2011년 솔로앨범을 발매해 음반 판매량 1위, 뮤직뱅크 1위를 기록한다. 2013년에는 레이블 AOMG의 수장이 되었고, 2017년 힙합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알앤비앨범상을 수상했다. 이후 <소미더머니6> 프로듀서로 출연하고 <SNL 코리아> 시즌4와 시즌5 크루로 참여하면서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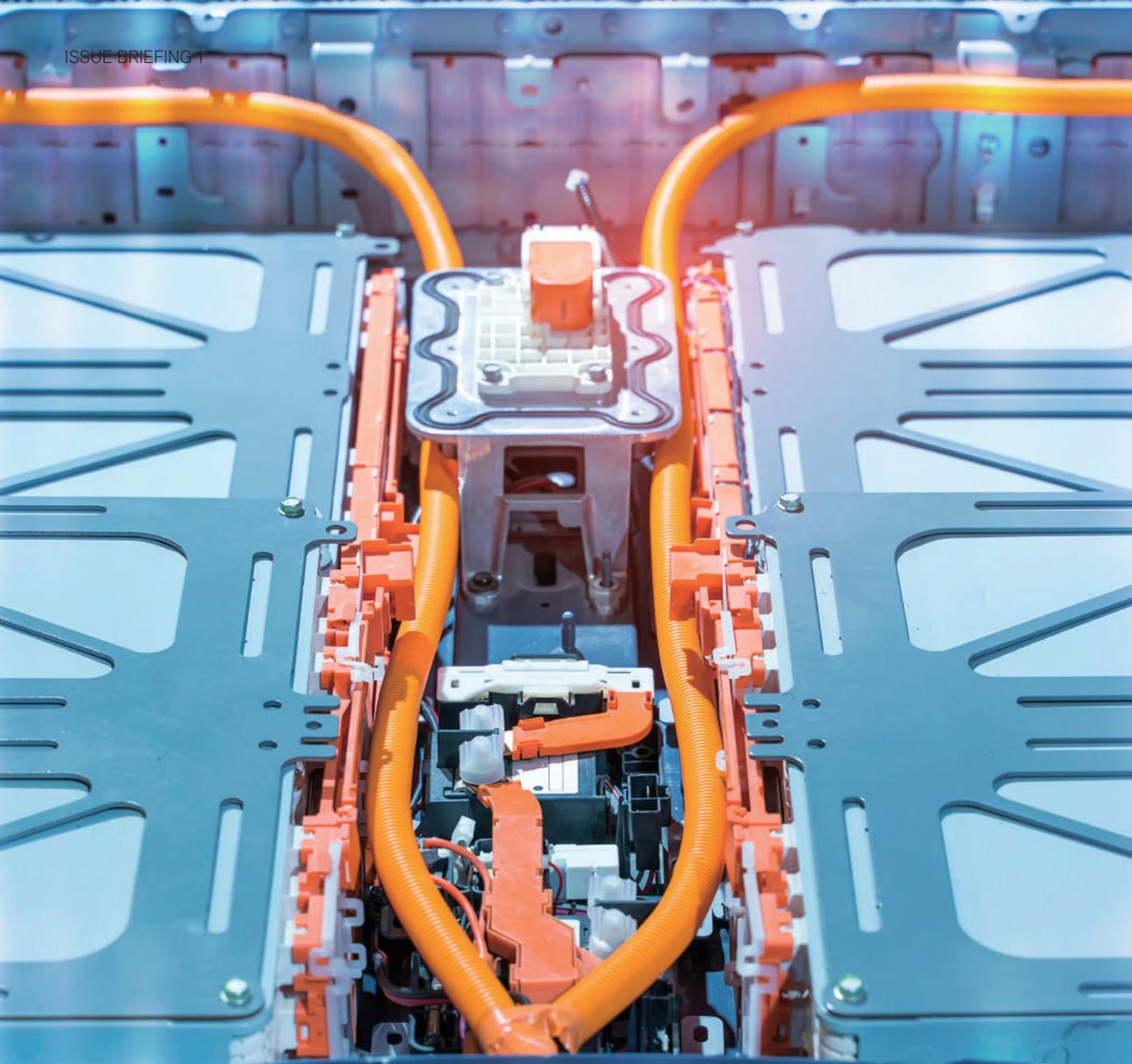


아이브는 2021년 12월 데뷔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4세대 걸그룹이다. 걸크러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걸그룹 가운데서도 '자기애'라는 키워드를 곁들여 차별화를 시도했다. 2021년 데뷔한 아이브는 <ELEVEN>과 <LOVE DIVE>로 연타석 흥륜을 치면서 대세 아이돌로 자리잡았다. 2023년 4월 발매한 정규 1집 타이틀곡 <AM>은 활동 첫 주에 모든 음악방송에서 1위를 수상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인류 전반에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판도가 바뀔 땐
항상 '에너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될 배터리 혁명!
'K-배터리'가 이끌 미래 에너지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배터리 혁명과 K-배터리의 미래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인 가운데 환경규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며 배터리의 보급량을 늘리는 것이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글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전기차 시장의 전망과 배터리의 중요성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로 전기차와 이차전지 업체의 성장세는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유럽 내 주요 완성차 기업의 전동화 로드맵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비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15개 이상의 주가 캘리포니아의 배출 규정을 벤치마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Reportlinker)가 2월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

이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약 706조)에 견주어 연평균 성장률 21.6%를 적용한 수치이다. 전기차는 원가 비중이 가장 큰 배터리 원가를 낮춰야 보급량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술 개발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2023 전기차와 이차전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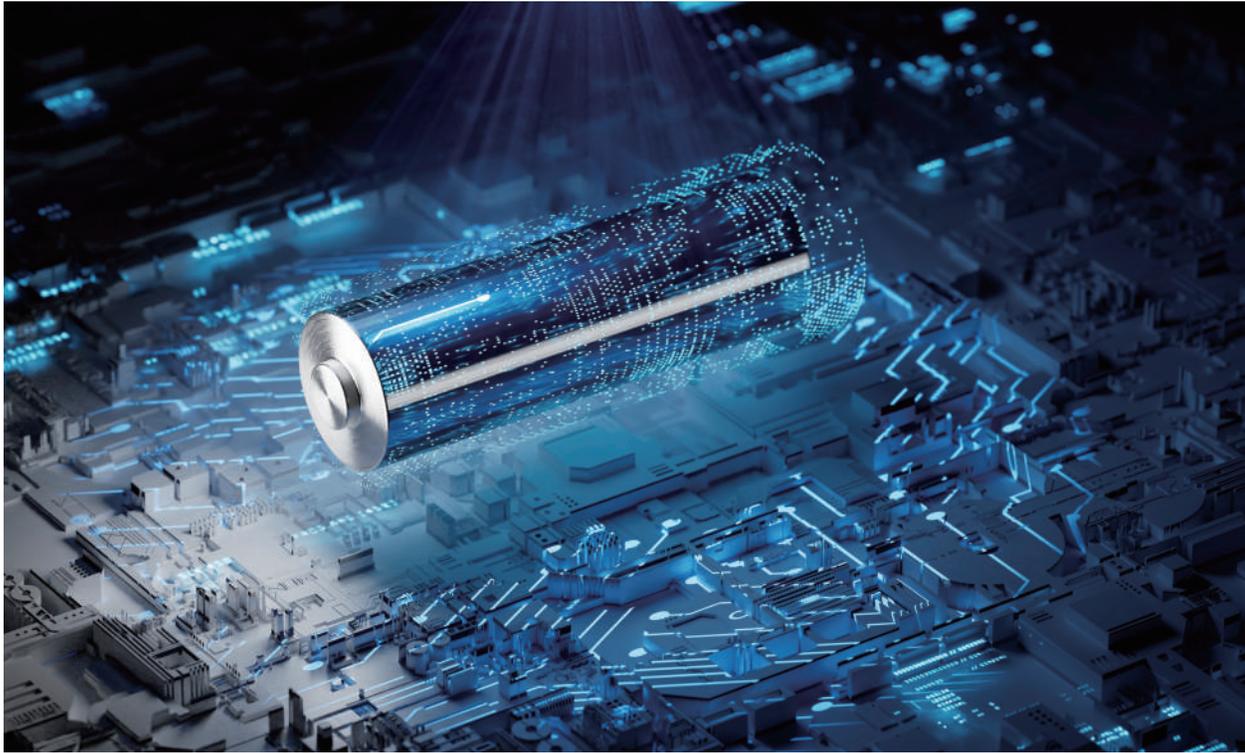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며 2023년 들어 전기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사실상 에너지법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지침이 3월 31일 마련되어 전기차 보조금도 명확해졌다. IRA는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최저법인세 등을 두어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데

주요 국가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

EU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미국 (캘리포니아)
2035년	2025년	2025년	2030년	2030년	2030년	2030년	2035년	20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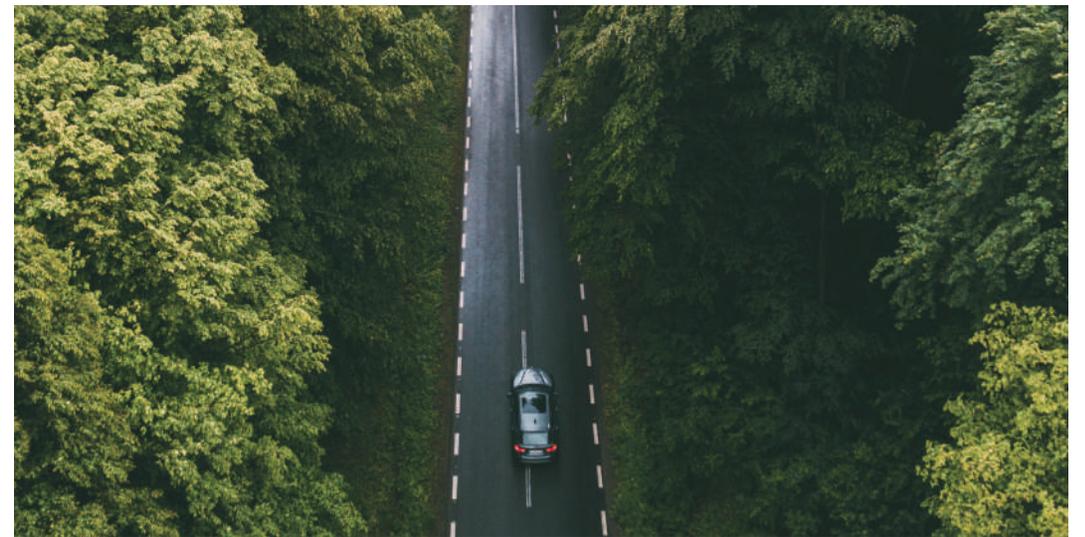
의의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이해된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준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만 해당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를 위한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배터리에 들어간 부품 50%(2029년부터는 100%) 이상이 북미산이면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를 받는다.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의 40%(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했다면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양극재·음극재 활물질이 광물로 분류되면서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양극재·음극재 회사들의 주가는 급등했다. 국내 업체의 경우 반드시 미국에서 양극재, 음극재 등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완화

되었기 때문이다. IRA 세부 지침상 부품은 북미 제조가 필수이지만 광물은 아니다. FTA 미체결 국가에서 채굴하더라도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제조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셀(배터리 완성품) 회사들도 공급망 구축이 한결 용이해지면서 한숨을 놓게 됐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받을 수 있는 누적 세액공제액은 10조 원이 넘는 전망이다. 최근 공격적으로 미국 설비를 증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한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높은 광물 수입 의존도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이다. 둘째, 2023년 들어 중국의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이 폐지되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저장, 산시 등 중국 지방정부들이 신에너지차 수요 진작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는 '수요 확대 및 성장 확대 행동방안'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연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매보조금 정책을 연장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상하이시에 등록된 소형 승용차를 폐차·전출시키고 순수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저장성은 '신에너지차 산업 성장 가속화 행동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을 120만 대(자동차 생산량의 60%) 이상으로 확대하며 내연기관차를 신에너지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북한·러시아·이란과 함께 중국은 안보상 미국의 우려 대상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하자 다양한 변신술이 등장했다.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BYD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리튬의 보고(寶庫) 칠레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중국 4대 배터리 업체인 고선하이테크는 IRA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당당히 등재했다. 독일 폭스바겐이 최대주주라는 점과 스위스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다국적기업으로 변장한 것이 미시간주에서 먹혀들었다. 세계 최대 이차전지 제조업체 CATL은 미국 자동차 업체와 기술 제휴로 IRA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 포드와 테슬라가 IRA 우회 전략을 제공해 CATL과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셋째,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2023년 2월 '탄소중립산업법'을 발표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IRA는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이해된다.



Materials Act' 법안을 지난 3월 16일 발표했다. 순환 경제 기반의 탄소규제인 '탄소 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에 더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제로 대륙'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EU의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와 역내 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자재 가치 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와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했다. EU는 CRMA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에 나선다. 넷째, 세계 리튬매장량 1위인 칠레가 지난 20일 리튬 개발을 전격 국유화했다. 리튬의 세계매장량 55% 차지하는 리튬 삼각지대 칠레-아르헨-볼리비아와 인근 멕시코까지 합세한 '중남미 리튬동맹'이 구체



핵심원자재법(CRMA)

 <p>EU 역내 채굴↑ 핵심원자재 채굴, EU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최소 10% 이상을 목표함</p>	 <p>EU 역내 가공량↑ EU 역내 핵심원자재 가공량 최소 40% 이상을 목표함</p>	 <p>핵심원자재 재활용↑ 핵심원자재의 역내 재활용 비율을 최소 15%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함</p>	 <p>제3국 수입량 제한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EU 연간 소비량의 65%로 제한</p>
---	--	---	---

자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리튬 삼각지대



화되고 있다. 리튬 채취 주도권과 가격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주요 7개국(G7)은 이에 맞서 리튬 등 핵심 광물 과잉 입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구매자 클럽'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볼트, FREYR 등 이차전지 기업과 VW, 포드, 테슬라 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들이 셀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이면서 성장성이 높은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핵심으로 보인다. IRA의 생산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는 선도 기업보다 비용 경쟁력이 열위한 후발 진입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미국 시장이 2차전지 후발 기업들에게 경쟁력 축적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부상하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IRA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리튬 등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자원 확보 경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자원 채취부터 생산에 이르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K-배터리의 미래와 정부 지원

중국의 전기차 부문 기술과 가격 경쟁력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면 이차전지 배터리는 어떨까? 중국 배터리 업체는 자국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한국 업체를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구축한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를 두고 한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IRA 세부지침 완화로 인해 일본·중국 등의 진입 역시 쉬워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광물협정을 통해 FTA 체결국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했다. 중국은 노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 위기인가, 기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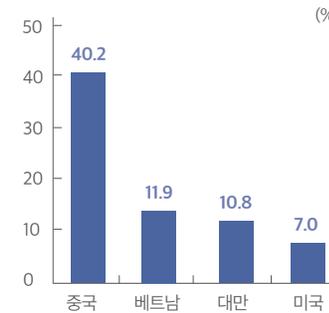


반도체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중 간 갈등이 과거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첨예한 대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최근까지 이어졌던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여기에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빅스텝’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글 박정일 디지털타임스 산업부장



국내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 비중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코로나19로 대두된 공급망 이슈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노골적인 ‘리쇼어링(제조업의 자국 회귀)’ 정책으로 이어졌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당장은 전체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했던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1%대 성장률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과 이에 따른 시장 재편 흐름에서 자칫 ‘실기(失機)’할 경우 한국이 입게 될 타격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 왜 시작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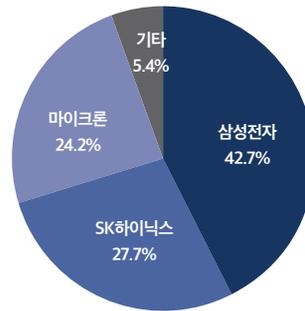
2019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를 일명 ‘수출 블랙리스트’로 올리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5년째 이어지고 있고, 미국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반도체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미국은 일본과 대만, 한국까지 우군으로 영입하는 ‘칩4동맹’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등 반도체 선진국이 보유한 반도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반대로 2015년 시진핑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선포하고 10년간 1조 위안(160조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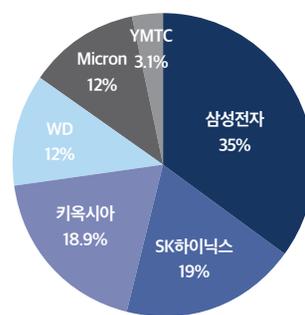
시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지원을 5년 더 연장해 마찬가지로 1조 위안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미 첨단 제조업에서 세계 정상 수준으로 성장한 중국을 지금 견제하지 않으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을 뺏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산업의 ‘쌀’을 넘어 ‘공기’로 부상한 반도체에서 자립하지 않는 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미국이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물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만에 대해서는 견제하지 않는데, 왜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과민반응을 하는지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전략적 동맹국이라는 점도 있지만, 한국과 대만은 미국이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출 위주인 두 나라가 이를 어길 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에는 미국의 힘이 잘 닿질 않는다. 중국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기에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 마디로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장 질서를 전부 무시해도 내수시장으로 버틸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생기질 않는다.

DRAM 기업별 점유율



NAND 기업별 점유율



자료 : VLSI Resear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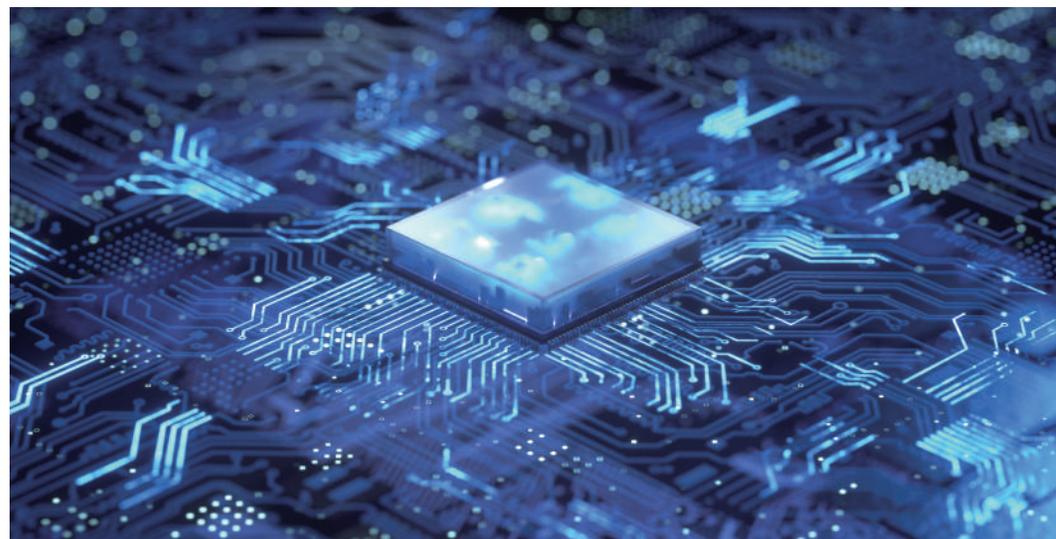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대치를 너무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흑자는 최근 대만 등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한에 치달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종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전반적인 국력 면에서 체급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서로가 잘 알고 있을 터다.

우리는 어떠한 태세를 취해야 할까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손을 잡지 않으면 지금의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등지면 당장의 피해가 극심하다. 통상과 반도체를 잘 모르는 이들은 실리외교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도 말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직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15% 수준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한국산 반도체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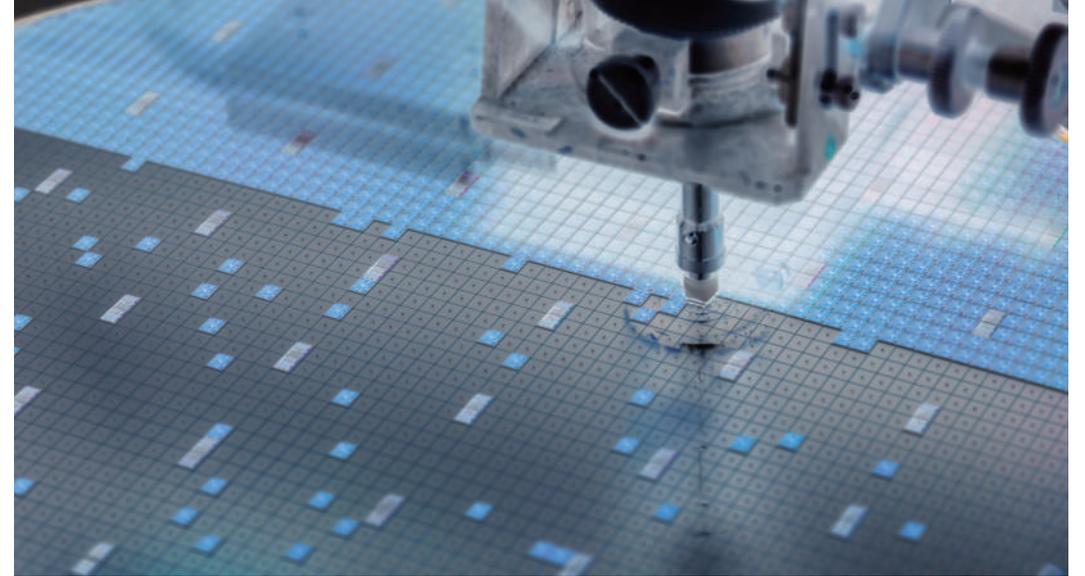
미국은 이미 첨단 제조업에서 세계 정상 수준으로 성장한 중국을 지금 견제하지 않으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을 뺏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산업의 ‘쌀’을 넘어 ‘공기’로 부상한 반도체에서 자립하지 않는 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



받지 못하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아쉬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인데,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점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리쇼어링 요구에 응해 현지에 짓는 공장이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와 R&D 중심인 점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다.

그보다 더 큰 숙제는 미국과 유럽 등의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인데, 이 역시 우려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자국 생산, 자국 소비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소품종 대량생산 구조이고 기본적으로 작아서 거점공장의 위치가 세계 각국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다만 파운드리에서는 주로 자율주행이나 의료용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주문형 시스템반도체가 생산되기 때문에, 수요처와 가까이 있는 것이 나름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은 마중 반도체 패권 다툼과 관계없이 후발주자이기에 밟아야 하는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은 마중 반도체 패권 다툼과 관계없이 후발주자이기에 밟아야 하는 당연한 수순이다.



반도체 시장 회복 시점은?

그렇다면 수출은 물론 경제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시장의 회복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 국내 반도체 기업 모두 최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통상 스마트폰과 서버용이 전체 수요의 40% 안팎을 각각 차지하고, PC용이 20% 수준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생산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서버용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메타 등 북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 이미 상당한 인력을 구조조정했다는 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한 만큼, 다시 공격적인 서버 증설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챗GPT의 등장 이후 IT 업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불붙은 만큼, 예상보다 더 빠르게 메모리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반도체발 경기침체는 정치권에 첨단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해주었다. 이번 위기가 민관이 힘을 모아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기초체력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달콤살벌한 설탕값

Sugar- flation



‘슈거플레이션’이 온다...!

전대미문의 ‘슈거플레이션(Sugar+Inflation)’이란 말이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 생소하기 이룰데 없는 이 용어는 설탕 가격의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한다는 의미인데, 주지하다시피 설탕은 거의 모든 식음료에 들어가는 데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공식품에 꼭 필요한 재료다. 폭등을 거듭 중인 설탕 가격이 인플레이션 전선에 근심을 더하고 있다.

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12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설탕 가격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설탕의 원료인 원당(비정제 설탕)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26.99센트로, 올해 연저점(19.50달러) 대비 무려 38%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7일 한때 파운드당 27.41센트까지 올라 11년 반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설탕의 원료인 원당만이 아니다. 설탕 가격 역시 12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영국 런던 국제금융 선물거래소(LIFFE)에서 백설탕 선물 가격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1당 700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27.0으로 1월(116.8)에 비해 약 9%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원당(설탕 원료) 선물 가격



자료 : 미국 국제선물거래소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최근 6개월간의 변동을 보면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108.6에서 11월 114.4, 12월 117.2로 상승했고, 올해 1월 116.8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2월 125.2, 3월 127.0으로 상승 중이다. 올해 3월 설탕 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지수와 비교해 무려 약 17%p 높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설탕 가격 폭등,
그 원인은?**

최근 수개월간의 설탕 가격 상승은 브라질 등 주요 산지의 이상기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탓이 압도적이다. 전 세계 사탕수수 생산 1위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폭염과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격감했고, 2위 수출국인 인도는 주요 생산지인 중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닥친 폭우 등으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설탕 수출을 제한했으며, 4위 수출국인 태국도 작황이 악화돼 생산량을 줄였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사탕수수 가공장에서 사탕 수수를 설탕 대신 에탄올 생산에 투입한 점도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급이 격감한 대신 전 세계가 '엔데믹'에 접어들며 외식 수요가 폭증한 것도 설탕 수요 증가 요인이 됐다. 문제는 유럽 사탕무 경작지의 여름 가뭄, 5~6월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큰 엘니뇨 등의 요인이 수급 불균형을 지속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치솟는 설탕 가격이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 듯**

상황이 심각한 건 설탕 가격 상승이 단지 설탕 가격 상승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계 설탕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국내 가공식품에 가격 상승분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 자장면, 떡볶이, 김치찌개, 백반 등을 포함한 외식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외식 물가 상승률은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외식물가지수에 설탕 가격 폭등세가
더해지면 외식물가지수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7.7%로 1992년 10.3% 이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외식물가지수는 4월 7.6%를 기록해 전월의 7.4%를 상회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외식물가지수에 설탕 가격 폭등세가 더해지면 외식물가지수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시중에서는 이미 '런치플레이션(Lunch+Inflation)'이란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도 고공행진을 거듭 중이다. 4월 가공식품 가격지수는 7.9%를 기록해 전월(9.1%)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인 빵(11.3%)과 스낵과자(11.1%) 등은 무서운 오름세를 보였다. 인상된 설탕 가격이 본격적으로 가공식품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공식품의 오름세도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슈거플레이션이 물가 하락세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까**

슈거플레이션의 습격이 무엇보다 염려되는 까닭은 정점을 지나 내려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속적인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확실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가 역력하다. 그런데 이런 하락추세에 슈거플레이션의 본격적인 등장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가 4.6% 올라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멀찌감치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근원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없다.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 4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

는데, 이는 직전 월인 2월 당시 상승률(5.1%)보다 하락한 것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한 PCE 지수는 0.1% 상승했는데 이 역시 전월 수준(0.3%)을 하회했다. 문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하면서 월가 전망치(4.5%)를 상회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근원 PCE 가격지수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헤드라인(전체) 지수 상승률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근원 PCE 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연 2%)를 언급할 때 참고하는 물가지수다.

또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3일(현지시간)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공개한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부문 고용은 29만 6천 개가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3만 3천 개)를 아득히 상회하는 것이며, 전월 증가 폭(14만 2천 개)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4월 민간 부문 신규고용은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규모다. 완강히 버티는 근원 PCE와 불가사의할 정도로 견고한 미국의 고용지표를 볼 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드는 건 합리적이다.



ETF 투자자의 세후수익 극대화를 위한 절세 노하우

ETF 세금은 국내상장인지, 해외상장인지에 따라 나뉜다.
국내상장 ETF 투자자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해외상장 ETF 투자자는 22%의 단일 양도소득세 절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글 | 장원정 증권사 대표세무사



국내상장 ETF의 세금 3가지

ETF(Exchange Traded Fund)를 세금의 측면에서 보면, 거래는 주식처럼 하지만 세금은 펀드처럼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ETF 투자를 한다면 ETF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3가지 정도는 투자 상식으로 알아두자. 결국, 내 투자수익은 세후수익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과세방식으로 분류하면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눌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 현물에 투자하는 ETF이고, 기타 ETF는 그 외 상품(채권,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 원자재,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ETF를 의미한다. 두 분류방식으로 나누어서 국내상장 ETF 세금을 살펴보자.

주식의 배당과 같은 개념인 ETF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ETF는 장기투자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면서 지급받는 ETF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국내주식형 ETF : 15.4%의 배당소득(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기타 ETF :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에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났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더라도 한 해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TF 매도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기타 ETF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과표기준가격 증가분이란 ETF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ETF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계산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결국, 둘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 체계라고 볼

수 있다. 혹여나 ETF의 일자별 과표기준가격이 궁금하다면 증권사 HTS나 MTS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상장 ETF 매매 시 증권거래세 현재 '無'

국내상장 ETF 세금 요약표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투자자산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해외주식 등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일반계좌로 국내상장 ETF를 운용한다면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활용한다면 과세가 지연되어 수익을 찾을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만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분리과세 혜택이 존재한다. 이때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3.3~5.5%로 훨씬 적용세율이 적다. 즉,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 노후를 대비하라는 측면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ETF를 ISA계좌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계좌 내에서 손익을 통산한 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가입하면 3년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서민형 ISA계좌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가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연금계좌	중개형 ISA계좌
매매차익	과세이연으로 인출 시 1.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2.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계좌 내 손익통산 후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 후 9.9% 과세
분배금		



해외상장 ETF는 다를까?

해외상장 ETF에 대한 분배금도 국내상장 ETF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해외상장 ETF 매매 시 세금도 국내상장 ETF와 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르다.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보아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 단일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상장주식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의 형평성을 위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2%의 단일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손실이 난 ETF를 같은 해에 양도하여 차익과 차손을 상계시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절세전략이다.

손실을 실현시킨 후에도 해당 ETF를 장기보유할 생각이려면 재매수하면 될 것이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절세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실현된 해외상장 ETF 양도차익 1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 1억 원×22%=2,200만 원

2. 실현된 해외상장 ETF 양도차익 1억 원이 있으며, 현재 미실현 해외상장 ETF 차손이 8천만 원인 경우

· 차손 8천만 원을 실현하여 양도차익 합산이 2천만 원이 되게 만든다.

· 양도소득세 : 2천만 원×22%=440만 원

간단히 차손이 난 주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내었다. 여기서 차손이 났었던 해외상장 ETF가 미래에 가치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면 재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자. 양도 후 재매수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절세는 가져가고, 가치상승에 대해서는 다시 기다림을 통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11~12월에 본인의 1년간 양도실적을 살펴보고, 차손이 난 주식을 어떻게 양도하여 절세할 것인지 계획을 짜도록 하자.



부동산의 미래를 조망하는 '동·선행 지표'

작년 급격한 조정을 경험한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다소 혼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추이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단답형 정답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다분히 인문학적 변수들(매수심리, 정책, 개발 기대감 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는 물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쓰이는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등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절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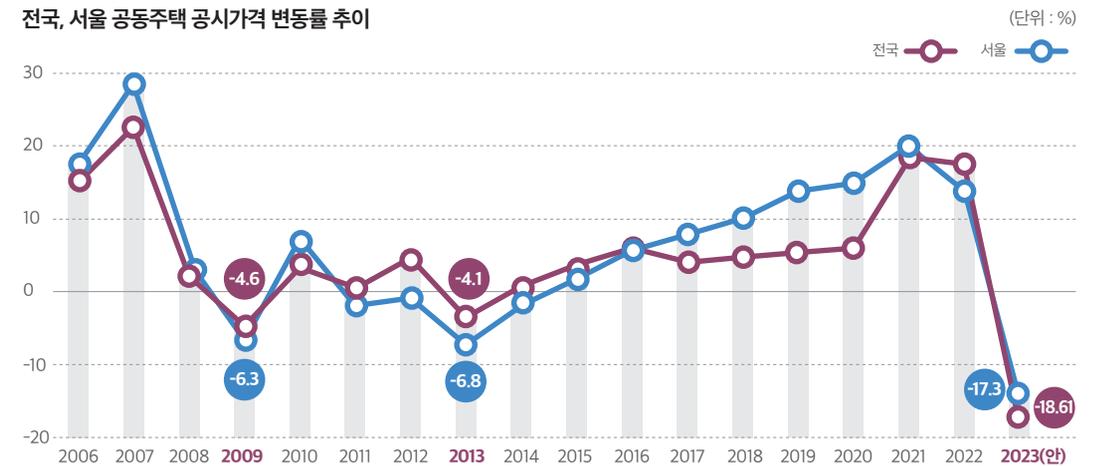
1 Step : 부동산 정책 기초 해석

우선 시장과 가장 높은 밀접성을 지닌 지표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이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혹은 규제 완화) 관점을 옹근하게 펼치고 있다. 근거에는 지난 정부가 규제 일변이었던 이유도 있으나, 금리 충격에 따른 PF 부실과 전세 사기 이슈 등이 터지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 초부터 세금, 대출, 분양, 정비사업 등에서의 규제 해제가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1월에는 서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지역이 해제됐고, 동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풀렸다. 또한, 실수요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무력화하는 특례보증자리론 접수가 시작됐으며 2월에는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이 발표됐다. 3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일부 풀렸으며 4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8% 이상 조정되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 의사결정을 주저했던 수요층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전국,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2 Step : 정부 정책에 단기 반응하는 '동행 지표'

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이에 동반하는 지표들의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정책 외에 대표적 동행 지표는 거래량과 매도물량, 청약경쟁률, 미분양 등이다. 거래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접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 가격움직임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락 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하는 추세를 그린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10월 558건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해 4월에는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아파트 매물량도 점차 줄고 있으며,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0.51% 하락에서 올해 4월 0.27% 하락으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서울에서 시작된 개선 움직임이 서울과 근접한 경기, 인천까지는 영향

을 미치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누적된 대구, 경북 등의 지방 지역까지는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Step : 중장기 관점에서 벌어질 일들은 '선행 지표'

시장을 대표하는 선행 지표에는 전·월세가격과 인허가 및 착공물량 등이 있다. 전·월세가격은 상승 폭이 커지면 시차를 두고 갈아타기 수요가 누적되며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과거 임대차3법이 시행된 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가격도 일정 시차를 두고 오름폭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매매가격도 동반해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빠지는 사이 월세가격은 2~30%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대학가 월세가 70만 원 수준을 넘어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및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R114



선 것처럼 임차인들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착공 및 분양으로 시장에 나온다. 이후 약 3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입주하면서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택 인허가 및 착공물량은 2021년 54~58만 채 수준이었지만 2022년 들어서는 38~52만 채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특히, 신축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는 착공물량이 40%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향후 2~3년 내 신축 입주가 줄어들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까지 2.5만 채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2024년에는 1.4만 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 움직임과 동·선행 지표의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만큼, 경착륙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선행 지표 중 전세가격이 빠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월세가격은 올라 임차 시장 지표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허가와 착공물량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감하고 있어 향후 2~3년 뒤에 공급 불안 재연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22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받은 주요 이유 3가지(가격 부담, 금리 인상, 대출 규제)도 일정 수준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 움직임과 동·선행 지표의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만큼, 경착륙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23년 상반기에 저점을 다진 이후 하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상승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일대는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주택들이 집중된 만큼 2024년까지는 신규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Step : 정책과 주요 지표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인사이트 제시

동·선행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동행 지표 중 거래량과 매도물량, 청약경쟁률, 미분양 수치 등에서 개선세가 확인된다. 즉 정부가 주요 대책을 발표하며 언급했던 거래 정상화와 연착륙 가능성이

무수한 점으로 만들어낸
신비로운 공간

조르주 쇠라 '아스니에르의 물놀이'



<아스니에르의 물놀이>, 조르주 쇠라,
1884년, 캔버스에 유채, 201x301cm, 내셔널갤러리, 런던

런던 내셔널갤러리를 찾는 방문객들은 43번 방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춘다. 이 방에 전시되어 있는 조르주 쇠라의 그림 '아스니에르의 물놀이'는 보는 이를 센 강변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의 세계로 데려가는 듯하다.

글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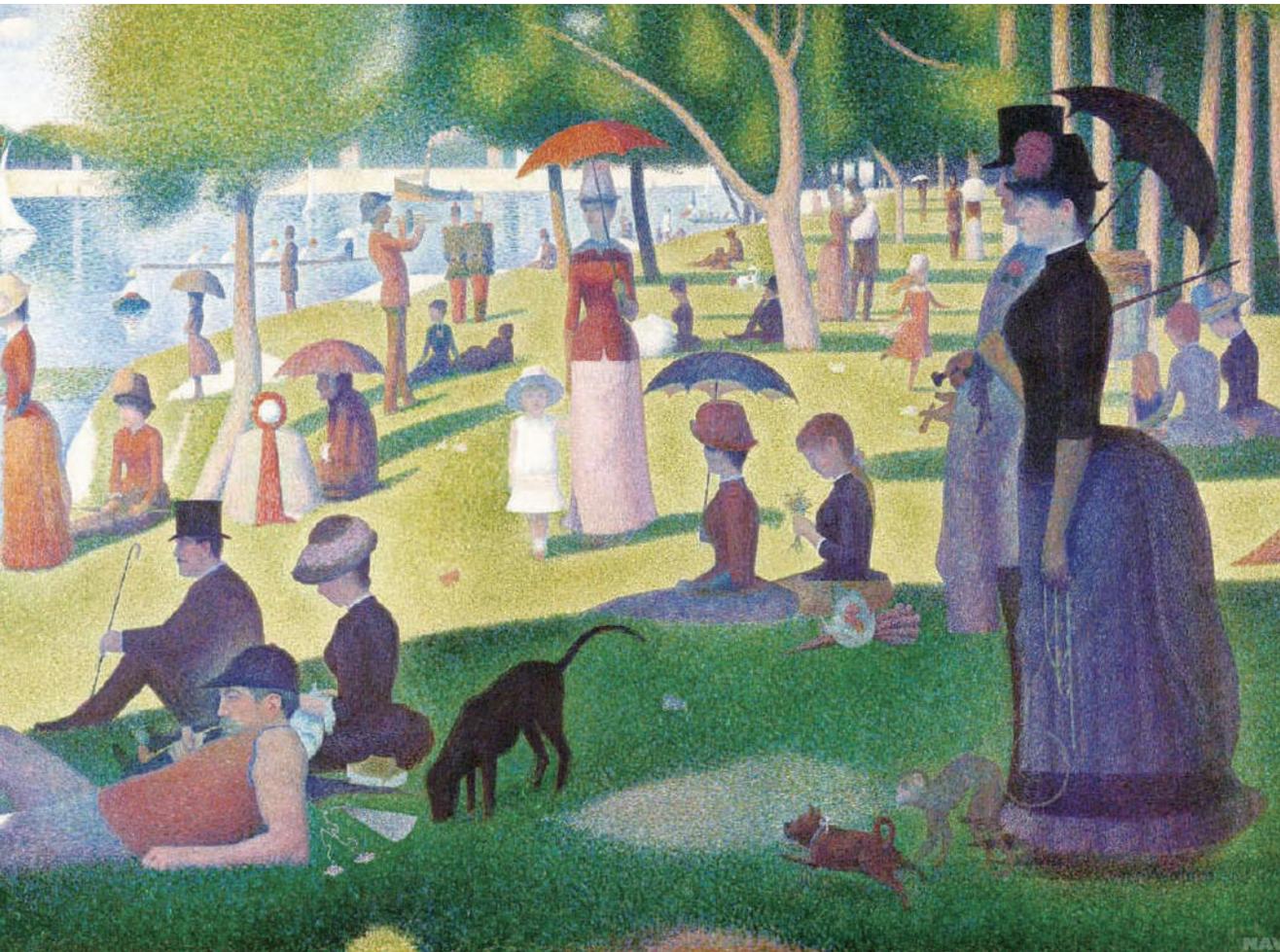
점묘법으로 완성된 쇠라의 그림들

그림을 그린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 1859~1891)는 후기 인상파로 분류되는 화가이고 그가 즐겨 그린 주제들인 파리지앵의 휴일, 센 강의 풍경, 서커스 등은 기존 인상파 화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쇠라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서 혁신적인 기법을 들고나왔다. 그는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어 2차, 3차 색을 만드는 기법을 거부하고 그림의 모든 면을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작은 점으로 찍어서 채워나갔다. 우리가 '점묘법'이라고 부르는 이 기법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듯, 엄청난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완성된 쇠라의 그림들은 가까이서 보면 무수한 점의 조합이지만 멀찌감치서 보면 색점이 서로 섞이며 혼합되어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인다. 팔레트에서 일어나던 색의 혼합이 우리 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쇠라는 점묘법을 사용해 세로 2m, 가로 3m에 이르는 큰 캔버스에 두 점의 대작, '아스니에르의 물놀이'와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렸다. 이 두 작품을 그리는 데에 쇠라는 거의 4년의 시간을 쏟아부었다. 두 그림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풍경이나 사람보다는 묘하게 비현실적인 분위기 그 자체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무어는 쇠라의 그림이 고대 이집트 벽화의 현대판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림 속에 드러난 당시의 사회상

아스니에르도, 그랑자트섬도 19세기 후반 센강의 인기 있는 유원지였다. 파리지앵들은 휴일에 이곳으로 와 수영을 하거나 강변에서 휴식을 즐겼다. 그러나 두 장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아스니에르는 센 강의 왼편에 있는 유원지였고 그랑자트섬은 센강 오른편에 떠 있는 작은 섬이어서 배를 타고 가야만 했다. 그랑자트섬에 가는 사람들은 뱃삯을 내는 데 부담이 없는 중산층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동자 계층은 뱃삯을 낼 필요가 없는 아스니에르를 찾았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차림새가 확연히 다르다. '아스니에르의 물놀이'에는 간편한 복장의 남자와 멀리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이 있다. 반면,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에는 모자와 양산으로 치장한 세련된 여성들과 데이트 중인 연인들이 등장한다. 기묘하게 비현실적인 이 두 그림에서도 경제적 차등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쇠라,
1884~1886년, 캔버스에 유채, 207.5x308.1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미국

‘아스니에르의 물놀이’가 신비롭게 보이는 이유는 비단 이 그림의 독특한 기법 때문만은 아니다. 그림 속 인물 중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남자들인 그림 속 인물들은 잔디밭에 누워 햇볕을 쬐거나, 물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모자를 쓴 채로 앉아서 멍하니 강을 바라본다. 인물들 사이의 리듬감은 섬세하게 계산된 결과임이 틀림없다. 그림 속의 세계는 휴일 오후의 한가로운 시간이지만 표정 없는 인물들은 우울하리만큼 조용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센 강변이 아닌 어딘가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자신만의 고독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쇠라의 작품들

쇠라는 자신이 창안한 혁신적 기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1891년, 쇠라는 불과 서른한 살에 디프테리아로 요절했다. 피사로, 시냐크 등 몇몇 화가들이 점묘법 그림을 시도해 보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내 두 손을 들었다.

쇠라의 죽음과 함께 그의 이름도, 점묘법이라는 기법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는 1930년대 초반, 2만 달러라는 험값에 미국인 수집가에게 팔렸다. 이 그림은 현재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소장되어 있다. 그나마 ‘아스니에르의 물놀이’가 유럽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의 미술수집가인 새뮤얼 코톨드가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코톨드는 내셔널갤러리위원회에 이 그림을 사들이라고 설득했고 이 그림은 1924년 영국으로 건너와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 고흐의 ‘해바라기’와 함께 내셔널갤러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점묘법이 이어진 곳은 엉뚱하게도 산업의 세계였다. 컬러텔레비전 브라운관이 3원색의 색점을 통해 다양한 색을 구현하는 원리는 점묘법과 놀라우리만치 똑같다. 쇠라의 점묘법은 예술과 과학이 만난 지점이며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미술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사건 같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쇠라의 그림이 1880년대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었다는 점이다. ‘아스니에르의 물놀이’의 오른쪽에는 손나팔을 모아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소년이 등장한다. 소년이 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소년이 백사십 년 전 과거가 아니라 아득히 먼 미래에서 온 인물처럼 느껴진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

인터뷰 중 기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그는 수첩을 꺼내 들었다.

“설마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적어두면 쉽게 찾을 수 있는걸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알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 인터뷰 중에서

”

아인슈타인은 메모광으로 유명했다. 그는 메모를 통해 두뇌를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한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은 만년필, 종이, 휴지통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연구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작은 생각도 늘 기록을 남겼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에는 특별한 학생은 아니었다. 스위스 특허국 심사관으로 취직해 일과 이후 혼자 연구를 계속했고, 1905년 비로소 그 결과를 쏟아냈다.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하고, 얼마 후 $E(\text{에너지})=mc^2(\text{질량} \times \text{빛}^2)$ 공식도 발표했다. 이후 이론 물리학에 기여한 공로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순 없지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2023년 <아름다운 은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테마를 선정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호의 테마는 ‘기록’, 아날로그와 온라인의 기록, 연속된 기록의 가치, 다수와 나누는 기록 등을 통해 인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반복되는 루틴의 진짜 의미는 나를 위한 도전



시간과 공간이 확장된 지금의 우리에게, 루틴과 습관을 만들고,
이를 기록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은 열망과 함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글 이원희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시간이라는 자원의 주인이 된 우리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두 가지, 우리는 과거보다 오래 살고, 혼자 산다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혼자’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혼자 산다는 것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또는 히키코모리처럼 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 시대는, 서서히 꿈틀대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디지털의 생활화,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투자 등) 빠르게 움직였다. 물론 변화의 내용을 바꾸거나,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붙게 했을 뿐이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점점 더 혼자 살고, 오래 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여러 방법론이 시도되었다.

회사나 학교 등 제2의 공간으로 물리적인 이동을 하던 사람들이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를 통해 강제적인 집콕을 하게 되었다.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온전히(온종일) 생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공간 이용의 변화가 생기니 시간 활용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근 후의 시간이나 점심시간 정도가 나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모든 시간이 내가 관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주부나 학생도, 여가 생활을 즐기던 은퇴자도 마찬가지다. 어딘가에 오고 가고, 생산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하며 아침·점심·저녁으로 분절된 시간을 쓰던 사람들이 통으로 주어진 시간의 첫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시간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금세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루틴이다.



종교는 가고, 리추얼은 남았다

루틴에 대한 언급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에 루틴은 운동이나 뷰티 등 특별한 영역에서만 쓰이던 운동법 또는 사용법을 지칭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루틴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루틴의 쓰임새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루틴 영역의 확장이다. 가장 많이 증가한 루틴은 모닝루틴, 새벽루틴, 저녁루틴, 수면루틴이다. 우리는 중요한 시간 단위에 루틴을 만든다. 통으로 들어온 시간을 우리 스스로 분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생활과 마음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일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즉 나의 생활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있다.

시간을 통제하고, 습관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어렵다. 누구나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고,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술자리를 갖지 않고 집에 와서 취미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핑계 없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준비되었다. 통제의 방법은 나와의 약속을 리추얼화 하는 것이다. 아침에 해야 하는 모닝 루틴으로는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정리하기, 물 한잔 마시기, 명상하기, 저녁루틴으로는 스트레칭하기, 명상, 감사일기, 수면루틴으로는 음악듣기, 인센스 켜기, 독서하기 등의 항목

Routine

들이 모두 그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자신의 리추얼이 된다. 이러한 의식들, 리추얼들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나의 루틴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나에게 해주는 양식같이 좋은 일들이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서를 살찌울 것이라 믿는다. 자기 계발이 아니라 자기 관리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더 나아진 모습을 요구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들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불안을 줄이고자 한다. 종교의 리추얼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의식을 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불안을 통제하듯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잘 재단하고 통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반자가 있으면 더 힘이 나는 습관 만들기

둘째, 루틴을 행하는 세대의 확장이다. 지금의 Z세대를 휩쓸고 지나간 단어가 있다. 바로 '갓생'이다. 갓(GOD)처럼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산다는 뜻이다. 지금의 10대와 20대는 학업을 중심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쫓개어, 스케줄을 세세히 예측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갓생살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체크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몇 개의 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내일은 더 많은 동그라미를 치기 위해 노력하기 쉬워진다. 사소하다고만 할 수 없는 일상의 일들. 작게는 물 마시기부터 러닝을 3킬로 뛰는 것까지. 나의 성취감과 직결된다.

비단 Z세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지금 새벽루틴과 관련한 대상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바로 4050이다. 4050에게 새벽루틴은 동기부여다.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미라클모닝챌린지는 새벽 4시든 5시든 정해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일찍 모닝 루틴을 실천하는 것을 지속하는 챌린지다. 이를 더 디벨롭 시킨 것이 514챌린지다. 1020에게 갓생이 있다면 4050의 많은 참여를 유도한 514챌린지는 한 달에 14번 이상 5시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인증 챌린지다. 4050 중에서도 특히 '나'를 잃었다고 느끼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나의 발전을 위해 쓰는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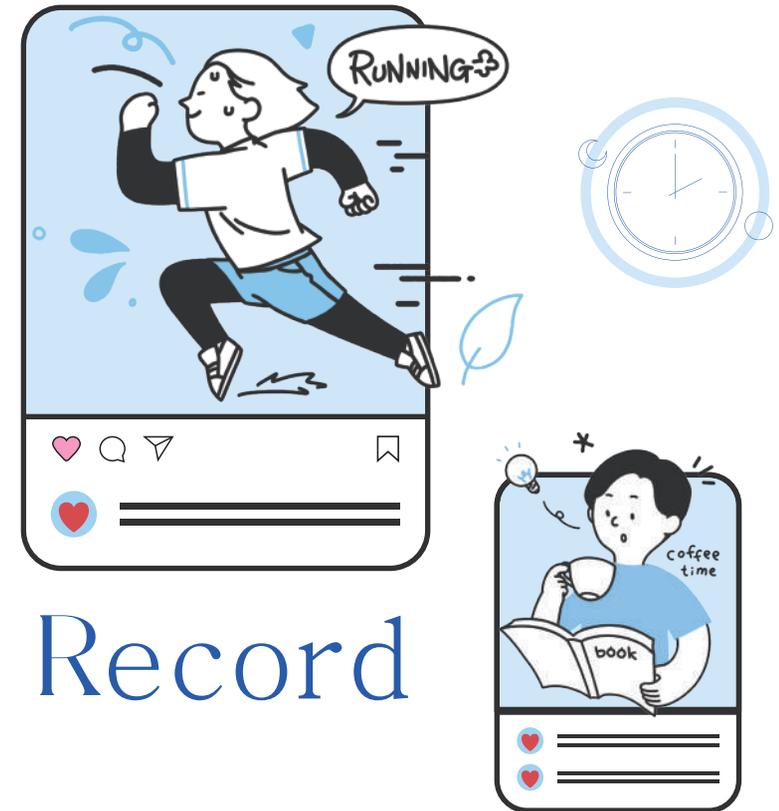
가지게끔 유도하여 인기를 끈 모닝 챌린지 중 하나다. 인생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성장가능성에 대한 열망을 챌린지로 만들어 습관화한 좋은 예시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챌린지 인증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514챌린지의 성공 요소는 나와 동료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의식이었다고 평가된다. 화상으로 새벽 5시에 만 명이 넘게 접속하는 모습을 보여준 514챌린지처럼, 꼭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함께한다. 그리고 동반자가 있다는 것에 힘을 내며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하고 있다.

기록은 나의 도전에 대한 격려이자 위로

셋째, 루틴의 핵심 요소이자 방법론은 기록이다. 모든 도전이나, 루틴이나, 챌린지는 모두 기록될 수 있어야 하고, 기록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도전하고 꾸준히 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낀다. 매일 남긴 기록들은 그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소중한 아카이브가 된다. 매일의 힘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취를 인증하는 방법들로 가장 좋은 것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록이다. 최근에는 블로그가 다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블로그는 벌써 20년이나 된 소셜미디어다. 처음에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이용되던 블로그가 이제는 일기처럼 쓰이고 있다. 사진을 중심으로 나의 기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라면, 블로그에는 자세하게 나의 루틴과 생활을 기록한다. 사진으로 기록하기 좋은 인스타그램은, 런데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오늘의 기록을 바로바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내가 얼마나 꾸준히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전을 지속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나와 의 약속을 공표함으로써, 도전이 힘들더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 나를 향한 스스로의 칭찬이자 격려, 위로이고, 이는 나의 정서와 멘탈관리와 직결된다. 다른 일상의 우울함이나 힘들어 있더라도 매일의 작은 성취감은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혼자 살고, 더 오래 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잘 다독이며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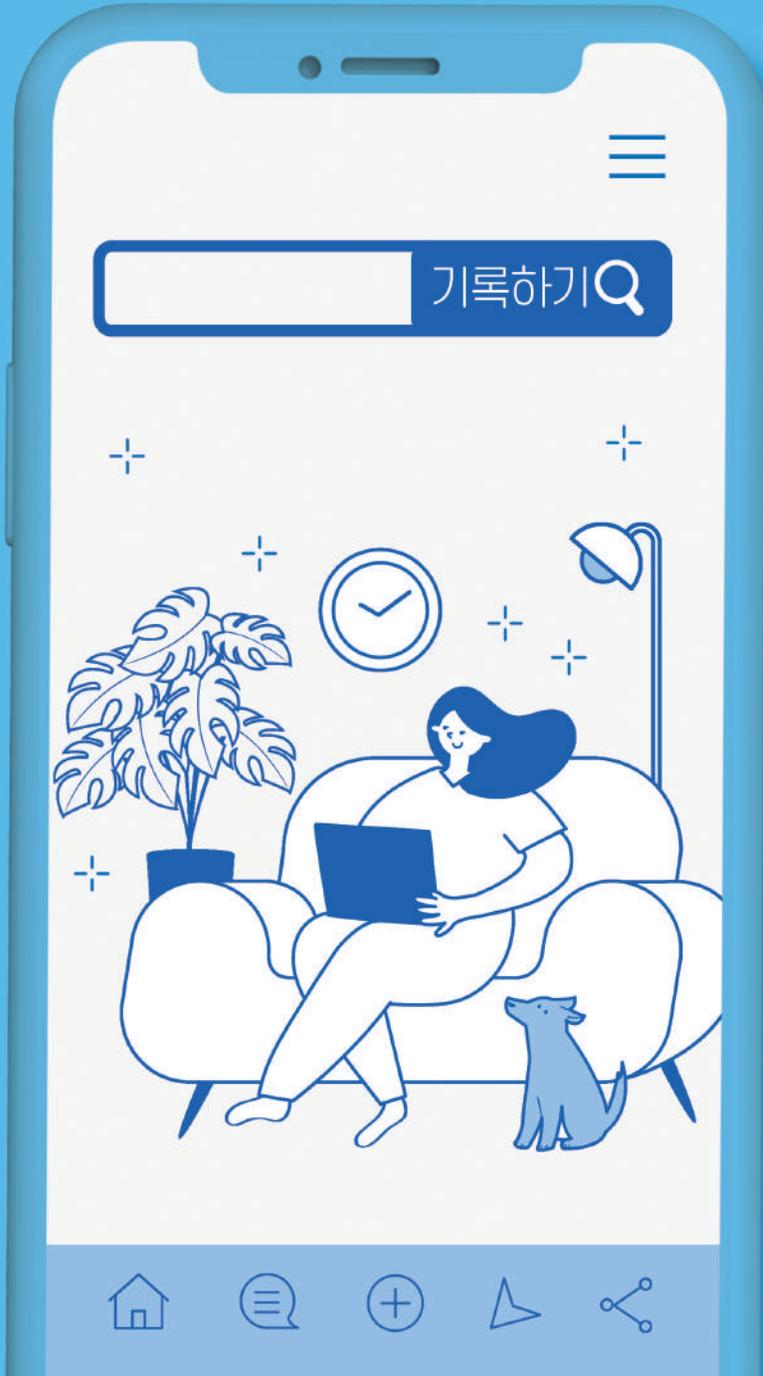
살아갈 것인지다. 루틴을 만들고 기록함은 나에게 내가 주는 격려와 칭찬이다. 전 세대를 통틀어 좋은 습관과 루틴만들기를 통한 도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자기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도전이 비록 사소할지라도, 나의 생활을 더욱 단정히 하고, 나를 관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면, 더 나은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기쁨일 것이다. 이러한 기쁨들이 모여 더욱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닐까.

이원희

「2023 트렌드 노트」, 「2022 트렌드 노트」, 「2020 트렌드 노트」, 「2018 트렌드 노트」, 「2017 트렌드 노트」 공저자.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와 이야기를 읽고 또 읽는다. 일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소중히 하는 라이프스타일 분석가를 꿈꾼다.



당신을 위한 알람이 도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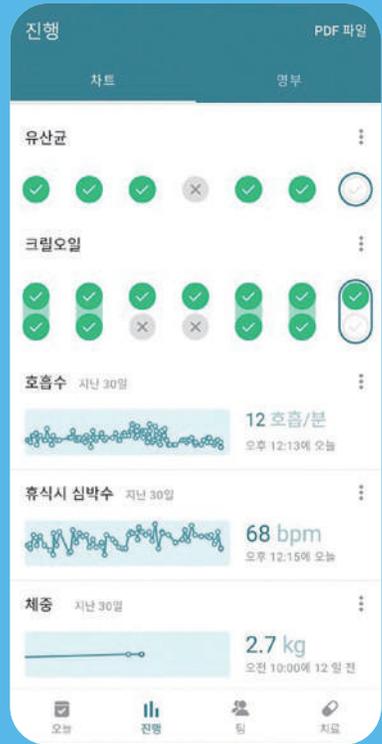
열심히, 꾸준히, 즐겁게 때로는 치열하게

‘나’를 비추는 다양한 앱서비스

과거는 오늘날의 거울이라고 흔히 말한다.
마치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며 상태를 확인하듯
과거의 기록을 통해 미래를 기대하곤 한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나의 과거가 훗날 나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줄지 모를 일이다.
다양한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당신을 도와줄 앱들 몇 가지를 추천한다.

글 편집실





MyTherapy



(위) 나의건강기록 앱
(아래) 건강수첩 앱



약알림 및 나의 건강 관리 케어

MyTherapy

MyTherapy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를 비롯한 독일 내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상을 한 무료 약 알림 및 건강 관리 앱이다. 복잡한 복용 일정에 고민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야 한다면, MyTherapy가 도움이 된다. MyTherapy는 다양한 약 복용 현황, 컨디션 등을 기록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며, 일지 기능까지 겸비해 단순 복용 알림 이상의 역할을 해낸다. 영양제, 비타민제, 경구 피임약부터 처방전, 비 처방전 약 복용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복용(알약, 태블릿, 흡입제 등)을 지원하며, 약품 보충 시기까지 알려준다. 단순한 알림뿐만 아니라 복용 기록도 추적하기 때문에 복용 일지를 확인해 적당량을 알맞게 복용했는지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약을 잊고 건너뛰는 일이 없도록 알려주니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인쇄 가능한 월간 PDF 보고서로 기록을 추적할 수 있으며 주치의와 공유도 가능하다. 유사 기능의 앱으로 '건강수첩', '나의건강기록' 등도 있다.

A WONDERFUL LIFE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질문 다이어리

나를 돌아보고 싶어 일기를 써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오랜만에 쓰려니 어떻게 써야 할지 어색하기만 하다. 하루를 담담하게 정리하는 일기도 좋지만 좀 더 흥미로운 다이어리 앱도 많다. 그중 '질문 다이어리'는 요즘 힘이 되는 세 가지,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 가고 싶은 여행지 등 매일 무작위로 다양한 질문을 건넨다. 답을 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 다른 면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 알림 기능으로 잊지 않고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개인 기록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잠금 기능도 있다.



반려동물 일상 공유 커뮤니티

스몰스 Smols

스몰스(Smols)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기록·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반려동물 배경 레이어아웃과 스티커로 사진과 영상을 꾸며서 기록하며, SNS 스토리도 만들 수 있다. 시 무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뒤죽박죽된 사진첩에서 찾기 어려운 반려동물의 사진과 영상들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도 있다. 또 다른 반려동물 친구들의 스토리를 구경하고 소통하면서 보호자들끼리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해나가기도 한다. '구르미랑' 앱도 인기가 많은데, 반려동물과 반려식물도 기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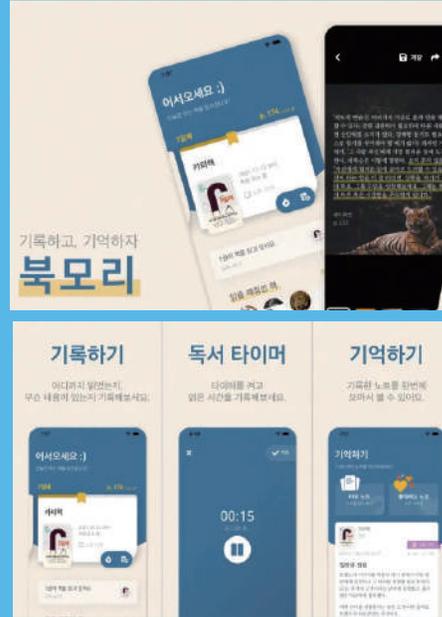
COMTIMING STORY



책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감성 독서 노트

복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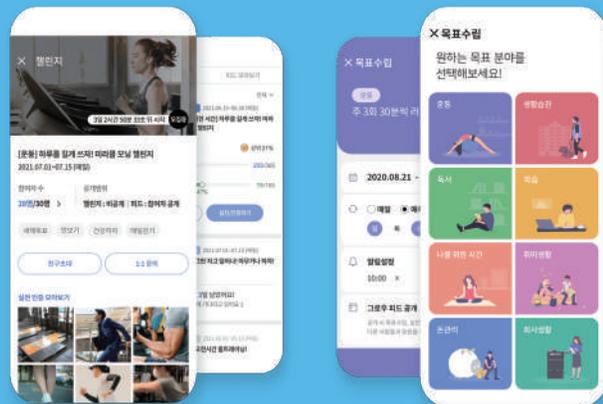
‘복모리’는 독서 목표를 세우고, 독서 노트와 타이머, 달력을 활용해 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 읽은 책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동기를 유발하는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한다. 특히 완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축하 팽파레의 묘한 중독성이 독서를 독려하기도 한다. 또한 사진의 텍스트를 추출해서 노트로 등록하거나 책별 메모 등을 텍스트나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도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한 독서 관리를 콘셉트로 독자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운 ‘복플립’도 인기 있으며, ‘북트리’, ‘북적북적’ 등도 있다.



매일 매일 성장하는 나를 그려봐

그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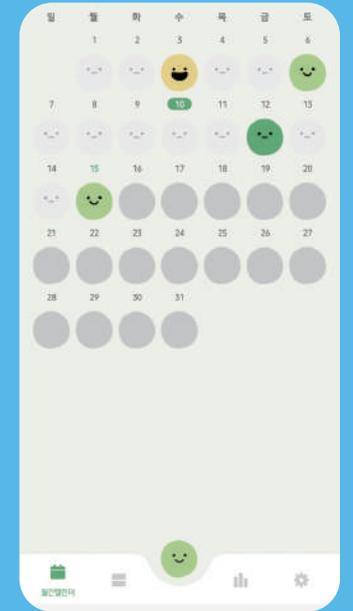
성장관리에 도움을 주는 앱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성장 커뮤니티다. 일상 속 생활습관부터 시간 관리까지 목표 달성으로 내일을 바꾸는 오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향한다. 일상이든 직장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큰 목표를 잡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소확성)와 보상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며 꾸준한 관리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

세줄일기

세줄일기는 처음 일기 쓰기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앱이다. 세 줄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쓰는 것으로 작성한 일기는 책으로 인쇄해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 또 주제에 따라 여러 권의 일기책을 만들 수 있고, 책별로 비밀 일기도 쓰며, 익명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된 일기책은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좋은 글을 나누며 커플일기, 교환일기, 육아일기, 동호회 일기 등 일기로 소통하고, 일상도 공유할 수 있다. 세 줄이 부족한 날에는 ‘숨은 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스티커로 꾸밀 수도 있다.



감정의 하루를 기록하는 다이어리

하루콩

나의 기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별 캘린더 앱이다. 하루콩은 다섯 가지 색과 표정의 기분 콩들로 한 달 동안 나의 기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콩을 클릭하면 그날 남겼던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분콩으로 오늘 하루 나의 기분을 선택한 다음, 알록달록한 아이콘들로 오늘 하루를 요약할 수 있다. 사진 한 장과 한 줄 메모도 추가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록 블록 기능과 주·월별 단위로 기분과 활동을 분석해주는 통계도 체크할 수 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권순재 원장

최근에는 젊은 치매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현재 심장병, 암, 뇌졸중과 함께 '4대 주요 사망 원인'이며, 많은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병'으로 손꼽는 질환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물론 가족과 본인에 대한 기억까지 잊어버리는 슬프고도 무서운 질환, 치매에 대해 권순재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글 강일서 사진 김경수

이번 주제가 "치매 증상과 진단,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의 중요한 초기증상은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만성 성인 질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위축이 일어나며 특히 내측 측두엽이라고 하는 양측 안쪽 면의 위축이 두드러집니다. 이곳에는 해마라고 하는 사건의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화 등 전반적인 손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초기증상은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인 단기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하여 저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

다 보면 치매가 온 시기부터 기억손상이 소급되어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은 비교적 잘하지만 최근 새로 바뀐 주변의 일이나 최근 생긴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초기증상으로는 불안과 짜증이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일에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에 화를 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화를 잘 내며 생활반경이 좁아지며 늘 하던 것만 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치매와 건망증의 가장 큰 차이는 회복 및 쇠퇴 여부입니다. 건망증은 기억력 자체보다는 주의력의 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사건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약속이 있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미세하게 잘못 기억할 수가 있으며, 이때 다시 들으면 그 기억이 떠오르는 재인(Recognit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건망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시 그랬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치매는 일단 돌입하게 되면 회복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의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다가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며, 이때 기억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일정 이상 진행된 경우) 화를 내고 부정하며 자신의 기억을 고집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점차 언어기능 전반, 일상생활 기능 전반으로 기능 저하가 확대됩니다.

크게 알츠하이머 치매 vs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으로서 전체 치매 원인의 50~80%를 차지합니다. 소위 노인성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유전적 요인, 고혈압

당뇨 등의 신체 질환, 음주 흡연, 우울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주로는 뇌의 전반적인 위축과 특히 내측 측두엽의 위축이 일어납니다.

뇌에 아밀로이드 판과 신경판, 신경원성유 매듭 등이 축적되며 65세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악화되나 65세 이전에 유전으로 발생한 조발성 가족성 알츠하이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특정한 혈관질환(뇌졸중, 소혈관 질환)이 선행된 후 이후에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보통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1~3개월간은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오고 혼란 상태에 빠지다가 점차 회복되는데 그래도 이전과 같은 정도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부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다발경색성 치매처럼 한 번에 많은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계단식 손상을 보이지만 소혈관질환처럼 혈관의 끝부분이 손상된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는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상압수두증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뇌척수액의 순환이 저해되어 뇌가 뇌척수액의 압박을 받는 상태로 이 질환에 대한 전문가나 잘 의식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으로 오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표정, 의욕감소, 그리고 자석 걸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바닥에서 잘못 떼게 되는 증상이 특징적이며 V-P shunt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조기 치료 여부, 관리 여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경과의 차이가 크게 나서 어떠한 논문의 경우 치매의 실질적인 말기상태라고 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으로의 전원이 치료 여부에 따라 최대 7~8년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노년의 독립적인 7~8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의 증상 중에서 소위 정신행동 증상이라 불리는 망상, 우울증과 같은 증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로 잘 조절되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치료하는 추세입니다.

치매 완치를 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 및 관리법에 결정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그리고 원장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일찍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퇴행성 질환이 그렇지만 손 데지 않고 놔두는 기간에 점차 악화되며 초기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던 환자 분들도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뇌졸중과 심혈관질환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소 관리할 수 있으며 거의 치료에 준하는 예방법입니다. 혈관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노인우울증의 예방도 무척 중요합니다. 노인우울증은 그 자체로 치매의 증상이기도 하며 치매의 치료 가능한 강력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약물 처방에 절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지역, 고소득자 지역일수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친화도가 높은 편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우울증 등을 방치하면서 더 큰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Sarcopenia(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량의 증가와 인지기능의 보존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소 예 근력 운동 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사회 활동을, 일상생활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저는 치매 환자분에게 무슨 문제를 풀거나 작업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친구, 가족과의 약속, 운동 등 사회 활동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과 진료를 승패로 보자면 내과는 환자가 죽으면 의사가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신과는 좀 다릅니다. 환자가 살아있어도 의사는 지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 활동을, 일상생활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당신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작년에 개원하시면서 의료인생 2막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병원 운영 비전 또는 앞으로의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정신건강의학과 의 모토는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 문화, 사회의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유교적 문화, 장유유서 등의 서열적 문화, 강박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많은 사람을 짓누르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경쟁적이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소외되기 쉬운 각박한 사회. 또한 사람들의 기준도 높은 편이라 역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실패했다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관념, 의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도그마,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그렇기에 정신은 자신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란

사회의 완벽하고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와 스스로의 행복 사이에서 잘 조율하며, 자신의 다양한 면을 발견하고, 긍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 개인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권순재 의사

- 현. 당신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전. 인천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및 치매전문센터장
- 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임상강사
- 전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졸업
- 전북대학교병원 수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취득
- 작가 및 라디오 등의 방송 활동 중
- 대표 저서, 『약한게 아니라 아팠던 것이다』, 『이제 독성관계는 정리합니다』

단계별 치매 증상 살펴보기

초기	중기	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주변 도움이 필요 · 최근 기억의 저하, 먼 과거의 기억은 유지 · 시간, 공간은 잘 인식 · 경미한 언어장애(단어 찾기) 발생 ·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회피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필요 · 최근 기억 금방 소실, 먼 과거 기억도 저하 · 시간 공간 인식 저하 · 언어 표현과 이해가 저하 ·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전적으로 주변의 도움에 의존 · 대부분의 기억 소실 · 사람 인식 저하 · 언어 표현과 이해가 제한 · 행동증상 빈번하나 중기에 비해 감소 · 신체 및 운동증상 출현 (대소변실금, 보행장애, 경직)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기 YES or NO

Q. 치매는 일단 걸리면 약도 없고, 불치병이다? No.

조기발견의 경우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고, 조기 치료의 경우는 예후에 병이 있냐 없냐 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Q. 잘 못 듣고, 냄새 못 맡고, 입맛 변했다면 치매 초기다? Yes.

감각기관의 변화는 치매의 원인 또는 초기증상 중 하나일 수 있다. 또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Q. 치매는 가족력과 유전력 영향이 크다? Yes.

가족력을 보이는 치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치매의 위험요소가 유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 요소가 있는 분들은 미리 검진받는 것도 좋다.

Q. 고스톱을 많이 치면 치매가 덜 걸린다? Yes.

하지만 고스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스톱이든 다른 오락이든 그만큼의 지인,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Q. 술 마시고 필름 자주 끊기는 사람은 치매 쉽게 온다? Yes.

Black out은 술을 먹고 뇌의 손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

Q.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치매가 쉽게 온다? No.

치매와 건망증이 절대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 초기증상은 매우 구분하기 어려워져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거나 하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Q. 잠꼬대 심한 사람은 치매가 오기 쉽다? Yes.

심한 잠꼬대나 수면 중 움직이는 양상이 특정한 치매나 퇴행성 질환의 초기증상이 올 수 있으며 낮은 수면의 질, 수면 무호흡증은 치매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



은퇴 세대를 위한, 해외 주거 유형 토크아보기*

*토크아보다 살살이 더듬어 나가면서 살피다.

중장년이 되면 은퇴나 자녀의 독립,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거주 위치나 환경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나 관련한 고민이 스멀스멀 올라와도 결국 '늘 젊고 건강한 상태'만 떠올리며 사회의 잣대에 맞춰진 집을 고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은퇴 후의 집을 고려 중이라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의 난제를 마주한 해외에는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는지 살펴보자.

글 문혜진 이투데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자



파스텔 컬러가 돋보이는 유럽의 임대 아파트 전경

따로 또 같이, 코하우징

코하우징(Co-housing)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해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파됐다. 공유주택, 집합주택, 컬렉티브 하우스로도 불린다. 공동생활 시설과 소규모 개인 주택으로 구성돼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다. 한집의 모든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와 달리 침실과 같이 개인 공간은 보장받으며 거실, 주방 등을 나눠 쓰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거주하게 될 입주인이 주체가 되어 그룹을 형성한 뒤 지방정부, 건축가, 은행 등과 협조해 설립한다. 코하우징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은 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덴마크의 ‘미드고즈그룹펜 코하우징’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공영주택회사 라이에보에서 지은 560채의 아파트 중 5층 아파트 단지 4개 열을 개조해 만들었다. 대부분 1인 가구가 거주한다.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에 공동 거실, 식당, 회의실, 부엌, 창고가 있는 코먼하우스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거주민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섯 가구로 구성된 ‘토네방스고든’은 코펜하겐 근교인 비케르데에 있다. 대중교통과 공립학교까지의 거리가 15분 내외이며 자연환경을 부지 구입 당시와 거의 흡사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건설했다. 단지 내부에는 안뜰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개별주택이 배치된 구조라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주차 공간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오가며 자연스레 마주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덴마크에는 노인 주택과 청년 주택이 조화롭게 배치된 ‘깁에모스고어 코하우징’, 공장건물을 개조해 만든 ‘에른스토베리에’ 등 다양한 코하우징 단지가 있다. 더불어 스웨덴 알링서스의 ‘샤프테넨 코하우징’은 건물 1층에 치매 노인용 임대형 그룹홈이 있고, 2층에 개인소유의 코하우징이 있다. 코하우징 거주민과 그룹홈 거주민들 간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의 형태가 타원형으로 조성돼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치매그룹홈을 이용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은 코하우징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일본에는 코하우징과 유사한 세대 결합 주택,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가 있다. 도쿄 아리카와구에 위치한 ‘캉캉모리’는 노인 시설과 보육원이 함께 입주한 12층 건물의 2층과 3층에 있다. 이곳에는 유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살고 있다. 공용 주방과 식당, 게스트룸 등이 있으며,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거주자들의 몫이다. 사람들

은 일주일에 몇 번씩 공동 식사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공동 식사는 월 1회 당번제로 거주자 몇몇이 낱을 정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 일부를 공유하는 식이다. 아이들은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노인들은 아이들 덕에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어 세대 교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우리나라에서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돌봄이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보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획일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인식 탓에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늘었다. 이와 달리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에 치매를 겪는 이들을

코하우징(Co-housing)은 공유주택, 집합주택, 컬렉티브 하우스로도 불린다. 공동생활 시설과 소규모 개인 주택으로 구성돼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다.



위한 ‘호헤베이크 마을’이다. 중앙정부와 지역 기관들의 협조, 치매 요양 전문 간호사의 아이디어로 2009년에 시작됐다. 1만 2,000㎡ 규모에 영화관, 카페, 마트, 헬스장, 레스토랑, 미용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거주 시설은 치매 환자 개인의 삶과 취향을 조사해 일곱 가지 인테리어로 지어 선택하도록 했다. 아기가기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공방, 음악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클래식 감상실도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250여 명의 간병인·의사·요양보호사·직원 등이 마을 곳곳에 상주한다. 이들은 평소 슈퍼마켓 직원이나 미용사 등으로 생활하다 환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선다. 마을 주민들은 함께 모여 요리하고, 사교 행사를 열고, 장도 본다. 치매 환자의 일상 수행 능력은 최대화하고 간병인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정신이 흐릿하고, 손과 머리를 떨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어도 일반 요양원처럼 중일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아도 된다. 치매 등급을 받은 입소자들은 개인 형편에 따라 한 달 최소 500유로(약 64만 원), 많게는 2,500유로(약 322만 원)를 정부에 내면 된다.

미국은 은퇴 후 펼쳐질 인생 2막의 고민을 덜어줄 주거 옵션이 세분화돼 있다. 건강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active adult community)와 독립 생활공간인 인디펜던트 리빙(independent living),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장년을 위한 어시스트 리빙(assist living),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춘 라이선스드 리빙(licensed living)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은퇴 도시인 선 시티(Sun City)는 2만 6,000가구, 4만 명이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립대가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골프·수영 등 스포츠 시설, 병원,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네덜란드 호헤베이크 마을의 일상 Hogeweyk Dementia Village. ©DVA



은퇴 전 이사 고민 해결할 단기 거주

시끄러운 도심을 뒤로하고 농촌이나 소도시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면 ‘다거점생활’을 고려해보자. 일본에는 일정 금액을 내면 전국 곳곳의 빈 주택을 골라 살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이를 ‘주거를 구독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한달살기’와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한곳에 오랜 기간 머무르기보다 필요나 희망에 따라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다거점 생활플랫폼 ‘어드레스(ADDress)’는 지자체와 함께 자연과 역사가 풍부한 지역의 빈집들을 개조해 현재 전국 50여 곳 이상의 거주지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월 4만엔(약 45만 원) 이외에 회원 등록비, 입회비 등의 추가 비용 없이 최대 한 달까지 머물고, 다른 지역의 집으로 옮길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등 동반자의 이용료는 무료다. 더불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주택에 ‘야모리(家守)’라 불리는 생활교류 서포트 스태프가 있다. 야모리의 중개로 주민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향후 이사를 왔을 때 지역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드레스는 빈집을 활용해 생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돕는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집을 방치하던 집주인도 어드레스에 공간을 대여해주면 임대수익을 제공받게 되고, 야모리들 역시 2~5만 엔의 수고비를 받으며 생활에 보탠다. 이외에도 도쿄 내에서 특화된 ‘크로스 하우스(XROSS HOUSE)’,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집을 구독할 수 있는 ‘하프(HafH)’ 등도 주거 유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만능은 아니지만

퇴직연금 계좌(DC·IRP)를 보유한 사람들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지정에 대한 안내를 예외 없이 계속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또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나의 퇴직연금 운용 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자.

글 하준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Default O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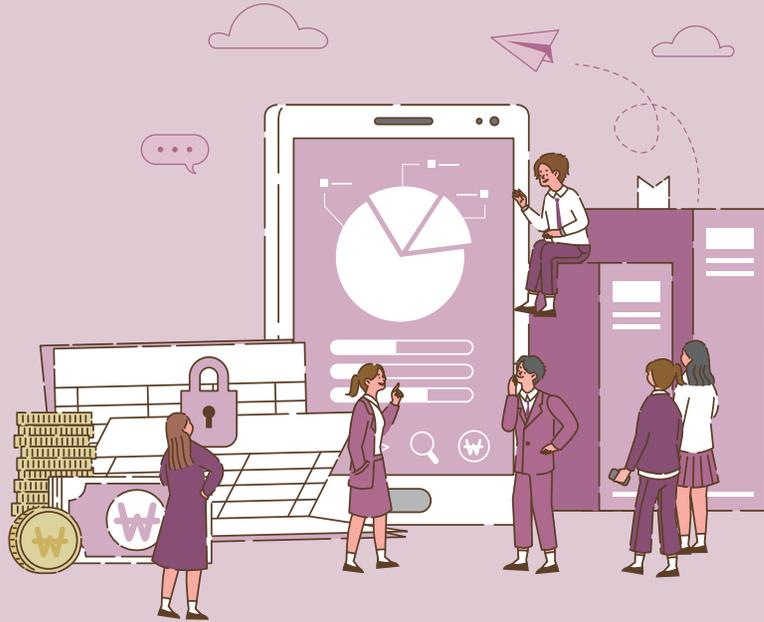
디폴트옵션은 최소한의 보완 장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에서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 시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정해 놓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이 300조 원을 넘어선 규모로 성장했지만, 연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이 대부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운용상품을 투자상품으로 유도하여 장기수익률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사전에 알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금전상의 불이익은 없다.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령 시행일인 2022년 7월 12일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이후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 시 현금성 자산으로 편입되어 운용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이 우수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 가입자(DC·IRP)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일정 기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에 편입된 투자상품의 비중에 따라 위험도 및 수익률이 차이 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TDF와 디폴트옵션 기본으로 설정해야

다음으로 디폴트옵션에 대한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기존 상품의 운용이 달라지는가? 그렇다. 만기 상품은 지난 7월 1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부터 자동 재예치는 불가능하고, 만기가 된 상품의 자금은 현금성 대기자산, 즉 은행의 보통예금(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가입 가능한 상태로 이자가 적은 상품) 성격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전에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해 만기가 되면, 동일 상품으로 같은 기간 자동으로 재투자자가 됐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지정은 사전에 해 놓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정기예금의 이자만큼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펀드만 투자하는 기존 가입자도 디폴트옵션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가? 그렇다.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 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예외 없이 미리 선정해야 한다. 다만,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였다더라도 만기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 즉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를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금융기관에서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라고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기존의 퇴직금 운용을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정기예금으로 구성된 '초저위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기 상환자금이 투자되지 않아 남아있을 때도 최소한 정기예금 금리만큼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운용실적이 검증된 투자상품을 1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비율을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사의 경우 펀드가 편입되지 않는 '초저위험 옵션', 펀드의 비중에 따라 '저위험 옵션, 중위험 옵션, 고위험 옵션' 등으로 구분해 디폴트옵션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운용하고 있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옵션을 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TDF, 디폴트옵션 지정은 기본인 셈이다.

최근 TDF(Target Date Fund) 상품도 뜨고 있다. TDF는 목표연도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높여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해 주는 펀드다.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TDF는 대부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나라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펀드 이름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펀드 명에 '2040' 표시가 있다면 그 의미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2040년으로 정하고 주식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용하다가 은퇴 시점이 되는 2040년이 될 때까지 주식 비중을 30% 수준으로 서서히 낮춰 포트폴리오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운용전략이다.

앞서 살펴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투자자가 상품 운용의 공백이 발생해 방지될 위험을 보완해주고자, 상품운용을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한편 TDF는 수많은 상품군 중에 투자자가 매번 상품을 정하기 어려우니, 글로벌 지역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은퇴 시점에 다가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전략 상품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수

따라서 TDF와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투자자가 운용되는 상품 전체를 정확히 알고, 매번 본인의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다면 필요 없는 제도다. 하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등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가능 상품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산운용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지정과 TDF 운용은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평균적으로 수익률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고, TDF를 일정 부분 운용한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금 보장, 또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리밸런싱(비중조정)이다. 어느 금융기관, 누구도 나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을 나의 투자성향에 맞게 제대로 지정하고, 운용의 일정 부분은 TDF로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상품점검 및 리밸런싱하는 것이 바람직한 퇴직연금 관리 방법이다.

“뭘 먹고 살지?” 은퇴 보릿고개 넘는 3가지 비법

⋮

매달 월급을 주던 직장을 그만둔다. 가진 재산이라고 집 한 채. 국민연금은 10년 뒤에나 받는다. 50대 중반이 되면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다. “퇴직하면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아둔 재산이 없다면 퇴직 후엔 빈곤 노인,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예비 은퇴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3가지 키워드를 소개한다.

글 이경은 조선일보 테크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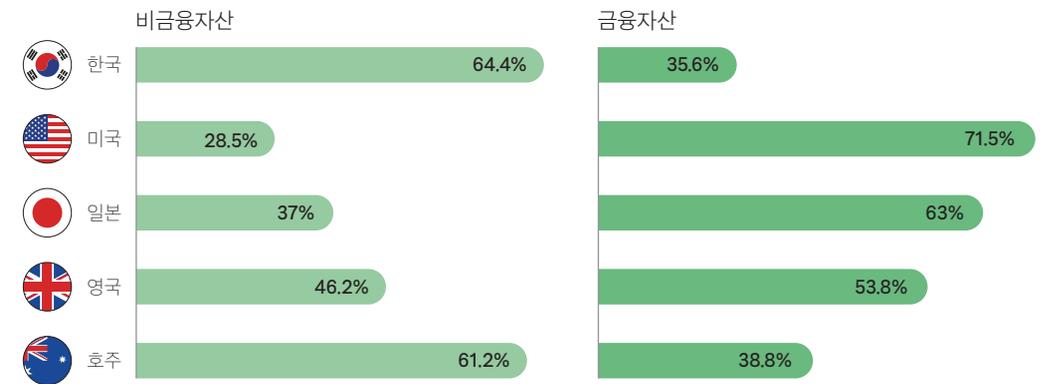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연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노후에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연금 중심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다. 만약 퇴직 후에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연금이 부족해지면 그땐 노후 파산 위험이 닥친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연금(보험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그쳐 주요국 대비 최저였다.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 2021 기준. 단위: %



하지만 노년기 삶의 여유는 깔고 앉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법이다. 늙어서 현금이 나오지 않는 부동산은 영양가 없는 덩어리 자산일 뿐이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자산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몰려있다면 노후 준비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만약 은퇴 후에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만 쏠려있다면 세금과 관리비 부담만 클 뿐이고,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진다.

보유 자산의 연금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개인형 퇴직 연금(IRP)이 세액 공제 혜택에 과세 이연 효과까지 있어 유리하다. 운용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히지도 않는다. 단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땐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하고, 수령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2023 달라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총 급여 (종합소득금액)	납입한도	세제 공제율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900만 원	16.5%
5500만 원 초과(4500만 원)		13.2%

직장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 연금을 더 쌓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절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작년까지는 연 7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나 소득 상관없이 연 900만 원이다.

이렇게 올해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한다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무계획 소비 습관은 버려라

“느닷없이 닥친 퇴직과 은퇴. 닥쳐 보면 평소 생각하곤 영 땀판이다. 정말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직장인의 돈과 인생은 은퇴를 전후로 색깔이 바뀐다. 현역 시절에는 회사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그 돈으로 생활하니까 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퇴 시점이 임박해 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략 현재 생활비의 70~80% 정도만 쓰고 살면 되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은퇴 전까지 자녀 지원을 최소화하고 집 평수를 줄이는 등 대책을 찾아야 한다.

소득 공백 시기에는 고정 생활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출이 줄면 준비해야 하는 은퇴 자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이때 절약 기준은 ‘건강’이다. 건강에 지장이 되지 않는 비용부터 줄여나가면 된다. 식비를 아끼겠다고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안방에서 추위에 떨어야 한다면 건강이 나빠져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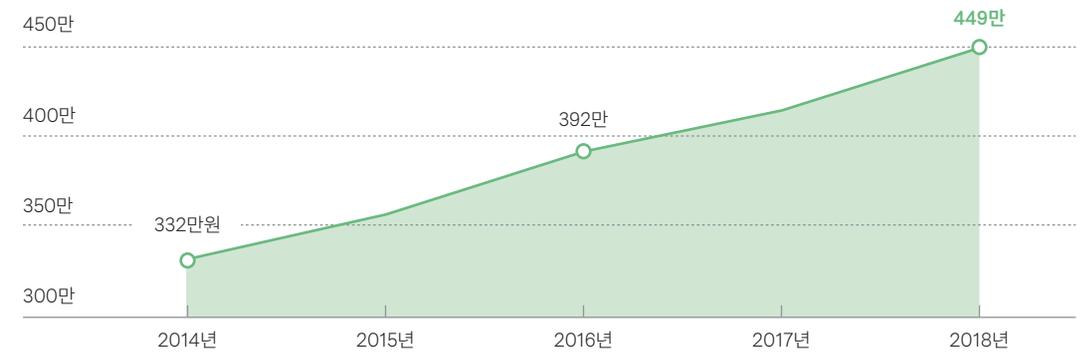
통신비가 가장 절약하기 쉬운 항목이고, 의류비나 취미·오락비용도 아끼기 쉽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 캘리그라피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으

면서 시간은 많이 소요되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반면 식비와 수도·광열비, 교제비 등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무리하게 아낄 필요는 없다.

퇴직하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플 때를 대비하고 싶다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들은 만기가 75~80세로 짧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100세 만기 상품도 많이 나오지만, 예전엔 75~80세가 보통이었다. 보험 만기가 길지 않다면, 소득 절벽을 버티기엔 불안하다.

의료비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또 한 번 발생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만약 가입 중인 실손보험 등 보험 상품 만기가 75~80세로 짧다면 더 늦기 전에 만기가 긴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보면 좋다. 의료비는 우상향 곡선, 노후 자금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대략 72세 시점에 교차하게 되는데, 72세 이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해서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보험 만기를 충분히 늘려 대비하는 것이 낫다.

점점 늘어나는 1인당 진료비 65세 이상 기준. 단위: 원



※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

다만 보장 내용이 예전보다 나빠졌거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 불리할 수 있으니 갈아타기 전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보험 통합 조회 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에서 보장 대상 질병과 보장 금액, 만기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암과 치매는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닥친다. 이 경우엔 간병 비용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출구 전략을 짜라

퇴직자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실감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건강보험증'을 끊는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새 건강보험증이 자택으로 배달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3.5% 정도만 내면 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담이 7.1%까지 증가한다.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었힐 수 있다면 좋지만, 작년 9월 건강보험공단 이 제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유지 조건(소득 기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을 대폭 강화해서 힘들어졌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크게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자. 최대 3년간 이전부터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준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중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퇴직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 납부 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퇴직 후 다음 달에 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부담하던 보험료보다 높다면, 주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안

분류	종전	개편
직장 가입자	월급 외 소득(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2000만 원 초과시 추가보험료
피부양자	연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어 직장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1인 법인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내가 스스로 법인을 세우고 나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법인 대표로서 월급을 받으니. 직장가입자가 된다. 1년 이상 법인을 운영해 보고 폐업하더라도 향후 3년간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과거 직장가입자일 때 냈던 건강보험료는 유지할 수 있다.

반짝반짝 눈부신 한 땀 보석십자수 DIY

십자수 하면 실과 바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더 안전하고 반짝거리는 보석십자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석십자수는 여러 색깔의 보석 비즈를 도안에 표시된 위치에 맞춰 전용 펜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붙여 형태를 만든다. 과정이 간단해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도 하기 쉽고, 기본 도구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도 여러 가지다.

글 편집실

Jewel cross stitche



보석십자수란?

보석십자수는 보석이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십자수 작품을 만드는 공예 작업이다. 보석십자수 작품은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으며, 종이, 천,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에 적용할 수 있다. 십자수 패턴에 보석을 추가하여 작품에 광채와 독특한 미적 요소를 더한다. 보석십자수 키트는 시중에 기본 캔버스, LED 캔버스, 시계형 등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원하는 도안을 주문해서 나만의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이 취미생활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완성된 작품은 벽걸이 장식이나 선물로 사용된다. 디자인의 크기와 난이도에 따라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창작의 즐거움과 완성 후 높은 만족감으로 점차 단계를 높여가며 DIY 작업에 빠져들게 된다. 펜에 비즈를 옮겨서 칸칸이 붙이는 작업으로 단순하지만, 꽤 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중간중간에 눈과 목 등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잠깐씩 쉬거나 눈 마사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보석십자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바늘과 실, 비즈, 스팅글 등을 이용한 고난도의 프랑스 자수 기법의 하나인 루(뤼)네빌 자수(탕부르 자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루네빌 자수는 더욱 정교하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기법으로 캔버스 액자는 물론, 핀이나 브로치 등 작은 액세서리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티셔츠나 들고 다니는 가방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보석십자수 공예 용어 알기

• 비즈·보드라운드(Beads)

작품에 사용되는 작은 구슬 형태로 된 플라스틱의 보석 재료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비즈를 사용하여 작품에 광채와 텍스처를 추가할 수 있다.

• 크리스털(Crystals)

작품에 사용되는 투명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광택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털은 작품에 화려하고 반짝이는 효과를 더해준다.

• 캔버스·프레임(Canvas-Frame)

작업 중인 십자수 작품을 잡아주거나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며,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에 맞춰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패턴(Pattern)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십자수 디자인이나 그래프다. 패턴은 다양한 비즈가 추가될 부분을 지시하고 색상과 스티칭 방향을 나타낸다.

• 스티칭(Stitching)

십자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실을 사용하여 십자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십자수 작품에는 다양한 스티칭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 백스티칭(Backstitching)

주로 디자인의 외곽선이나 세부적인 디테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스티칭 기술이다. 십자수 스티칭과는 다르게 더욱 선명하고 정교한 선을 형성한다.

• 키트(Kit)

보석십자수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포함된 패키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키트에는 십자수 도안, 캔버스, 보드라운드 또는 크리스탈, 고체펜, 팬, 트레이 등이 포함된다. 요즘 보석십자수 DIY 키트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키트 제품을 많이 이용한다. 가격대는 5,000원부터 비싸게는 20만 원까지 다양하다.

보석십자수 공예 준비물 및 주의사항

[준비물]

- **보석 비즈**
다양한 크기, 색상, 형태의 보석 비즈를 준비한다. 보석 비즈는 유리, 플라스틱,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
- **십자수 패브릭**
십자수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패브릭으로, 일반적으로 카운트된 패브릭을 사용한다.
- **트레이**
트레이에 사용할 만큼의 적당량의 비즈를 담아둔다. 색깔별로 구분해 작업하는 것이 좋다.
- **펜**
고체 풀과 보석을 펜에 찍어서 패브릭에 하나씩 붙일 때 사용된다. 보석 하나씩 붙이는 1구 펜부터 5개를 동시에 붙이는 5구 펜 등이 있다.
- **고체풀**
전용 펜을 고체 풀(접착고무)에 찍었다 빼면 펜촉 안으로 고체 풀이 들어가면서 비즈를 붙여 옮기는 풀 역할을 한다. 캔버스의 정확한 위치에 비즈를 칸칸이 붙여주면 된다.
- **십자수 실과 바늘**
초보보다 중급 과정 이상에서 주로 쓰이며, 비즈를 꿰매는데 사용할 십자수 실과 작은 구멍을 가진 십자수 바늘을 사용하여 비즈를 패브릭에 꿰매는 도구다.
- **자수 틀**
작업 중인 패브릭을 굳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자수 틀이 있으면 유용하다.
- **표시 도구**
완성된 라탄 작품을 염색할 때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다.
- **(방수) 앞치마 및 팔토시**
디자인을 패브릭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연필, 펜, 또는 워터 펜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

- 작업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작은 비즈나 크리스털을 다룰 때는 각진 부분 등에 다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십자수 바늘을 다룰 때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작업 공간은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한다. 작은 보석이나 실이 떨어지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 중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작업 공간에서 멀리 두는 것이 좋다.
- 작업하기 전에 패턴과 색상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패턴이나 색상을 사용하면 작업 중에 수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작품을 보관할 장소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이어야 한다. 작품을 직접적인 햇빛이나 습기로부터 멀리 두어야 한다. 습기나 먼지 등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상자나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햇빛은 작품의 색상을 바래고 보석이 퇴색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습기는 작품에 무늬가 벗겨지거나 실이 상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작품을 다룰 때는 굵힘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십자수 천이나 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며, 작품을 보관할 때는 접히거나 뭉개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품을 꺼낼 때는 부드러운 패딩이나 보호재를 사용하거나 틈새 없이 평평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오랜만에 작품을 꺼낼 때는 부드러운 붓이나 흔들러 떨어진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가볍고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또 작품에 비즈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 틈새나 떨어진 비즈를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다시 고정하면 된다.

보석십자수로 다양한 작품 만들기

[키링 보석십자수 공예]

준비물

디자인 도안(10*10cm 이내), 아크릴판, 도안에 맞는 색깔 별 보석 비즈, 펜, 트레이, 고체풀, 더블링, 붓고리, 도안에 따른 설명서(키트 구매 시 들어있음)



© 출처: 민화삼 대한민국 보석십자수

순서

- ① 도안의 보호필름을 조금씩 떼어가며 고체풀이 찍힌 펜으로 비즈(보석)를 찍어 배경 색상에 맞게 붙여준다. 이때, 고체풀을 펜에 꽉 찰 정도로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도안 위에도 고체풀의 흔적이 남아 지저분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안 완성 후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꾸욱 눌러준다.
- ② 완성된 보석십자수를 떼어내 아크릴판에 붙인다. 붙이기 전 아크릴판에 부착된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키링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붙인 아크릴판 위에 네일아트용 투명 젤(펄 젤) 등을 발라서 LED 기계에 구워주는 방법도 있는데, 투명 젤을 입히면, 비즈의 광택이 적어질 수 있다.
- ③ 더블링과 붓고리를 끼워주면 보석십자수 키링이 완성된다.

TIP. 남은 비즈와 고체풀은 지퍼백에 소분해서 정리!

먼저 뜯은 비즈들은 작은 지퍼백에 색깔별로 소분하고, 도안에 적힌 숫자나 영문 등으로 표기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비즈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에 이어서 작업할 때도 편리하다. 고체풀은 사용할 때 비닐을 다 뜯지 말고, 소량만 잘라서 쓴다. 남은 고체풀은 비닐을 덮은 채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덜 굳는다. 너무 딱딱할 때는 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따뜻한 물에 2~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사용하면 된다.

[다양한 캔버스 보석십자수 공예]

준비물

디자인 도안 캔버스(15*15cm 내외), 도안에 맞는 색깔 별 보석 비즈, 펜, 트레이, 고체풀, 도안에 따른 설명서(키트 구매 시 들어있음)



© 출처. 다이소물

순서

- ① 예쁜 그림의 기성품 도안을 사용해도 좋으며, 사진 등을 제공하면 접착력이 있는 도안 캔버스와 큐빅 키트를 제공해주는 곳도 많다.
- ② 재료를 모두 갖췄으면 제일 먼저 붙일 색상을 고르고, 트레이에 해당 색상의 비즈를 붓는다. 살짝 흔들어서 트레이의 홈에 비즈를 정돈되게 만들어주면 더욱 좋다.
- ③ 도안은 현재 작업할 색상의 보호필름만 일부 떼어낸다. 보호필름을 전부 벗기고 오래 작업하다 보면 도안의 접착력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작업 펜의 끝에 고체풀을 찍어 넣는다. 이때 풀은 펜에 적당히 넣고 접착력이 떨어질 때마다 보충하면 되며 한 번에 가득 넣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

- ⑤ 트레이에 있는 비즈를 펜으로 콕 찍어 도안에 하나씩 붙이면서 캔버스를 채운다.
- ⑥ 작품이 완성되면 책, 합판 등 넓고 평평한 것으로 비즈 위를 가볍게 눌러주어 정돈한다. 보석십자수 전용 롤러나 밀대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작품은 캔버스 자체로 전시하거나 액자 등에 넣어 걸어두거나 보관하면 된다.

TIP. 초보는 작은 사이즈의 보석십자수로 시작!

보석십자수 입문자는 도안 사이즈가 작은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며 집중력과 참을성을 요구하기에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완성할 수 있는 사이즈와 디자인을 먼저 선택한다. 요즘에는 LED형과 시계형 등 다양한 DIY 키트가 나오고 있어 점차 단계를 올리면 된다.

[루네빌 자수(탕부르 자수) 브로치 공예]

준비물

수틀, 템버 후크 바늘, 울사, 일반 자수 바늘, 비즈, 스팅글, 가죽, 브로치 부자재



© 출처. 이븐노건 인스타그램 @yvonnemorgun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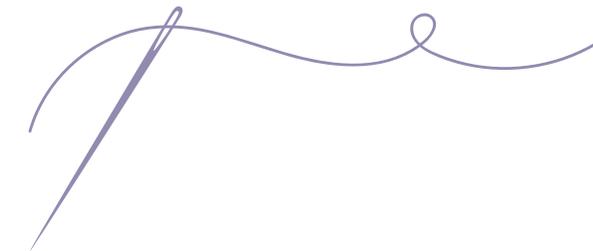
- ① 더욱 특별하고 색다른 보석 자수를 해보고 싶다면 다양한 비즈와 스팅글 등을 템버 후크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프랑스 자수 기법 중 하나인 루네빌 자수(탕부르 자수)에 도전해 보자.
- ② 수틀에 고정하고 도안을 그린다.
- ③ 울사 실로 방사형 룡안솟 스티치로 수를 놓는다.
- ④ 루네빌 자수로 스팅글과 비즈를 교차로 템버 후크 바늘로 크로쉐하면서 고정한다. 스팅글과 비즈를

겹쳐서 템버 후크 바늘로 크로쉐하면서 고정한다. 또는 만토즈 기법의 일반 자수 바늘로 스팅글자 비즈를 교차로 고정한다. 스팅글과 비즈를 겹쳐서 고정한다.

- ⑤ 모조 가죽을 활용해서 브로치 부자재와 함께 고정한다.
- ⑥ 테두리를 스티치를 활용해 튼튼한 브로치를 마무리한다.

TIP. 루네빌 자수 노하우를 담은 책 추천!

『처음 배우는 오투퀴르 자수』는 오투퀴르 자수 작가 4인의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루네빌 자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안 등이 있어 책을 보면서 따라 할 수 있어 추천한다. 리본 브로치부터 귀걸이 뱅글 등 자세한 도안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처음 배우는 오투퀴르 자수』, 마피아싱글하우스, 2020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상이몽



요즘은 공원에서 산책할 때는 물론이고, 음식점, 펜션 등에서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 애완동물(pet)에 가족(family)을 더한 그야말로 '펫팸' 시대다. 개나 고양이는 반려인에게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족'인 셈이다. 하지만 과연 비반려인들에게도 그럴까.

글 편집실

Fetigue





반려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확산

1인 가구 및 딩크족 확산, 고령화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10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올해는 4조6,000억 원, 2027년에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늘어난 반려동물만큼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상당하다. 반려동물 가운데 반려견 양육 가구가 80.7% 정도 되는데 늘어난 반려견 수만큼이나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사고, 개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낙상사고, 개의 배변으로 인한 피해, 개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반려인의 무책임한 관리,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2022년 11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기됐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펫티켓(Pettiquette)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자신의 반려

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 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리드줄 같은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생각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완전히 달랐다. 반려견 보호자는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답했지만, 비반려인은 반려견 보호자가 펫티켓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준수사항(펫티켓)을 지키는 편이라고 답했다.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31.6%,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47.8%였다. 하지만, 비반려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반려견 미양육자의 경우 단 2.1%만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반려견 양육자 응답률(31.6%)의 1/15 수준이다.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라는 응답도 25.9%에 그쳤다.

반려인 의무사항 준수 및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반려인의 의무사항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목줄 또는 가슴줄 사용(2m 이내) △다른 사람과 일정거리 유지 △반려인의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배변 봉투와 물통 지참(배변 뒤처리)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설명된 개들의 잡종)에 해당하거나 물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마개 사용 △반려동물의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 등록 △반려동물 기본 매너 교육 △매너 패드 챙기기(불필요한 마킹 및 마킹으로 인한 갈등 방지)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장 사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은 동물보호법에도 반려인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

의 관리 등)에 따라 목줄과 인식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소유자는 제13조의 2(맹견의 관리)에 따라 안전관리할 의무, 사육·관리 교육을 받을 의무, 보험가입 의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금지의무가 있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실치사상·재물손괴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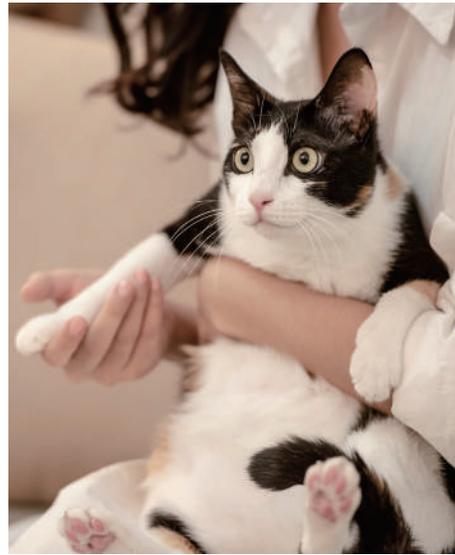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면서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펫티켓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비반려인이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반려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 주지 않기 △갑자기 다가거나 큰 소리 내지 않기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기 등이 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동물에게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외에 노란색 리본을 착용한 동물에게는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노란 리본은 동물에게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동물이 사람과의 접촉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건강상 다른 이유 등으로 접촉을 꺼리니 만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옐로 도그 프로젝트(The Yellow Dog Project)라고 한다.

지난해 2월부터는 등록대상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고양이의 등록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률은 38.6%로 목표인 70%의 절반 수준이다. 펫보험 가입률도 0.8%에 불과하다. 펫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반려문화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면서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펫티켓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직은 비반려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인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과 혐오의 대상일 수도 있고,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로 불편한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먼저 펫티켓 지키기에 나서고, 건강한 반려문화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Tip.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펫티켓 살펴보기



반려동물등록 신청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

동물등록방법 및 수수료

※ 2023년 4월 15일 기준

구분	등록방법	수수료
신규 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 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변경 신고	등록인식표 부착	3천 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무료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반려인 펫티켓

비반려인 펫티켓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타인과 일정거리 유지	반려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지 않기	갑자기 다가거나 앞에서 뛰지 않기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장 사용하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함부로 음식 주지 않기	큰 소리 내지 않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기	줄을 당기거나 털 당기지 않기

유통기한 지난 음식

아뜨살뜨 리뜨리뜨 활용법



식품을 하나씩 구매하는 것보단 대량으로 '통크게'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 보니 우리네 냉장고 속은 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로 넘쳐난다. 괜찮겠지, 하고 먹기엔 좀 짹짹하고, 버리기엔 또 너무 아깝다. 이럴 땐 살림 고수들이 알려주는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음식의 활용법을 실천해보자. 생각보다 다양한 쓰임새에 놀라게 된다.

글 편집실 출처 블로그 빛나리정소, 난나야 외



우유의 변신은

무죄



냉장고 탈취제

+

냉장고 속 각종 식품 냄새가 섞여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우유는 흡착력이 강한 지방, 단백질이 풍부해 냄새를 빨아들인다. 우유를 그릇에 따른 뒤 랩을 씌우고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냉장고 안에 두면 간단하게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

구두 광택제

+

약취 제거뿐만 아니라 가죽 표면을 코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활용해 가죽 표면을 코팅하면 좋다. 천에 소량으로 묻힌 후 구두를 닦아내고 소파나 구두, 지갑 등을 닦아내면 자연스러운 광택을 얻어낼 수 있다.

케첩의 놀라운

매직



탄 자국 제거

+

주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의 탄 자국을 제거할 때 유용하다. 탄 자국이 있다면 케첩을 발라주고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그대로 방치한 후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 문질러 주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미니 아이스팩

+

작은 사이즈의 일회용 케첩도 냉장고에 쌓이다 보면 유통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이때는 일종의 미니 아이스팩처럼 활용할 수 있다. 케첩은 냉동실에 넣어도 단단하게 얼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여러 개를 얼린 후 국소적인 냉찜질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다.

방명록 속 짧은 문구에도 방심은 금물

방명록은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이름 또는 소감 등을 적어 놓은 기록 또는 그 책을 말한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방명록의 짧은 문구 속에는 쓰는 이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글 편집실 출처 국립국어원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과 민족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순국선열의 성찰과 가르침을
굳건이 지키고
반듯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 몇 월 몇 일 -

고맙습니다.

지평선 '지평'은 '대지의 편평한 면/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
↓
지평 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평을 열
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순국선열 '순국선열(先烈)'은 독립운동 열사를 가리킵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에는
↓
호국영령 '1910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사람'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국영령(英靈)'은 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바친 용사를 가리킵니다.

성찰 '통찰'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
통찰 들과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 본질을 파악해 사람들에게 '아하' 하게
만드는 것이 '통찰'입니다. 반면 '성찰'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문맥상 통찰이 맞는 표현입니다.

굳건이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다'는 뜻의 '굳건히'는 발음 때문에 맞춤법을
↓
굳건히 잘 틀리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맞춤법 25항 규정에 따르면 '-하다'가 결합
하는 어근이 부사가 될 때는 보통 '-히'가, 어근이 '시'로 끝날 때만 '-이'로
결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듯이 한글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로
↓
반드시 게, '아담하고 말끔하게'를 뜻하는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 '반듯이'로 적습니
다. 한편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반듯'과 무관한 '틀림없이 꼭'을 뜻해 어근
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몇 월 몇 일 '몇 월 며칠'이 바른 표기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며칠'의 어원이
↓
몇 월 며칠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글맞춤법 제27항에서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며 그 용례로 '며칠'을 들고 있습니다.

**중기근로자 위한
우대 프로그램 실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먼저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개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신규금리를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연 0.7%p 우대 해주는 ‘중기근로자 가계안정 우대 프로그램’을 5월 2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자산형성 우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IBK중기근로자우대저금 신규고객에게 최대 연 1.2%p 우대 금리를 추가 제공해 가입 시 최고 연 5.7%의 금리를 5월 19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기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ONE할 때 환전,
‘YES! IBK환전’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환전고객에게 최대 90% 환율우대와 함께 다양한 경품 및 신라인터넷세점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YES!(¥€\$)! IBK환전’ 이벤트를 5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한다. 대상은 영업점 방문 및 모바일뱅킹 앱 ‘i-ONE뱅크(아이원뱅크)’에서 ‘ONE할 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고객이며 모바일뱅킹을 통해 주유통화 USD, JPY, EUR를 미화환산 기준 500달러 이상 환전 시 최대 9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환전고객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벤트는 1회차(5월 2일~7월 14일)와 2회차(7월 17일~9월 27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ESG경영 실천 위한
‘대국민 폰 순환 캠페인’ 진행**

IBK기업은행은 중고ICT기기 플랫폼 기업 민티과의 협업으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국민 폰 순환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국민 폰 순환 캠페인은 양사가 지난 4월 5일 체결한 ‘중소기업 ESG경영지원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고객들이 보유 중인 중고폰을 판매 또는 기부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양사는 앞으로 중소기업 대상 유틸리티중고기기 기부서비스, ESG 상품개발, 중고폰 시세조회 서비스 등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ESG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기남부 현장목소리 청취**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5월 9일 경기남부(화성, 평택, 안성) 지역의 중소기업(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창림모아츠)과 영업점(평택에 위치한 포승공단지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 은행장이 취임 후 신설한 찾아가는 CEO 현장소통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두 번째 소통행사로 야외에서 경기남부지역본부 관내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 은행장은 “생생한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행복한 IBK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2023 소중한 발걸음’ 실시**

IBK기업은행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인 걸음기부 캠페인 ‘2023 소중한 발걸음’을 실시한다. 2022년부터 이어온 걸음기부 캠페인은 지난해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총 416백만걸음을 기부받아 걸음 목표 200% 이상 달성하며 성료된 바 있다. 이번 걸음기부 캠페인은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누적 걸음 수 2억 400만보를 목표로 진행되며, 걸음목표 달성 시 은행기부금과 임직원 기부금 각 2억 400만 원을 더해 총 4억 800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된다. 본 기부금은 중소기업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환경 복원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폴란드 사무소 개소**

IBK기업은행은 5월 16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지난 3월 폴란드 금융감독원(KNF)으로부터 사무소 설립 최종인가를 취득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기업은행은 유럽 내 새로운 사업전략 거점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폴란드 사무소 설립을 통해 EU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사무소가 진출한 브로츠와프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진출이 집중된 남서부 최대 공업도시다. 기업은행은 폴란드 사무소 설립으로 13개국 60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번 폴란드 진출은 김성태 은행장 취임 후 첫 해외사업이다.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히신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6월의 단어

고고 도전

위의 주어진 4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N행시 예시

고고민에
고고만을 한 끝에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도 도시를 떠나
전 전원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6월 1일 ~ 6월 30일 (엽서는 30일까지 도착)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7월 15일 이내



N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오늘은 어버이날
늘 표현을 못하지만
도를 지키며
고민다는, 사랑한다는 말
마음을 전해줍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강오미-

오르락내리락
늘 불안해 보이는 삶이지만
도움의 손길 덕분에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전해준 당신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박오진-

오늘도 내일도
늘 고마운 사람들
도대체 나는 왜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 따뜻한 보답 못 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우는지 모르겠다.

-송오희-

오랜만에 죽변 사는 큰누나를 만났다.
늘 그림고 고마운 사람이다.
도시에 살다 보니 뜬하게 만나도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
마음이 시나브로 달라진다.
워낙 소리처럼 아련하고 애뜻하게

-강오철-

오늘도 내일도
늘 기다리는데
도대체 왜 안 오지
고향에 두고 온
마나님
워낙 멀어서 못 보내

-김오자-

이달의 인증샷

<with IBK> 6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6월호에 소개된 곳]

38p IBK맛집노트 인천 맛집	44p 발길 닿는 길 문경	56p IBK산 소백산	64p IBK버킷리스트 바디프로필 촬영
-------------------------	----------------------	--------------------	-----------------------------

인증샷 이벤트 참여하기

인증샷을 찍었다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참여 방법 : 아래 QR코드로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7월 15일 이내



#with IBK #IBK맛집노트

#발길 닿는 길 #IBK산 #IBK버킷리스트



뒷면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폴딩이
숨어 있습니다.



도전이 계속되는 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법!
비록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이라도 미래를 향한 도전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더욱 값진 미래로 안내할 겁니다.

각자의 성공을 위한 힘찬 날갯짓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에티켓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회적 약속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에서 나오는 명대사다. 매너라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사람의 됴됨이와 가치를 평가하는 커다란 기준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골프 라운딩



때에 알맞은 복장

모자를 착용하고 하는 운동대부분이 예전 귀족들이 하던 스포츠다. 승마, 골프가 대표적. 지금도 골프의 고향인 영국 남부 클럽에서는 재킷을 입어야만 입장할 정도로 TPO에 엄격하다. 하지만 골프의 대중화 시대인 만큼 남성은 카라가 있는 셔츠에 하의는 긴 바지를, 여성은 비교적 복장이 자유롭지만 과도한 노출이 있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디봇 보수는 기본

페어웨이에서 샷을 한 후 본인이 남긴 흔적은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고, 발로 잘 밟아주면 된다. 골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너다. 디봇(Divot-땃장)과 마찬가지로 내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벅커를 정리하는 매너도 필수. 상대방의 퍼팅라인에 그림자를 만들거나 라인에 발자국을 남겨도 안 된다.

캐디에게도 예의를

캐디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캐디는 골프 경기보조원으로 라운딩 자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내 경기를 돕는 사람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해 줘야 한다. 성함을 기억하고 호칭으로 “OO씨”라고 불러주는 것이 좋다. 간혹 언니, 이모, 저기요 등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불쾌한 언어로 부르는 것은 삼가야 한다.

클래식 공연



박수는 언제

클래식 음악회에 가면 도대체 박수를 언제 쳐야 하는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다. 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휘자나 악장이 관객을 향해 인사할 때 박수를 치면 된다. 관객을 향해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곡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공연 전 프로그램북을 미리 구매하면 쉽게 악장 간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코드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무대에 나오는 연주자들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들이 가장 예쁘고 멋있게 보이도록 치장한다. 남자 연주자는 턱시도를,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에 최고의 메이크업과 헤어로 한껏 치장한다. 관객은 비싼 옷이 아니라도 깔끔하게 예의를 차린 모습이라면 족하다.

후각까지 배려

공연장은 객석 사이가 좁고, 멀리 보이는 연주자를 눈으로 좇아가며 귀를 쫓긋한 채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 탐색한다. 이때 우리의 후각도 더욱 발달하는데 유난히 음식 냄새나 독한 향수, 부스럭거리며 사탕을 먹는 소리는 관객들의 감상을 방해한다. 공연예술은 한 장소에서 대중이 동시에 소비하는 집단적 소비제품임을 잊지 말자.

항공여행 기내 예절



취침에도 기술이

비행기에 타면 대개 많은 사람이 잠을 청한다. 좁고 불편한 좌석이긴 하지만 기내 취침에도 에티켓이 존재한다. 특히 흔들리는 우리의 머리에 옆 사람이 불쾌할 수 있다. 이럴 땐 승무원에게 무릎담요나 기타 도구를 빌려서 자세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머리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나는 샴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음주는 적당히

기내에서 간식과 함께 하는 맥주 또는 와인 한잔은 설레는 마음을 즐기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행기에는 수많은 승객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에 기내 음주가 과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기내에서 과한 음주로 인한 소란과 난동을 피울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승무원은 사법경찰관

최근 흡연, 소란행위, 폭행·협박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와 음주·약물사건 등 비매너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개정 항공보안법은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벌금, 징역이 아닌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나는 만큼 승무원의 안내와 지시에 잘 협조해야 한다.

서양식 테이블



식기 사용법

‘좌빵우물’ 좌측에 있는 것이 자기 빵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자기 물이다. 나이프와 포크가 여러 개일 경우 바깥에 있는 포크와 나이프부터 사용한다. 식사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포크와 나이프를 ‘8(팔)자 모양으로 모아두고 이동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이프의 날이 안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이블 매너

자신의 식기로 다른 사람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은 실례다. 특히 빵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식사를 시작한 후에는 머리카락, 얼굴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빵을 먹을 때 제공되는 버터 이외의 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냅킨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릎 위에 펼쳐놓아 식사가 시작됐음을 알린다.

스테이크는 왼쪽부터

스테이크는 한 번에 썰어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 마다 왼쪽부터 썰어 먹는다. 오른쪽은 그릇의 잔열로 점점 익기 때문에 그보다 부드러운 왼쪽부터 먹어야 육즙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식사를 마쳤더라도 같은 테이블에 식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식기나 접시를 모으는 행동은 실례가 된다.



기업은행의 변화는 기업이 중심.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한다는 것

그마음의 무게를 잘 알기에

기업운영에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기업은행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조건 없이 전체 기업고객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0원

